

< 중국문화개관 >

▶ 중요개념 정리(방송강의포함)

【 목 차 】

제1장. 총론

제1절 개황과 명칭 p.2 제2절 지리 p.6 제3절 기후와 자연자원 p.13
제4절 행정구역 p.16 제5절 인구와 민족 p.22

제2장. 중국의 역사

제1절 동아문명권과 중국 p.30 제2절 중국역사의 시기구분 p.36
제3절 중국역사의 전개 p.39

제3장. 중국의 풍속. 습관

제1절 역법과 24절기 p.64 제2절 전통명절 p.67 제3절 기념일 p.73
제4절 음식문화 p.75 제5절 혼례와 상례 p.82

제4장. 중국문화의 형성과 발전

제1절 문화형성의 요인 p.88 제2절 중국문화와 농업 p.93 제3절 동아문화와 세계 p.99
제4절 전통중국의 과학기술 p.105 제5절 중국문화 발전과 쇠퇴의 원인 p.110

제5장. 중국인의 관념과 의식

제1절 중국인의 민족의식 p.122 제2절 중국인의 위계의식 p.126
제3절 중국인의 여러 가지 측면 p.133

제6장. 정신세계와 문화생활

제1절 전통사상의 원류 p.146 제2절 민간신앙과 종교 p.160
제3절 중국영화의 미학 p.175 제4절 현대중국의 도서출판 p.191

제7장. 문학과 예술의 전통

제1절 고전문학의 전통 p.208 제2절 현대문학의 발달 p.222
제3절 경극(京劇)과 공연예술 p.240 제4절 20세기를 빛낸 문인과 예술가 p.253

=====

제1장 총론

제 1절 개황과 명칭

1. 개황

■ 중국 건국기념일(국경일) : 1949년 10월 1일. → 중국에서는 유일한 국경일임.

[보충설명] 중화민국(대만)의 건국기념일 : 10월 10일(쌍십절)

■ 중국공산당 주석 모택동(毛澤東)이 북경(北京)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 중국은 건국 이전인 동년 9월 27일 네 가지 사항을 통과시켰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도를 북평(北平)으로 하며, 북평을 북경(北京)으로 개명했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서기(西紀, 중국어로는 西元)를 채택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國歌)가 제정되기 전에는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대신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國旗)는 ‘오성홍기(五星紅旗)’로 했다.

며, 대신 중화민국(中華民國)을 ‘中國’이라 불렀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북경을 수도 삼아 건국했다.

▶ 중화민국은 1912년 ‘남경(南京)’을 수도 삼아 건국했다.

[보충설명]- 1949년 중국공산당에 패퇴하여 대륙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내주고 대만으로 천도했다.

- 양안(兩岸) : 양측을 동시에 지칭할 때 쓰는 말.

▶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명칭.

▶ 중화(中華) : 중국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 ‘華’자는 ‘화하족(華夏族)’을 자칭하는 말로 현재 한족(漢族)을 말한다.

▶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염제와 황제의 자손(炎黃子孫)’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용의 자손(容積)’이라 한다.

▶ ‘華’는 단독으로 중국을 가리킨다.

▶ China의 어원 : 秦(Jin)이 강성했던 시기에 서양에 전해져 음역되었다는 설이 있다.

▶ 영어의 정식명칭 :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약칭은 'PRC'이다.

▶ 1970년대 말 이전에는 통상 'Red China'라고 불렀다.

▶ 中國이라는 단어는 주(周)대의 문헌과 <시경> <예기>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사이(四夷 : 羌, 戎, 狄, 蠻)나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또는 ‘구주(九州)’의 가운데에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중국인들이 이들 민족보다 우월한 문명을 가졌다는 뜻으로 ‘中國’이라 하였으며, 중국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높여서 ‘신주(神主)’라고도 칭한다.

[핵심 포인트] 중국(中國)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약칭

영어의 정식명칭 - People's Republic of China', 약칭 - 'PRO'

중화(中華) - 중국 민족 전체를 가리킴

▶ 중화인민공화국 - 1949년 북경을 수도 삼아 건국 ▶ 중화민국 - 1912년 ‘남경(南京)’을 수도 삼아 건국

제2절 지리

1. 위치와 면적

■ 우리나라의 북부와 인접하며, 황해건너 서부와 서남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 중국의 국경선은 약 2만 2800km이며, 15개 국가와 인접하고 있다.

■ 신장 지방 외에는 수도 북경을 표준시로 삼으며, 우리나라보다 표준시가 1시간 늦다.

■ 최북단은 막하 이북의 흑룡강 - 북위 53도 ■ 최남단 남사군도의 증모암사 - 북위 4도

■ 최서단 신강위구르자치구 서부의 파미르고원 - 동경73도

■ 최동단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곳 - 동경 135도

■ 남북간의 거리는 5500km, 동서간의 거리는 5200km이다.

■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km²로서 세계 3위이다.

[핵심 포인트] 국경선 - 약 2만 2800km, 15개 국가와 인접

표준시 - 신장 지방 외에는 북경을 표준시로 삼음. 우리나라보다 표준시가 1시간 늦음.

중국의 면적 - 약 960만km²로 세계 3위

2. 지형과 산맥

■ 중국 지형은 서고동저형이며, 네 지대로 구분되는데, 이 네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은 지리 분계선과 농업생산분계선과 일치한다.

■ 지형의 종류

▶ 서남부의 청장고원은 해발 4000m 이상의 가장 높은 지역임.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산의 주무랑마봉을 비롯해, 곤륜산, 기련산, 용문산 등에 둘러싸임. 날씨가 추위 내한성이 있는 쌀보리의 일종인 나뭇을 재배하고, 소의 일종인 야크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 곤륜산, 기련산과 대홍안령, 태행산 사이의 해발 1000~2000m 인 곳. 청장고원의 북쪽과 동쪽지역이며, 대부분이 드넓은 고원과 분지임. 타클라마칸 사막과 투르판 분지, 사천 분지, 내몽골 고원, 황토고원, 운귀 고원 등이 있음. 인구도 매우 적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이어서 서부 개발의 대상 지역이다.

▶ 해발 500m 이하의 구릉과 평원이 분포된 지역. 만주의 동북평원, 북경 남쪽의 화북평원, 장강 중하류 평원이 있고, 대부분의 대도시가 이 지역에 위치한다. 인구의 대부분이 이곳에 거주하며, 교통도 편리하고 경제도 발전되어 있다.

▶ 깊이가 200m 이하인 동쪽 바다와 그 밑의 대륙붕이다.

■ 중국의 산맥 : 동서, 북서, 북동, 남북의 네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8000m 이상 되는 고봉이 7개가 있다.

▶ 동서 방향 : 서북지방에 위치. 천산, 음산, 곤륜, 진령, 남령 등.

▶ 북서 방향 : 서남지방에 위치. 알타이산, 기련산, 히말라야산, 카라코람산, 칸디스산 등.

▶ 북동 방향 : 동부에 위치. 대홍안령, 태행산, 장백산, 대만산 등.

▶ 남북 방향 : 중부에 위치. 횡단산, 육반산, 하란산 등.

■ 중국의 4대 고원 : 청장고원, 운귀고원, 내몽골고원, 황토고원

■ 중국의 5대 분지 : 타림 분지, 준가얼 분지, 차이다무 분지, 투루판 분지, 사천 분지

[핵심 포인트] 중국 지형 - 서고동저형, 네 지대로 구분, 지리분계선과 농업생산분계선이 일치함.

서남부의 청장고원 - 해발 4000m 이상의 가장 높은 지역임

중국의 4대 고원 - 청장고원, 운귀고원, 내몽골고원, 황토고원

중국의 5대 분지 - 타림 분지, 준가얼 분지, 차이다무 분지, 투루판 분지, 사천 분지

3. 강과 해양

■ 중국의 주요 하천은 대부분 청장 고원에서 시작되며 하천 흐름의 낙차가 매우 크다.

■ 주요 하천 : 장강, 황하, 흑룡강, 주강, 란찬강 등이 있다.

▶ 장강 : 양자강이라고도 하며, 중국 최장의 하천으로 길이가 6300km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 청장고원의 탕글라산에서 발원해 중국의 동해로 흘러든다.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다. 하류는 거의 매년 홍수가 일어난다. 동정호와 파양호가 위치.

▶ 황하 :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길이가 5464km이다. **역대 왕조의 수도 대부분이 황하 옆에 위치하며, 흐름의 낙차가 매우 작아 1마일에 1피트 정도이다.** 하상에 퇴적물이 쌓여서 점점 높아지므로 제방을 갈수록 높이 쌓아야 하고, 따라서 하상이 지면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지상하)이 특징. 범람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

▶ 흑룡강 :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으로 길이가 4370km이다. 중국 경내와 중러 접경을 이르다가 러시아 경내로 유입하여 오호츠크해로 흘러 들어간다.

▶ 주강 : 중국의 남부에 위치하며 길이가 2100km로 중국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임. 서강, 북강, 동강이 합쳐진 것.

▶ 회하 : 하남성에서 발원하여 황해와 장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길이가 약 1000km이며 지형과 기후 등 많은 면에서 중국을 남북으로 나누는 중요한 자연분계선. 황하와 더불어 범람을 많이 하는 강.

■ 중국의 호수 면적은 모두 합해 약 7만km², 1000km² 이상인 호수가 13개이다. 담수호와 함수호로 구분된

다.

- ▶ 중국의 4대 담수호 : 과양호, 동정호, 태호, 흥택호.
- ▶ 합수호 : 청해호, 남목호.

■ 중국은 동쪽과 남쪽의 일부만이 바다이며, 발해, 황해, 동해, 남해 등 4개 해역으로 구분되는데, 바다의 총면적은 470여만km²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총 1만 8000km이다.

- 발해는 요동 반도와 산둥 반도로 둘러싸인 바다이며, 황해는 요동반도에서 장강 하구까지의 바다, 동해는 장강 하구에서 대만 해협까지의 바다, 남해는 그 이남의 바다다.

■ 섬 : 중국에는 총 50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총면적은 8만여km²이다. 최대의 섬은 대만도이며 이 섬의 면적은 3만 5000km²로 우리나라의 경상도 면적과 비슷하다. 해남도(海南島)는 두 번째로 큰 섬인데, 광둥성 남부에 있으며 대만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서 현재 독립된 성(省)이다.

[핵심포인트] 주요 하천 - 장강(6300km,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강) > 황하 > 흑룡강 > 주강 > 란찬강

황하 - 하상에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지면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지상하)이 특징

섬 - 대만도 > 해남도

제3절 기후와 자연자원

1. 기후

▶ 중국의 기후 : 대륙성 계절풍 기후

▶ 겨울 : 대륙이 해양보다 기온이 낮고 기압이 높아 시베리아와 몽골고원에서 불어오는 편북풍의 영향으로 인해 한랭 건조한 날씨가 된다. 3 ~ 4월까지의 편북풍은 황사를 싣고 온다.

▶ 여름 : 편남풍의 영향으로 온난습윤한 날씨가 된다. 7 ~ 8월의 편남풍은 태풍으로 변해 호우를 몰고 와 장강 유역 등지에 대규모 홍수를 일으킨다.

■ 중국의 5대 기후대(남에서 북으로)

- ▶ 열대 → 아열대 → 온난대 → 온대 → 아한대
- ▶ 최북부에 위치한 동북 만주의 흑룡강성은 연교차가 심하다.
- ▶ 남북 간의 여름 기온차는 적으나, 겨울 기온차는 최고 섭씨 50 ~ 60도에 달한다.
- ▶ 유리한 농업 여건 : 한대, 온대, 열대의 농작물을 자연 상태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다.

■ 강수량의 차이

- ▶ 서남과 동남지역은 연 강수량 : 2,200mm ▶ 서북 타림분지 : 50mm에도 못 미친다.
- ▶ 황하 유역 : 600 ~ 800mm

■ 중국의 지형과 기후

- ▶ 서남의 티벳고원과 서북의 신강, 몽골고원 지역
- ▶ 만주 지역 ▶ 회하(淮河) 이북의 화북(華北) 지역 ▶ 회하 이남의 화남(華南)지역

■ 오랫동안 중국 역대 왕조의 영토였던 화북과 화남지역은 평균 기온이 높아 일년 내내 푸른색의 식물이 자라서 겨울에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비가 많이 내리고, 농업을 위한 이상적 기후지만 오랫동안의 경작으로 토지의 양분은 부족한 상태다.

- 대부분 겨울에 보리나 채소를 재배하고 여름에는 벼를 경작함. 2모작 ~ 3모작까지 가능. 쌀을 주식으로 한다.

■ 화북지역 : 건조하고 겨울에 강추위. 비옥한 황토의 퇴적에도 불구하고 염분과 석회기 우기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아 표층에 남아 있으며, 지하수는 황토의 모세관작용으로 지표로 올라와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하여 벼농사가 힘들어서, 건조작물인 밀과 기장을 많이 재배한다. 분식을 많이 먹는다.

[핵심 포인트] 중국의 기후 - 대륙성 계절풍 기후

겨울 - 대륙이 해양보다 기온이 낮고 기압이 높음. 편북풍의 영향으로 인해 한랭 건조한 날씨가 됨.

3 ~ 4월까지의 편북풍은 황사를 싣고 옴.

여름 - 편남풍의 영향으로 온난습윤한 날씨. 7 ~ 8월 장강 유역 등에 대규모 홍수 발생.

중국의 5대 기후대(남에서 북으로) 열대 → 아열대 → 온난대 → 온대 → 아한대

동북 만주의 흑룡강성 - 연교차가 가장 심함.

2. 자연자원

■ 중국의 토지 : 산지, 고원, 구릉이 66% + 평지 면적 34%

■ 농업, 임업, 목축업에 활용되는 면적 : 46%

■ 경지면적 96만km²로 전체의 10%(전 세계 경지 면적의 7%에 해당됨) - 세계 인구의 22%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있다.

■ 경작지 = 3대평원(만주의 동북평원, 북경남쪽 화북평원, 장강중하류 평원) + 주강의 삼각주 + 사천분지

■ 동북평원 : 송화강과 요하의 충적으로 이루어진다.(일명 송요평원이라고도 함)

▶ 토양 : 부식토질의 검은 옥토 ▶ 재배 식물 : 소맥, 옥수수, 고량, 콩 등.

▶ 기후 : 아주 건조하지는 않음. 기온이 낮고 성장기간이 짧다.

■ 화북평원

▶ 토양 : 황하, 회하, 해하(海河)등의 침적토로 형성. 지세 평만. 토양 비옥. 수자원 부족하여 알칼리성 토양으로 변질되기 쉽다.

▶ 기후 : 여름에는 대단히 덥고 겨울에는 대단히 추움, 사계절의 변화가 분명하다.

▶ 재배 식물 : 소맥, 조, 면화 등의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등의 과일

■ 장강의 중하류 평원

▶ 토양 : 지세가 낮고 평탄하며 강과 호수가 많다.

▶ 기후 : 기후조건이 좋고 수자원도 풍부하여 식물의 성장속도도 빠르다.

▶ 재배 식물 : 벼, 쌀, 유채, 누에, 콩 등.

▶ 담수어도 많이 생산되는 등 먹거리가 풍부하여 '어미지향(魚米之鄉)'이라고도 부른다.

■ 주강의 삼각주

▶ 기후 : 아열대 해양성 기후. 풍부한 수자원과 높은 기온.

▶ 재배 식물 : 벼의 이모작이 가능하고, 여지, 바나나, 목과, 양도 등의 과일이 생산된다.

■ 사천분지 농업지역

▶ 토지 : 비옥한 자색토이고 중성의 토양으로 침수성과 통기성이 좋다.

▶ 기후 : 아열대의 고온 다습한 계절성 기후에 속한다.

▶ 재배 식물 : 벼의 2 ~ 3모작 가능. 유채, 쌀 등. 양잠도 유명하다.

■ 1990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종

▶ 곡류, 고기류, 목화, 유채씨의 생산량 - 세계 1위 ▶ 땅콩과 차잎의 생산량 - 세계 2위

▶ 콩의 생산량 - 세계 3위 ▶ 사탕수수, 사탕무 - 세계 4, 5위

■ 중국의 삼림면적 : 115.3km²로 전국토의 12%

▶ 중국 최대 삼림지구 = 백두산과 대흥안령 북부지역으로 전국 삼림량의 1/3을 차지.

- ▶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자작나무. 낙엽송이 주종.
- ▶ 히말라야산의 서남 삼림지구와 운귀고원의 남부 삼림지구도 손꼽힌다.

■ 초원면적

- ▶ 넓이 : 31,9만km²
- ▶ 흑룡강의 서부, 황토고원의 북부와 서북부의 ks지를 거쳐 청장고원에 분포.
- ▶ 전장 3,000km에 달하고 모두 1,000 ~ 5,000m의 고지대이다.
- ▶ 내몽골 대초원 : 중국 최고 유명한 천연방목장으로 8.7만km²이며 서부보다 강우량이 많아 목초지로서의 조건도 매우 좋다. ▶ 1990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종
 - ▶ 곡류, 고기류, 목화, 유채씨의 생산량 - 세계 1위
 - ▶ 땅콩과 차잎의 생산량 - 세계 2위
 - ▶ 콩의 생산량 - 세계 3위
 - ▶ 사탕수수, 사탕무 - 세계 4, 5위

[핵심 포인트] 중국의 토지 - 산지, 고원, 구릉이 66% + 평지 면적 34%
 농업. 임업. 목축업에 활용되는 면적 - 46%
 경지면적 96만km²로 전체의 10%(세계 경작지의 7%에 해당) - 세계 인구 22%의 식량.
 경작지 = 3대평원(만주의 동북평원, 북경남쪽 화북평원, 장강중하류 평원) + 주강의 삼각주 + 사천분지
 곡류, 고기류, 목화, 유채씨의 생산량 - 세계 1위 땅콩과 차잎의 생산량 - 세계 2위
 콩의 생산량 - 세계 3위 사탕수수, 사탕무 - 세계 4, 5위

제 4절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조건의 차이에 따라 전국토를 분할하고 이에 적절한 행정단위를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 체제 : 도(道), 군(郡), 면(面)의 3등급 체제

■ 중국 : 성(省), 현(縣), 향(鄉, 또는 鎮)의 3등급 체제

[핵심 포인트]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 체제 - 도(道), 군(郡), 면(面)의 3등급 체제
 중국 - 성(省), 현(縣), 향(鄉, 또는 鎮)의 3등급 체제

1. 성급 행정구역

■ 성급(省級) 행정구역 : 성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단위, '1급 행정구역'이라고도 한다.

■ 종류 : 성, 직할시(直轄市), 자치구(自治區→신강 위구르자치구, 서장자치구, 내몽고자치구, 영하회족 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가 있으며, 모두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 성 22개, 직할시 4개, 자치구 5개, 특별행정구 2개

- ▶ 동북구(東北區) :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遼寧)의 3개 성
- ▶ 화북구(華北區) : 북경(北京), 천진(天津)의 2개 직할시와 하북(河北), 산서(山西)의 2개 성, 내몽고자치구

▶ 서북구(西北區) : 섬서(陝西), 감숙(甘肅), 청해(青海)의 3개 성과 영하회족(寧夏回族)과 신강위구르(新疆維吾爾)의 2개 자치구

▶ 화동구(華東區) : 상해(上海)직할시와 산둥(山東), 안휘(安徽), 절강(浙江), 강소(江蘇), 복건(福建), 강서(江西)의 6개 성

▶ 중남구(中南區) :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광둥(廣東), 해남(海南)의 5대 성과 광서장족(廣西壯族)자치구

▶ 서남구(西南區) : 중경(重慶)직할시와 사천(四川), 운남(雲南), 귀주(貴州)의 3대 성과

서장(西藏)자치구

■ 동북구, 화북구, 서북구, 서남구, 화동구, 중남구의 6개 지구는 건국 직후부터 1954년까지 ‘대행정구(大行政區)’로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 기타 정식 행정구역의 명칭은 아니지만 화북(華北), 화남(華南), 화중(華中), 그리고 중원(中原) 등의 명칭도 사용되었다.

■ 기상예보 :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동남 연해(沿海)의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다.

■ 중국의 각종 건설사업, 각종 사회경제 통계자료 등은 통상 성급단위로 진행된다.

▶ 성급 행정구역 최고 권력기관은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이며, 이것의 집행기구는 ‘인민정부(人民政府)’이다.

▶ 성인민정부 소재지를 ‘성회(省會)’라고 부른다. 자치구는 ‘수부(首府)’라고 부른다.

▶ 성회와 수부 모두 각 성과 자치구의 정치,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 거의 모든 1급 행정구역은 단음절의 약칭을 가지고 있다.

- 약칭의 사용 : 자동차번호판, 철도노선 명칭, 공문서 등

■ 약칭의 유형

▶ 원래 명칭으로부터 단순히 한 글자만 취한 유형

예) 京(북경), 津(천진), 遼(요녕성), 吉(길림성), 港(홍콩) 등.

▶ 해당 성에 소재하는 강이나 호수의 이름에서 유래

예) 湖南省 - 湘 - 상강(湘江) 雲南省 - 滇 - 전지(滇池)

▶ 역사 지명에서 유래 : 산둥성, 산서성, 섬서성은 춘추전국시대에 각기 노(魯), 진(晉), 진(秦)나라에 속했었기에 그 곳에서 이름을 따왔다.

■ 수도인 북경 : 4개 직할시 중의 하나로 대략 1,000만 명의 대규모 도시이다.

▶ 10세기 요(遼)나라와 금, 원, 명, 청의 수도였으며, 현재 중국의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다.

▶ 북경대학, 청화대학, 북경광과전시대학 등이 있다.

▶ 서안(西安)과 더불어 역사유적이 가장 많은 ‘천년고도(千年古都)’로 고궁(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천단, 이화원 등이 대표.

1. 1급행정구역(특별행정구) : 홍콩과 마카오가 여기에 해당.

- 중국과는 다른 정치, 경제제도의 시행이 허용된 지역으로서, 법률상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직접통제는 받지 않는다.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중국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핵심 포인트]

종류 - 성, 직할시(直轄市), 자치구(自治區), 특별행정구(모두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음)

성 22개, 직할시 4개, 자치구 5개, 특별행정구 2개

각종 건설사업, 각종 사회경제 통계자료 등 - 통상 성급단위로 진행됨.

성급 행정구역 최고 권력기관 -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집행기구 - 인민정부(人民政府) 성인민정부 소재지 - 성회(省會) 자치구 - 수부(首府)

수도인 북경 - 4개 직할시 중 하나, 1,000만 명의 대규모 도시. 10세기 요(遼)나라와 금, 원, 명, 청의 수도, 현재 중국의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 북경대학, 청화대학, 북경광과전시대학 등이 있음. 천년고도(千年古都)로 고궁(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천단, 이화원 등이 대표.

1급행정구역(특별행정구) - 홍콩과 마카오가 여기에 해당.

2. 지급 행정구역

■ 지급(地級) 행정구역(2급 행정구역) : 지구(地區), 자치주(自治州), 맹(盟), 과 구(區) 가 설치되어 있는 대도시를 말함. 성의 통제를 받는다.

성급(省級)과 현급(縣級)의 중간.

■ 지구 : 우리의 광역시와 비슷함. 어떤 도시와 그 주변의 몇 개 현(縣)을 포함하여 설정된 도시를 가리킴. 현재 전국에 89개가 있다.

■ 자치주 : 자치구(自治區)와 마찬가지로 특정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구와 다르다.

- 길림성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 연길, 용정, 훈춘, 도문, 돈화, 화룡의 5개 시와 왕청, 안도의 2개 현을 가지고 있다.

■ 맹은 자치주와 같은데, 몽고족이 다수 주거하는 점만이 다르다.

■ 지급시(地級市) : 우리의 광역시와 비슷함. 단순히 관할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 개의 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지급(地級) 행정구역(2급 행정구역) - 지구(地區), 자치주(自治州), 맹(盟), 과 구(區) 가 설치되어 있는 대도시. 성의 통제를 받음. 성급(省級)과 현급(縣級)의 중간.

지구 - 우리의 광역시와 비슷함. 어떤 도시와 그 주변의 몇 개 현(縣)을 포함하여 설정된 도시. 현재 전국에 89개

3. 현급 행정구역

■ 현급 행정구역(3급 행정구역) :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와 큰 도시에 속한 관할구 등이 있다.

■ 성급의 통제를 받는다.

■ 우리의 군(郡)에 해당하는 현급 행정구역은 전국에 2,217개가 있다.

[핵심 포인트]

현급 행정구역(3급 행정구역) -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와 큰 도시에 속한 관할구 등. 우리의 군(郡)에 해당.

4. 향. 진급 행정구역과 그 이하

■ 향(鄉)과 진(鎭)(4급 행정구역) : 우리의 면(面), 읍(邑)에 해당한다.

우리의 동(洞)에 해당하는 도시의 가도(街道)와 우리의 리(里)에 해당하는 촌(村) 또는 장(莊)이 있다.

■ 행정구역의 명칭은 주소로 활용되며, 중국의 도시에는 우리의 동(洞)에 해당하는 것이 없음. 대신 도로의 명칭으로 주소를 대신한다.

■ 우리의 번지를 중국에서는 ‘호(號)’라 한다.

■ 중국 일반 가정의 주소에는 도로의 명칭과 ‘호’사이에 ‘골목’을 뜻하는 ‘항(巷)’이 있다.

[핵심 포인트] 향(鄉)과 진(鎭)(4급 행정구역) - 우리의 면(面), 읍(邑)과 동(洞)에 해당. 도시의 가도(街道)와 우리의 리(里)에 해당하는 촌(村) 또는 장(莊)이 있음.

제 5절 인구와 민족

1. 인구

■ 세계 총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 중국의 인구증가가 빠른 이유

▶ 사회가 안정되고 의료. 위생사업의 발전으로 인해 사망률이 건국 전 25%에서 6%로 감소했고, 평균 수명이 구중국의 35세에서 현재 71세로 배나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 인구출생률의 상승. 1971년까지 출산을 장려하였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 산아제한 정책

을 시행하여 1996년 현재 16% 정도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 중국의 산아제한(중국어는 計劃生育)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중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 산아정책의 내용 : 만혼만육(晩婚晩育), 소생우생(少生優生)

▶ 만혼만육(晩婚晩育) :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다. 규정된 결혼 연령 남자 22세, 여자 20세인데 이보다 3년이 늦으면 만혼이라 함. 여성이 24세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만육이라 한다.

▶ 소생우생(少生優生) : ‘소생’이란 한 쌍의 부부가 단지 1명의 아이만 낳음. 1980년부터 시행되었다. 첫째 아이가 장애자이면 둘째를 낳을 수 있다. 소수민족에게도 2명까지 허용한다. ‘우생’은 출산의 질을 높여서 아이의 신체건강과 지적발달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 남녀간 성비율 : 전 세계 총인구의 비율과 비슷함. 문맹률이 16%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 인구분포의 불균형 : 동반부는 전체 면적의 43%이지만 인구는 무려 94%를 차지한다.

■ 평균 인구밀도는 동남부가 km²당 236명이고, 서북부가 km²당 11명으로 2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 동반부에서도 양자강의 중하류지역인 호북, 호남, 안휘, 강서, 강소, 상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km²당 663명이다.

■ 건국 이전 농촌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80%를 차지하였으나, 1992년 말 현재 67%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이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핵심 포인트]

인구 - 세계 총인구의 약 1/5 (13억)

산아제한(중국어는 計劃生育)정책 - 1970년대부터 시작,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으로 시행.

산아정책의 내용 : 만혼만육(晩婚晩育), 소생우생(少生優生)

만혼만육(晩婚晩育) :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 것. 규정된 결혼 연령 남자 22세, 여자 20세, 이보다 3년이 늦으면 만혼. 여성이 24세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만육.

소생우생(少生優生) : ‘소생’이란 한 쌍의 부부가 단지 1명의 아이만 낳음. 소수민족- 2명 허용.

우생 - 출산의 질을 높여 아이의 신체건강과 지적발달을 보장.

2. 민족

■ 스스로 ‘통일된 다민족국가’라 말함. :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다.

■ 한족(漢族)이 1990년 현재 91.96%이며, 나머지 55개 민족을 통상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 소수민족간의 인구수 차이는 매우 크며, 1,500만 명의 장족(壯族)이 가장 많고, 2,300명의 낙파족(珞巴族)이 가장 적다.

■ 소수민족의 분포 특징

▶ 분포지역이 대단히 넓다. 인구는 전국 인구의 1/10 이하지만, 거주 지역은 전국의 절반임. 5개의 민족 자치구 이외에도 대부분의 성시에 이들 민족의 자치주와 자치현이 있다.

▶ 흩어져 살고 있다. 조선족의 예를 들면, 전체 중국에 총 200만 명이 있지만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80만 명만이 거주한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총인구 중에는 한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족과 조선족 이외의 다른 민족도 거주하고 있다.

▶ 대부분 국경지역에 거주하여,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뒤떨어진다.

▶ 인구밀도도 낮고 교통조건도 열악하며 교육수준도 낮다.

▶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한족에 의해 정복된 경우이다.

▶ 소수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 중 21개 민족은 자신의 문자도 가지고 있다.

▶ 회족(回族), 위구르족(維吾爾族), 카자흐족을 포함한 10개 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한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족은 이슬람교를 거의 믿지 않는다. → 중국의 소수민족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다.(중국에 있는 이슬람교 사원을 “清真寺[청진사]”라고 한다.)

- ▶ 장족, 몽골족 등은 불교나 라마교를 믿는다.
- ▶ 기타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조상숭배, 토템숭배, 샤머니즘을 포함한 자연숭배의 여러 신앙을 가진다.
- ▶ 의복, 명절, 주택, 오락, 관혼상제 등 풍속면에서도 모두 자신들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티벳(西藏 Xīzàng, 서장)의 장족과 신강의 위구르족 등은 중국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하는 경향이 강하여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핵심 포인트]

통일된 다민족국가 -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짐.

한족(漢族) - 1990년 현재 91.96%, 나머지 55개 민족 - 소수민족.

장족(壯族) - 최다인구, 낙파족(路巴族) - 최소인구.

소수민족 - 모두 자신의 언어 보유. 21개 민족 - 자신의 문자도 있음.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음.

티벳(西藏 Xīzàng, 서장)의 장족과 신강의 위구르족 - 독립하려는 경향강해 중국 정부의 골치.

제2장 중국의 역사

제 1절 동아문명권과 중국

■ 중국은 인류의 문명이 싹튼 4대 지역 중 하나로, 실크로드를 통한 간접적인 상업왕래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과 동떨어진 채로 역사와 문명이 발달해 왔다.

■ 역사 시기 이후 세계의 문명권은 지중해를 둘러싼 지중해 문명권과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 문명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동아 문명권은 지중해 문명권 보다 규모도 작고, 시작이 늦었지만, 3~4세기부터 지중해 문명권의 수준을 능가한다.

■ 동아 문명권은 다시 티벳, 중앙아시아의 동부, 몽골지역과 만주에 이르는 유목지역과, 나머지 농경지역의 두 지역으로 구분 가능.

▶ 유목지역 : 여러 민족이 흥망을 반복하였으며, 각 민족의 수가 적고 그나마 서로 다른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특정 민족이 지속적인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대부분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목생활로 인해 전체 민족이 통합되면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해서 중국을 침략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중국 침략 유목 민족으로 흉노, 선비, 말갈, 강, 저,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등이 있다. 특히 몽골족의 원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모두 점령하였고, 만주족의 청 역시 중국 전체를 260년 간 통치했다.

▶ 농경지역 : 중국, 한국, 일본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로 구분 가능. 이중 중국은 유목 민족에게 끊임없는 침략을 당해 심한 고통을 당해왔다. 하지만 유목민족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도 항상 재기에 성공하였다.

■ 중국은 군사적이나 문화적으로 동아시아의 패권 지휘를 유지해 왔다. 주변 국가들은 독립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중국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지는 못했다. (예: 독자적 연호 사용 금지, 궁중 용어의 제한, 조공 책봉 관계 등)

▶ 한국과의 관계 : 삼국시대의 고구려에 의한 위협이 있었지만, 그 뒤 발해의 멸망 후에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한국을 유목민의 위협을 막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이용하였다.

▶ 일본과의 관계 : 우리나라의 완충지대 역할로 인해 현대에 들어서기 이전까지 군사적인 충돌이 거의 없었다. 중국으로 받은 공격 또한 고려와 원이 함께 공격한 것이 유일. 그 외에는 임진왜란 시 일본과 명의 충돌, 일본 해적의 중국 남부 침범 등이 있다.

▶ 동남아와의 관계 : 중국에 거의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중국의 남부에 있었지만, 점차 현재의 경계선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밀려 내려갔다.

■ 동아시아의 이러한 상태는 19세기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국력이 급격히 신장한 일본에 의해 중엽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서구의 문화를 재빨리 도입한 일본이 모든 면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나라를 크게 앞질렀으며 자체의 역사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국력을 이용해 대만과 우리나라, 만주 등을 강점하면서 자만에 빠졌고, 전체 중국 점령과 동남아, 미국마저 침략하다 실패해, 원래의 섬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동아시아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커졌다.

■ 근대에 와서는 196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이른바 네 마리 용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으며, 1978년 이후 중국도 합세해 현재 동아시아 문화권은 비서구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구와 미국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4대 문명지 :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중국 침략 유목 민족 - 흉노, 선비, 말갈, 강, 저,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등.

몽골족 - 원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모두 점령, 만주족 - 청 중국 전체를 260년 간 통치.

한국과의 관계 - 삼국시대의 고구려에 의한 위협이 있었지만, 발해의 멸망 후 영향력 확대.

한국 - 유목민의 위협을 막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이용.

일본과의 관계 - 우리나라의 완충지대 역할로 인해 현대 이전까지 군사적인 충돌이 거의 없었음.

동남아와의 관계 - 중국에 거의 위협을 가하지 못함.

19세기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서구의 문화 도입으로 일본이 동아시아 나라를 크게 앞질렀음.

네 마리 용 - 196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 1978년 중국도 합세.

제 2절 중국역사의 시기구분

■ 역사를 시기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전체 사회 변화

▶ 중국이 채택한 기준 방법으로 특히 사회의 계급 관계를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다.

▶ 중국의 역사를 크게 원시사회(기원전 170만년~21세기), 노예사회(기원전 21세기~ 771년), 봉건사회(기원전 770~서기 1840년), 半殖民地半封建社會(반식민지반봉건사회: 서기 1840~1949년), 사회주의 사회(1949년 이후)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거나, 고대사(170만 년 전~1840년), 근대사(1840~1912년), 현대사(1912~1949년), 당대사(1949년 이후)로 구분한다.

■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의 변화

▶ 주로 서구와 일본에서 채택한 기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대사(선사시대 ~한의 멸망), 중세사(위진 남북조~수당과 오대십국 시대), 근세사(송대~청말의 아편전쟁), 근현대사(아편전쟁 이후)로 구분함. 서양의 시기 구분과 명칭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 왕조의 변경

▶ 대만과 일부 학자들이 채택한 기준으로, 각 왕조 하나씩을 모두 하나의 시기로 삼는 방법과 2~3개의 왕조를 묶어 하나의 시기로 삼는 방법의 2가지로 나눈다.

▶ 왕조를 묶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하운주, 춘추전국시대,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오대십국, 송요금원, 명청, 중화민국의 순서를 취한다.

■ 중국의 시기 구분법은 중국인이 창안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창안한 것.

▶ 마르크스의 구분 : 원시공산사회 - 노예사회 - 봉건사회 - 자본주의 사회 - 사회주의 사회 - 공산주의 사회). 중국이 이것을 약간 수정해 사용하다 보니, 역사의 대부분이 봉건주의 사회라는 문제점이 생겼다.

▶ 따라서 이 시기를 다시 춘추전국(기원전 770~221년), 진 - 동한(기원전 221~서기 220

년), 삼국 - 당대(220~907년), 오대 - 원대(907~1368년), 명청 시기(1368~1840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시기 구분법은 정치권력의 변화가 중심이 되었다.

[핵심 포인트] 서구와 일본 - 고대사(선사시대~한의 멸망), 중세사(위진 남북조~수당과 오대십국 시대), 근세사(송대~청말의 아편전쟁), 근현대사(아편전쟁 이후)로 구분
 대만과 일부 학자 - 하은주, 춘추전국시대,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오대십국, 송요금원, 명청, 중화민국.
 마르크스 - 원시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역사의 모든 시기 구분법 - 정치권력의 변화가 중심.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농민반란이나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農民起義[농민기의]’라고 함.)

제 3절 중국역사의 전개

■ 중국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경에 황하유역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났다. 중국의 역사에는 많은 왕조들이 등장했으며, 각 왕조 시대의 기간도 매우 짧다.

1. 고대사 (1840년 이전)

■ 원시사회 (170만 년 전 ~ B.C. 21세기) : 선사 시대 →역사기록 이전 시기

▶ 중국의 고대사는 40만 년 전에 살았다는 북경원인의 해골로부터 시작 : 중국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큰 의미.

▶ 주로 사슴을 불에 구워먹었으며, 간단한 석기를 사용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

▶ 국가는 부족국가 수준이었으며, 요순시대가 이 시기에 포함.

■ 하(夏), 상(商), 주(周) (B.C. 21세기~771년) : 노예사회 시기

▶ B.C. 약 21세기에 수립된 하왕조는 500년 간 지속된 중국역사상 최초의 노예제 국가.

▶ 상왕조는 B. C. 16세기에 하를 멸망시키고 수립해 600년 간 유지.

▶ 노예주였던 귀족계급이 노예와 평민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와 관료체제, 형벌제도를 만들었다.

▶ 주왕조는 B. C 1세기에 상을 멸망시키고 수립해 250년 간 유지되었다.

▶ 노예주계급의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봉건제도를 시행했다.

▶ 이 시기에 중국은 범위가 매우 큰 노예제 국가가 되었으며, 노예사회도 정점에 도달했다.

■ 춘추(春秋) · 전국(戰國) (B. C. 770~221년):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과도기

▶ B. C. 770년 서주가 멸망하고, 주왕조는 낙양으로 천도해 동주 시기가 시작되었다.

▶ 동주는 춘추(B.C. 770~476년)와 전국(B.C. 475~221년)의 두 시기로 나눈다.

▶ 춘추 시기에는 140여 개의 국가가 있었으며, 그 중 제, 진, 초, 오, 월의 춘추오패(春秋五霸)가 유명.

▶ 전국 시기에는 이 나라들이 진, 초, 연, 제, 한, 위, 조의 7개 나라(七國爭雄).

▶ 춘추전국시대는 제자백가로 불리는 수많은 사상가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시기이며 중국 역사상 창의력이 가장 왕성했다.

▶ 춘추시기에는 경제 발전에 따라 노예제가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노예와 평민들의 투쟁이 일어나 노예주계급 대신에 지주계급이 생기면서 새로운 역사단계인 봉건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 진(秦)부터 동한(東漢)까지 (B.C. 221~220년) : 통일 봉건국가의 수립과 공고 시기

▶ 진왕조의 수립부터 동한 말까지 중국의 봉건사회가 공고화되었다.

▶ 전국 후기에 가장 강했던 진나라의 진시황이 다른 6국을 멸망시키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중앙집권화 된 통일 봉건국가인 진을 수립하였다.

▶ 15년 만에 진승과 오광의 대규모 起義(기의)에 의해 멸망.

▶ 그 후 B.C. 206년 유방(劉邦)이라는 지방 관리가 장안에 서한 왕조를 수립해 200년 간

통일된 중앙 집권의 봉건 국가를 공고화시켰다.

▶서한 후기에는 왕망이 찬탈한 신을 무너뜨리고 광무제가 되어 25년 낙양에 한조를 회복시키고 동한으로 220년까지 존속.

▶동한 후기에는 호족들의 무장 세력이 황건군을 진압하고 군벌간의 대혼전이 일어났으며, 위·촉·오의 3국 정립시대가 시작되었다.

■ 삼국부터 당대(唐代)까지 (220~907년) : 중국 봉건사회의 발전과 강성 시기

위·촉·오의 3국 정립은 220년부터 280년까지 60년 간 지속되었으며, 사마씨가 통일하여 진을 수립하고 낙양에 도읍을 정했다.

▶316년 서진(西晉)이 멸망하면서 한족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원을 빼앗긴 채 남쪽으로 쫓겨갔다.

▶317년에 사마예가 지금의 남경에 도읍하고 동진 왕조를 수립했다.

▶당시 중국 북부는 이미 16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동진은 420년에 송(宋)으로 바뀌어 58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 후 중국 남방은 송(宋), 제(齊), 양(梁), 진(陳)의 4개 왕조를 거치고, 북방의 16개 국가는 후에 위에 의해 통일되었다가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의 5개 정권이 출현해 남과 북이 대치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를 남북조 시기라고 부른다.

▶581년에 북주의 양견이 주를 멸망시키고 수를 세웠으며, 수문제가 중국 남북통일을 실현하여 300년 만에 분단을 종결시켰으나 37년 후에 멸망했다.

▶당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한족 왕조로서 외국문화에 매우 포용적이었으며, 618년부터 907년까지 290년 간 지속되었다.

■ 오대(五代)부터 원대(元代)까지 (907~1368년) : 봉건사회의 계속 발전 시기

▶오대십국(五代十國)의 분단 상태는 907년부터 시작해 거의 60년 간 지속되었다.

▶그 후 송(宋)이 960년 다시 통일을 이룩하였고, 요(遼), 금(金), 서하(西夏)를 거쳐 원까지는 약 460년이 걸렸다.

▶송대에는 유목민족이 강대해 요(거란족), 금(여진족), 서하를 수립하고 송을 끊임없이 침략하였으며, 1127년 여진족의 금이 송을 멸망시켰고, 그 해에 송은 남천하여 항주를 수도로 정했으며 이를 남송이라고 부른다.

▶1279년 북방에서 금에 이어 일어난 원은 군사력이 강대해 남송을 소멸시키고 중국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통치한 왕조가 되었으며, 영토를 계속 확대해 아시아와 유럽간의 교통로를 확보했지만, 100년이 못 되어 명으로 대체됨. 송은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군사적 약체이지만, 남송은 해외무역을 통해 중국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였다.

■ 명청 시기 (1368~1840년) : 봉건사회의 쇠락 시기

▶1368년에 주원장이 명을 세워서 한족이 다시 중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76년이 지나 이자성이 영도한 농민기위가 폭발한 틈을 타 만주족이 청을 세우고, 원에 이어 두 번째의 북방민족에 의한 통일 왕조가 되었다.

▶청조의 영토면적은 현재보다 넓었으며, 명말에는 생산 규모가 큰 공장이 생기고 기술 분업도 세밀하게 되었으며 고용 노동이 실행되어 자본주의의 맹아기였다.

▶영락제는 조카를 폐위시키고 황제가 되었으며,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고, 해외와의 교역과 왕래를 금지해 폐쇄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200여 만 명이었던 만주족은 260여 년 간 한족을 훌륭하게 통치했지만, 1912년 한족 신하의 압력에 스스로 해체하였다.

[핵심 포인트]

- 원시사회 (170만 년 전~B.C. 21세기) - 선사 시대, 북경원인. 부족국가 수준, 요순시대.
- 하(夏), 상(商), 주(周) (B.C. 21세기~771년) - 노예사회 시기.
- 하왕조 - 중국최초의 노예제 국가. 은왕조 - 600년 간 유지
- 주왕조 - 전국적으로 봉건제도 시행.
- 춘추(春秋) · 전국(戰國) (B.C. 770~221년) -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과도기
- 춘추 시기 - 제, 진, 초, 오, 월의 춘추오패(春秋五霸)가 유명.
- 전국 시기 - 진, 초, 연, 제, 한, 위, 조의 7개 나라(七國爭雄).
- 춘추전국시대 - 제자백가, 고사성어 만들어낸 시기, 중국 역사상 창의력 가장 왕성.
- 진(秦)부터 동한(東漢)까지 (B.C. 221~220년) - 통일 봉건국가의 수립과 공고 시기
- 진 - 중국역사상 최초 통일 봉건국가 수립. 15년 만에 진승과 오광의 기의에 의해 멸망.
- 서한 후기 - 광무제가 25년 낙양에 한조를 회복시키고 동한으로 220년까지 존속.
- 동한 후기 - 위 · 촉 · 오의 3국 정립시대 시작.
- 수 - 수문제가 중국 남북통일, 300년 만에 분단을 종결, 37년 후에 멸망.
- 당 -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한족 왕조, 외국문화에 포용적, 618년부터 907년까지 290년 간.
- 오대(五代)부터 원대(元代)까지 (907~1368년) - 봉건사회의 계속 발전 시기
- 송(宋) - 960년 통일 이룩, 요(遼), 금(金), 서하(西夏)를 거쳐 약 460년. 1127년 여진족의 금이 송 멸망시킴. 쫓겨간 이후 - 남송.
- 송 - 중국 역사상 대표적 군사적 약체, 남송 - 해외무역으로 중국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
- 원 - 중국 최초로 전국 통일
- 명청 시기 (1368~1840년) - 봉건사회의 쇠락 시기
- 청 - 두 번째의 북방민족에 의한 통일 왕조. 자본주의의 맹아기였음.

2. 근대사 (1840~1919년)

■ 아편전쟁(청영전쟁, 중영전쟁)

- ▶아편전쟁은 청과 영국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영국이 아편을 밀수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 ▶청은 이 전쟁에서 패해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을 맺었다.
- ▶그 후 영국은 마약을 합법적으로 수출하였으며, 홍콩을 할양 받았고, 미국과 프랑스 등도 영국을 따라 청과 불평등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 ▶이 전쟁은 중국의 사회형태를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시킨 중국 역사상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 ▶또한 이 전쟁 이후로 중국의 주권이 침해받기 시작했다.

■ 태평천국운동 (太平天國運動, 1851~1864년 : 홍수전)

-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무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농민 폭동이 부단히 발생했다.
- ▶이 중의 하나가 태평천국을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태평천국운동이다.
- ▶이것은 중국역사에서도 최대 규모이고 또 최장기간 지속된 농민 폭동으로 전국의 17개성에 파급되어 600여 개의 도시를 점령하고 14년 간 지속되었다.
- ▶이 운동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빈부격차에 반대했으며, 유가사상을 비판했는데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책방향과 비슷하다.
- ▶이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타 영국과 프랑스가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을 일으키고 북경조약을 체결해 더욱 많은 이익과 특권을 빼앗았으며, 러시아도 이와 비슷한 이익을 얻고 흑룡강 연안지구의 영토를 빼앗았다.

▶ 청의 정부는 이런 타협을 한 후 이들의 힘을 빌려 자국 국민의 폭동을 진압하였다.

■ 중일갑오전쟁 (中日甲午戰爭, 1894)

- ▶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으로,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패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었다.
- ▶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커진 국력으로 청을 누르면서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가져갔으며, 청의 정부는 일본과 굴욕적인 마관조약을 체결하면서 요동반도, 대만, 뎡호열도를 일본에 넘겨주게 되었다.
- ▶ 이로부터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고, 중국은 서양 국가들의 본격적인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 백일유신 (百日維新, 1898년)

- ▶ 일본에게 당한 청정부가 ‘자산계급 개량파’ 또는 ‘유신파’라고 불리는 일부 지식인들의 권의를 받아들여 개혁을 단행했다.
- ▶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방하여 중국을 강성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 ▶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유가경전의 암기 위주인 팔고문(八股文) 과거제도를 폐지했으며,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또한 황제독재제도를 황제입헌제도로 바꾸려 했다. 단순 개혁이 아닌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전체를 몽땅 바꾸려고 혁명을 시도했지만 외국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했다.
- ▶ 백일유신 : 시도한 지 불과 103일 만에 실패해서 붙여진 이름
- ▶ 실패원인 : 황제가 아니면서도 당시 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파 서태후(西太后)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반발 때문이다.
- ▶ 무술년에 일어난 유신으로 ‘무술변법(戊戌變法)’이라고도 부른다.

■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 1900년) - 의화단의 난, 또는 장발적의 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의화단운동은 1900년 중국 농민들이 반외세운동을 전개한 것.

- ▶ 의화단 : 의화권(義和拳)을 단련하는 사람들의 단체라는 뜻.
- ▶ 의화권 : 중국식의 천천히 하는 맨손체조의 한 유파.
- ▶ 의화단은 외국 군대의 총격에 겁내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서양 선교사를 징벌하여 외국 열강의 모욕과 중국의 약탈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동시에 서양을 중국에서 몰아내겠다는 강렬한 결심을 표현하여 의화단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 ▶ 중무장한 군대에 맨손으로 맞섰는데,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제국주의 열강은 8군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학살하고 해체시켰다.
- ▶ 1901년 9월 청정부는 외국 침략자에게 항복하고 이들과 신축조약(辛丑條約)을 체결했다.
- ▶ 결과 : 각국은 북경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 - 신해년에 발생한 혁명에서 붙여진 이름.

- ▶ 신해혁명 : 1911년 10월 10일(雙十節)에 호북성 무창에서 일어났다.
- ▶ 군사적 폭동이었으며, 오래지 않아 호북성의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 ▶ 당시 상황 : 청정부와 지방 각성은 서로 대립관계였다.
- ▶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와 결탁한 청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간주하여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투쟁이라고 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 발생한 계급인 부르주아(자산계급)가 주동한 것이라 평가한다. 신해혁명을 자산계급의 대표인 손중산(孫中山)이 일으켰다고 본다. 손문은 동맹회의 강령을 ‘민족, 민권, 민생’ 즉 삼민주의로 개괄하고, 자산계급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12년 중화민국(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 임시정부가 南京(남경)에 수립되었으며 손중산은 대총통으로 취임했다.
- ▶ 신해혁명의 결과 : 청이 멸망하고 군주전제체제가 종결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민주정

치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자본주의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자산계급과 자산계급 정당도 기반이 약하여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됨. 1912년 2월 군주입헌파와 북양군벌 원세개의 협공으로 손중산은 임시대총통직을 ‘봉건 매판’ 원세개에게 양도했다. 원세개와 북양군벌은 중화민국 초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반면 손문의 국민당과 여타 남방의 세력은 청조와 관련이 없었고 이들 청조의 잔존 세력들과 대립하였다. 말하자면 반정부세력이었다.

[핵심 포인트] 아편전쟁 - 영국이 아편을 밀수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남경조약 - 불평등조약. 영국은 마약을 합법적 수출, 홍콩을 할양받음, 미국과 프랑스 등도 영국을 따라 청과 불평등조약을 강제로 체결. 중국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시킨 중대한 의미.

태평천국운동 (太平天國運動, 1851~1864년) - 태평천국을 세우겠다는 명분. 최대 규모, 최장기간 지속된 농민 폭동 14년 간 지속. 남녀평등 주장하고, 빈부격차 반대, 유가사상 비판.

제2차 아편전쟁(1856~1860) - 북경조약 체결

중일갑오전쟁 (中日甲午戰爭, 1894) - 청일전쟁,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패권문제로 전쟁함.

일본과 굴욕적인 마관조약 - 요동반도, 대만, 펑호열도 일본에 넘겨줌.

백일유신 (百日維新, 1898년) - 일본에게 당한 청정부가 개혁 단행.

실패원인 - 청의 실권 장악한 서태후(西太后)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반발.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 1900년) - 1900년 중국 농민 반외세운동을 전개한 것.

신축조약(辛丑條約) - 각국은 북경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됨.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 - 군사적 폭동급

3. 현대사 (1919~1949년)

■ 5.4운동과 중국공산당의 창당

1919년 5월 4일에 발생한 5.4운동은 북경대학의 학생 등 3,000여 명이 천안문에 모여 시위를 했다.

▶ 시위 이유 : 일본의 중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저지하고 산동성의 보존을 위해서이다.

▶ 결과 : 군벌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려 했으나 반대운동이 상해 등 전국 도시로 파급되었으며, 노동자와 상인들도 가세하여 정부를 굴복시켰다. 중국 정부 대표들의 관직을 파면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석방하였으며, 파리평화조약에 서명을 거부했다. 학생들의 애국운동이 승리했다. 5.4운동은 ‘반제반봉건운동’으로 간주되었다. 중국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정치세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5.4운동은 중국공산당이 창당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의 공산당이 중국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1년 7월 제1차 전국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공산당을 창당했다.

▶ 중국에서는 ‘5.4운동’을 중국근대사와 현대사, 그리고 ‘구민주주의와 혁명’과 ‘신민주주의 혁명’을 나누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 북벌전쟁(北伐戰爭, 1926년≒만주정벌)

▶북경에 있었던 북양군벌정권을 군사적으로 토벌함을 의미하는 북벌전쟁은 ‘대혁명’, ‘국민혁명’,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라고도 불렸다.

▶손문의 국민당은 군벌정권에 대한 반정부세력으로 그것의 전복을 열망하고 있었다. 군벌정권은 친일적이었고, 일본과 함께 소련을 적대시했다.

▶국민당과 소련은 군벌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다. 군벌정권은 당시 국민 모두의 적이였다.

▶1924년 손문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광주(廣州)에서 국민당을 개조(改組)하여 중국공양당이 제1차 합작(제1차 국공합작)을 실현하고 공동으로 황포군관학교(사관학교), 즉 장교양성 학교를 창설한 뒤 국민혁명군을 조직하여 반동군벌세력을 정벌하였다.

▶1926년 정식으로 북양군벌을 토벌하기 시작했다.

▶1925년 손문이 서거 후 국민당은 분열하여, 장개석을 대표로 하는 우파가 실권을 장악했다.

▶1927년 4월 장개석은 상해에서 공산당 사람들을 대규모로 학살하고 국공합작을 깨뜨렸으니, 군벌정권이 전복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련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자 공산당을 배신했다. 장개석은 소련과도 끊고 서양 각국과 손을 잡았다.

■ 제2차 국내혁명전쟁(國內革命戰爭, 1927 ~ 1937년→국민당과 공산당간의 전쟁)

▶장개석의 배신 후 중국공산당은 90%의 역량을 손상하고, 국민당이 중화민국의 정권을 장악하여, 중국공산당만 반정부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1927년 8월 1일 주은래, 주덕, 하룽 등은 남창(南昌)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이후부터 중국공산당도 군대를 가지고 국민당과 군사적 대결로 치달게 되었다.

▶동년 9월 모택동은 호남에서 ‘추수기의’를 주동하고 ‘공농홍군’을 조직하였으며, 강서성 정강산에 ‘농촌혁명근거지’를 만들어서 중국공산당은 다시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

▶장개석은 중공당 강서 중앙혁명 근거지에 연속 다섯 차례의 대규모 군사공격을 실시했으나, 네 번째까지 실패, 다섯 번째도 겨우 성공하였으나 전멸은 못했다.

▶1934년 10월부터 중국공산당은 탈주하기 시작했다.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의 침략을 확대해 가는 시기로 중국공산당은 중앙혁명 근거지를 철수하여 내륙지방을 거쳐 북방으로 국민당에 쫓기면서 탈주하였으니, ‘이만오천리 대장정’이라 한다.

▶장정 도중 1935년 1월 모택동은 중국공산당 실권 장악에 성공하고 41년 동안 최고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공산당은 연안에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으니, 일본 침략으로 전멸위기에 빠진 중국공산당에게는 천우신조였으며, 국민당에게는 재앙이었다.

▶일본 침공에 대한 ‘항일(抗日)’은 전 국민의 행동강령이었으며, 중국공산당도 항일 대열에 동참했다.

■ 항일전쟁(抗日戰爭→8년 항전)

▶일본의 침략 상황에 장개석은 항일을 보류하고 공산당 토벌을 급선무로 삼았는데, 이것은 국민 공동 열망을 외면하게 하는 처사였다.

▶서안(西安)에 공산당 토벌하러 갔다가 납치를 당해 항일에 전념할 것을 강요받았다.

▶장개석은 어쩔 수 없이 항일을 위한 제2차 국공합작에 동의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2차 국공합작후 ‘8로군(八路軍)’이란 이름으로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은 북경 근처에서 ‘노구교사변(蘆溝橋事變)’을 조작하여 중국에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개적 중국공산당 토벌 시도가 불가능해지자, 국민장정부는 일본군을 피해 남경(南京)에서 중경(重慶)으로 천도하고, 소극항일로 일관했다.

▶중국공산당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항일에 전념해야했고, 이에 국민들의 신망이 두터워졌다.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통치구역은 확대되어 갔으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민당정부는 신망을 상실해갔다. 일본이 전선을 하와이와 동남아도 확대하고 미소가 참전하면서 1945년 8월 중국의 항일전쟁은 8년 만에 승리를 얻었다.

■ 해방전쟁(解放戰爭, 1946~1949년)

▶종전 이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연합정권수립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1946년 6월 장개석은 그의 군대에게 중국공산당의 통치지역에 전면적 공격을 명령하여 내전이 발발했다.

▶‘제3차 국내혁명전쟁’ 또는 ‘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해방전쟁이란 말은 국민을 국민당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이 들어있다. ‘팔로군(八路軍)’이라 불렀던 중국공산당의 군대도 이 시기부터 ‘인민해방군’이라 명칭을 바꿨다.

▶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 간 진행됨. 소련의 중국공산당에 무기를 제공했으며, 미국은 국민당에 무기를 제공하였지만, 두 나라 모두 군대를 동원해 참전하지는 않았다.

▶ 당시 병력이나 무기면에서 우위를 차지한 국민당의 승리가 시간문제였으나, 명분과 시기에 있어 국민당이 밀려 있었다.

▶ 독재정치, 경제파탄,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민당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은 지도자들의 검소한 생활, 소박한 태도, 끝까지 국민당에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는 인내심에서 국민당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끝난 해방전쟁에서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주하여 중화민국의 명맥을 이어왔다.

[핵심 포인트]

5.4운동과 중국공산당의 창당 - 1919년 5월 4일에 발생한 5.4운동은 북경대학의 학생 등 3,000여 명 천안문에서 시위. 일본의 중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 저지, 산동성 보존을 위해서임. 정부를 굴복시킴. 학생들의 애국운동이 승리.

5.4운동 - 중국근대사와 현대사, 구민주주의와 혁명과 신민주주의를 나누는 전환점으로 삼음.

북벌전쟁(北伐戰爭, 1926년) - 손문이 서거 후 국민당 분열, 장개석의 우파가 실권 장악. 군벌정권이 전복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련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자 공산당을 배신함.

제2차 국내혁명전쟁(國內革命戰爭, 1927~1937년) - 1927년 8월 1일 주은래, 주덕, 하룡 등은 남창(南昌)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킴. 중국공산당도 국민당과 군사적 대결로 치달음. 1935년 1월 모택동 중국공산당 실권 장악에 성공, 41년 동안 최고 지위를 유지.

항일전쟁(抗日戰爭) - 1945년 8월 중국의 항일전쟁은 8년 만에 승리를 얻음.

해방전쟁(解放戰爭, 1946~1949년) - 1946년 6월 장개석이 전면적 공격 명령으로 내전 발발.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끝난 해방전쟁 -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주 中華民國(중화민국)을 세움.

4. 당대사(1949년 10월~)

■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수립을 선포했다. 그 때 집권한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건국부터 1~3단계가 진행된 1976년까지는 모택동, 1978년까지는 화국붕, 1992년까지는 덩소평, 2002년 현재까지 강택민이 각각 최고지도자를 역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40여 년 역사 4단계>

■ 제1단계 (1949~1956년)

▶ 중화민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경제체제를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

▶ 정치적 : 인민민주독재제도를 수립

▶ 경제적 : 농민으로 하여금 토지를 얻게 한 다음 ‘합작화(合作化)’를 시도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닦았다.

▶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했으며, 자본주의 진영과는 대립관계에 들어갔다.

■ 제2단계 (1957~1966년)

▶ 1950년대 말에 모택동의 주도로 ‘대약진’과 ‘인민공사’운동이 전개되었다.

▶ 대약진 :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목표 ▶ 인민공사 : 집단적인 공동생활이 목표

▶ 결과 :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책임지고 권력에서 물러났다.

▶ 소련은 중국에 과도한 중주국 행세를 하려다 중국의 반발로 1960년대 이후 결별했다.

■ 제3단계 (1966~1976년)

▶ 문화대혁명단계 : 모택동은 중국 사회에 잔존해 있는 봉건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를 사회주의 문화로 전환시킨다는 명분으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文革)’을 일으켰다.

▶ 실지 목적 : 학생들을 동원하여 그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유소기, 덩소평 등의 정적

(政敵)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 결과 : 목적은 달성되었고, 학생들의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군대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켰다.

▶ 모택동은 군대 동원에 기여한 임표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후에 그를 숙청하였고, 이후에 부인 강칭 등 ‘사인방(四人幫)이 권력을 휘둘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이래 ‘좌절과 손실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라고 보고 있음. 문화대혁명을 ‘10년 재난’으로 비판되고 있다.

■ 제4단계 (1976~)

▶ 1976년부터, 특히 1978년 말 이래는 ‘개혁개방의 신시기(新時期)’로 간주되었다.

▶ 1976년 10월 ‘사인방’은 타도되었으며,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은 제11기 3중전회에서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

▶ 농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기되었으며, 자본주의 방식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채택되었다.

▶ 목표로 삼은 경제발전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992년 우리와도 수교를 하였으며, 2201년에는 WTO(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했고, 2008년에는 올림픽도 개최할 예정이다.

▶ 1989년 6월 4일에 발생한 ‘6.4사태’에서 학생들이 정부에 좀더 확실한 민주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중국공산당은 이를 ‘반혁명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학살하였다. 그 후 중국 공산당정부에 적대적 세력은 아직 없었다.

[핵심 포인트]

중화인민공화국 - 1949년 10월 1일 수립.

건국~1976년까지 모택동, 1978년까지 화국붕, 1992년까지 덩소평, 2003년 봄까지 강택민, 2003년 봄부터 후진타오(胡錦濤)가 각각 최고의 위치.

1978년 말 이래는 ‘개혁개방의 신시기(新時期)’ - 자본주의 방식이 단계적 채택.

목표로 삼은 경제발전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992년 - 우리와도 수교, 2201년 -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 2008년 - 올림픽도 개최할 예정.

제3장 중국의 풍속. 습관

제 1절 역법과 24절기

■ 역법(曆法) : 천체운동의 법칙에 근거하여 연, 월, 일의 시기를 계산하는 방법.

세계적 역법 : 양력 또는 태양력, 음력 또는 태음력과 음양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농촌에서는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계로 음양력을 사용함. 일명 ‘농력(農曆)’이라고 한다.

▶ 음양력 : 태양과 달의 운동을 동시에 고려한 것임. 태양의 주기는 365.24일이고 달의 주기는 29.5306일이어서 서로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윤달을 넣어 양자간의 조화를 도모했다.

■ ‘간지(干支)’로써 해를 표시한다.

▶ 간지 : 천간(天干) + 지지(地支) ▶ 천간 :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 지지 :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 육십간지(六十干支) , 육십화갑자(六十花甲子) = 갑자, 을축 등의 순서로 나열하여 모두 합치면 60개의 간지가 된다.

▶ 간지로써 월, 일, 시를 표시하기도 한다. ▶ 11월을 기준으로 자월(子月)이 된다.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 ▶ 시는 밤 11시부터 새벽1시까지를 기준으로 ‘자시(子時)’라 한다.
- 24절기는 한 달에 두 번, 즉 대략 15일마다 한 번씩 있다.(양력 기준)
- ▶ 正月 - 입춘(立春), 우수(雨水) ▶ 二月 - 경칩(驚蟄), 춘분(春分)
- ▶ 三月 - 청명(淸明), 곡우(穀雨) ▶ 四月 - 입하(立夏), 소만(小滿)
- ▶ 五月 - 망종(芒種), 하지(夏至) ▶ 六月 - 소서(小暑), 대서(代署)
- ▶ 七月 - 입추(立秋), 처서(處暑) ▶ 八月 - 백로(白露), 추분(秋分)
- ▶ 九月 - 한로(寒露), 상강(霜降) ▶ 十月 - 입동(立冬), 소설(小雪)
- ▶ 十一月 - 대설(大雪), 동지(冬至) ▶ 十二月 - 소한(小寒), 대한(大寒)
- 立春,立夏,立秋,立冬 - ‘입(立)’은 곧 시작된다는 뜻이다.
- 夏至,冬至 - ‘지(至)’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이미 왔다는 표시이다.
- 春分,秋分 - ‘분(分)’은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다. 낮밤의 길이가 같고, 하지와 동지의 중간에 있다.
- 雨水 - 비가 오기 시작하며 강우량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驚蟄 - 날씨가 풀려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난다.
- 淸明 - 날씨가 좋아지고 만물이 자라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 穀雨 - 강수량의 증가와 곡물의 성장을 나타낸다.
- 小滿 - 보리 등 여름 작물의 성숙을 나타낸다. ■ 芒種 - 늦은 작물의 파종 시기를 나타낸다.
- 小暑,大暑 -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삼복(三伏)’도 이 시기이다.
- 處暑 - 여기서의 ‘처(處)’는 ‘끝나다’를 뜻하며, 더위가 끝나고 기온의 하강을 표시한다.
- 白露 - 기온이 떨어지고 이슬이 출현한다. ■ 寒露 - 날씨가 추워지고 이슬도 차가워진다.
- 霜降 -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 小雪,大雪 -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쌓인다.
- 小寒,大寒 - 일년 중 가장 추운 기간이다.
- 24절기는 1년에 기후가 대체로 15일 단위로 변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기후와 농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잡절(雜節) : 24절기 이외에 있는 것이다.
- ▶ ‘三伏’은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의 총칭이다.
- ▶ ‘伏’은 ‘장복(藏伏 : 숨다)’의 뜻으로 음기가 양기의 펄박을 받아 지하에 숨는다는 뜻이다.
- ▶ 삼복은 하지 이후의 초복으로 시작하여 입추 직후의 말복으로 끝나며,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 ▶ 입매(入梅) :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중순까지의 20 ~30 일간으로, 망종 이후가 입매.
- ▶ 출매(出梅) :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중순까지의 20 ~ 30일간으로, 소서 이후가 출매.
- 이 기간은 장마철이다. 매실이 누렇게 익어 가는 계절이라 ‘황매천(黃梅天)’이라고도 함.
- 날씨가 습하고 곰팡이 피기 쉬운데 ‘매(梅)’와 발음이 같아서 ‘황매천(黃莓天)’이라고도 한다.
- 이 때 내리는 비를 ‘梅雨’ 또는 ‘霉雨(매우)’라고 한다.

[핵심 포인트]

음양력 - 태양의 주기 365.24일, 달의 주기 29.5306일, 윤달을 넣어 양자간의 조화 도모.
 간지(干支)로써 해를 표시. 간지 : 천간(天干) + 지지(地支)
 천간 :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지지 :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24절기 - 1년에 기후가 15일 단위로 변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짐. 기후와 농사는 밀접한 관계.

제 2절 전통명절

■ 중국의 전통명절은 음력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1. 춘절(春節)

▶ 날짜 : 음력 정월 초하루로 중국 최대의 전통명절.

▶ 춘절의 어원 : 예전엔 ‘원단(元旦)’ 또는 ‘원일(元日)’이라고 불렀다. 춘절이라는 말은 1912년 중화민국이 건국하여 양력을 채택한 이후 양력 1월1일을 원단이라고 부름에 따라 ‘춘절’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유는 입춘의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 춘절을 보내는 것을 ‘꾸오니엔(過年, guònián, 과년)’이라고도 말한다. = 해를 보낸다는 뜻이다.

▶ ‘年’ : 머리에 긴 뿔이 난 사나운 동물이 봄이 오기 직전 출몰하여 사람을 해쳤는데, 후에 그 동물이 붉은색, 불빛,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붉은색의 춘련을 붙이고 불에 대나무 통을 태워 큰 소리가 나게 해서 쫓아 낸 뒤에 ‘年’이 지나가서 잘되었다는 의미로 ‘꾸오니엔하오(過年好, Guònián hǎo, 과년호)라고 말한다.

▶ ‘年’의 갑골문의 해석 : 사람이 곡물을 수확한다는 뜻인데, 해마다 한 번 수확하기 때문에 ‘한 해’를 뜻하게 되었다.

▶ 이 날부터 초사흘까지 3일간 모든 관공서와 기관이 휴무.

▶ 일반인들은 대보름까지 2주정도 명절 분위기 유지.

■ 납팔죽(臘八粥)

▶ 날짜 : 음력 12월 초파일에 먹는다.

▶ 재료 : 쌀, 좁쌀, 찹쌀, 수수, 팥, 대추, 호두, 땅콩 등 여덟 가지를 끓인 것.

▶ 의미 : 농사가 잘 된 것을 경축하는 뜻.

■ 조왕야(寵王爺)

▶ ‘조왕신(寵王神)’이라고도 하는데, 부뚜막신을 말한다.

▶ 의미 : 연말에 하늘에 올라가 식구들의 소행을 보고하는 것으로 믿어져 부엌에 엿을 바치는데, 이를 먹고 좋은 말만 보게 해 달라는 뜻.

■ 춘련(春聯)과 연화(年畫)

▶ 춘련 : ‘대련(對聯)’, ‘춘첩(春帖)’이라고도 한다.

▶ 좋은 뜻의 글귀를 붉은 종이 위에 금색 또는 검은색으로 써서 문의 양편 기둥에 붙인다.

▶ 연화 : 문신화에서 변형된 목판화로 아기가 잉어와 노는 모습, 황소, 용주(龍舟)의 시합 등을 그린 것이다. 대문이나 거실 벽에 붙인다.

▶ 붉은색의 의미 : 중국인들은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 상서로운 색깔로 간주한다.

▶ ‘복(福)’, ‘춘(春)’ 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기도 한다. 이것은 ‘거꾸로’의 의미를 가진 ‘따오(倒 dào, 도)’와 ‘오다’의 의미를 가진 ‘따오(到 dào, 도)’가 발음이 완전히 같아서 거꾸로 붙이면 그것이 왔다는 뜻이 된다고 해석한다.

■ 제석(除夕)

▶ 날짜 : 음력 선달 그믐날 밤.

▶ ‘제(除)’ 제거한다는 뜻으로 지난 1년을 정리한다는 뜻.

▶ 조상과 신령(대문신, 부엌신, 마당신, 토지신)들에게 향을 태우고 음식을 차려 새해의 평안을 기원한다.

▶ 연야반(年夜飯) : 선달 그믐날 저녁 온 가족이 풍성한 식사를 한다.

- ▶ 수세(守歲) : 설달 그믐날 밤을 세우는 것.
- 압세전(壓歲錢)과 홍빠오(紅包 hóngbāo, 홍포)
- ▶ 압세전(壓歲錢) : 제석에 연야반을 먹은 후 아이들이 잠자는 베개 옆에 세뱃돈을 놓아주는 일.
- ▶ 의미 : 귀신의 화를 누르는 돈. 압세전의 ‘수이(歲 suì, 세)’는 귀신의 화를 뜻하는 ‘수이(崇 suì, 수→[귀신이]양화[를끼치다])와 발음이 같다.
- ▶ 홍빠오(紅包 hóngbāo, 홍포) : 압세전을 붉은 봉투에 넣어서 주는 관습이 있다. 결혼 등의 기쁜 일을 축하할 때 주는 돈은 모두 홍포를 사용한다.
- 폭죽(爆竹)
- ▶ 설달 그믐날 밤 12시가 되면 집집마다 일제히 폭죽을 터뜨린다.
- ▶ 의미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送舊迎新)의 뜻. ‘年’이라는 괴물이 큰 소리를 가장 싫어하여 이를 쫓는다는 뜻도 담겨있다.
- ▶ 대나무는 태우면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나중에는 폭발음을 내기 때문에 이를 ‘爆竹’이라고 한다.
- ▶ 빠오쭈(爆竹 bàozhù, 폭죽)의 중국어 발음은 ‘빠오쭈(報祝 bàozhù, 보축 : 축하를 알리다)의 해음(諧音)이다.
- ▶ 색상이 좀더 화려한 빼옌파오(鞭炮 biānpào, 편포)라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경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최근에는 화재와 부상의 위험으로 대도시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 자오즈(餃子 jiǎozi, 교자), 니엔까오(年羔 niángāo, 연고), 탕웬(湯圓 tāngyuán, 탕원)
- ▶ 폭죽을 터뜨린 다음 바로 새해 0시에 먹는 음식.
- ▶ 자오즈는 일종의 물만두로 북방사람이 먹음.
- ▶ 의미 :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뜻. ▶ 餃子是 자오즈(交子 jiāozi, 교자)의 해음.
- ▶ ‘갱세교자(更歲交子)’란 나이를 먹으며 한 해를 보낸다는 뜻.
- ▶ 니엔까오는 일종의 쌀 떡으로 ‘해마다 높아진다’라는 뜻의 ‘니엔까오(年高 niángāo, 년고)’와 해음.
- ▶ 탕웬은 쌀가루 또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엿이나 깻가루 등의 소를 넣어 둥글게 만든 것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
- 빠이니엔(排年 bàinián, 배년)과 풍시파차이(恭喜發財, gōngxǐ fācái, 공희발재)
- ▶ 빠이니엔 : 춘절 아침식사를 하고 난 뒤에 친척과 친구 집에 다니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
- ▶ 풍시파차이 ; 서로 만나서, ‘풍시(축하합니다)’, ‘풍시파차이(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되세요)’, ‘과년호’ 등의 경축 인사를 나눈다.

[핵심 포인트]

- 날짜 - 음력 정월 초하루로 중국 최대의 전통명절.
- 춘런 - 좋은 뜻의 글귀를 붉은 종이 위에 금색 또는 검은색으로 써서 문의 양편 기둥에 붙임.
- 조왕야(竈王爺) - 부뚜막신, 연말에 하늘에 올라 좋은 말만 보고해달라는 의미.
- 압세전(壓歲錢) - 제석에 연야반을 먹은 후 아이들이 잠자는 베개 옆에 세뱃돈을 놓아주는 일.
- 홍빠오(紅包 hóngbāo, 홍포) - 축하할 때 주는 돈을 붉은 봉투에 넣어 주는 관습.
- 폭죽(爆竹) - 설달 그믐날 밤 12시가 되면 집집마다 일제히 폭죽.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送舊迎新)의 뜻.
- 새해 0시에 먹는 음식 : 자오즈(餃子 jiǎozi, 교자), 니엔까오(年羔 niángāo, 연고), 탕웬(湯圓 tāngyuán, 탕원).
- 빠이니엔 - 춘절 아침식사를 하고 난 뒤에 친척과 친구집에 다니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

2. 원소절(元宵節)

- ▶ 날짜 : 음력 정월 15일
- ▶ 탕웬과 비슷한 원소(元宵)를 먹고 채색 등을 구경한다.

- ▶ 사자춤과 용등춤을 구경한다.
- ▶ 저녁이 되면 각양각색의 예쁜 등롱이 빛나며 장관을 이루기에 등절(燈節)이라고도 함. 용은 말 머리, 사슴의 뿔, 뱀의 몸, 독수리의 발톱을 지닌 상상 속의 동물로 상서로움을 뜻함. 용등은 대나무, 종이 등으로 만들어 뱃속에 등불을 밝힌 것이다.
- ▶ 원소절은 보름 이상 지속된 춘절 분위기가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것임. 원소절이 지나야 춘절 명절 분위기가 끝이 난다.
- ▶ 등롱을 집집마다 매다는 이유 : 옛날 천궁(天宮)을 지키는 신조(神鳥)가 인간 세상에 왔다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자 옥황상제가 세상에 불을 질러 인간을 멸하려한 것을, 마음씨 착한 옥황상제의 딸이 인간에게 알려주고, 어느 노인의 묘안으로, 집집마다 등롱을 내걸어 인간 세상에 이미 불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인간세상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핵심 포인트] 날짜 - 음력 정월 15일
 하는 일 - 탕원과 비슷한 원소(元宵)를 먹고 채색 등을 구경.

3. 청명절(淸明節)

- ▶ 날짜 : 24절기의 하나로 동지 이후 106일째 되는 날. 양력 4월 5일 전후가 된다.
- ▶ 하는 일 : 조상의 묘에 성묘하는 날이었으나 지금은 혁명열사의 묘와 기념비에 참배하거나 헌화한다.

[핵심 포인트]
 날짜 - 24절기의 하나, 동지 이후 106일째 되는 날. 양력 4월 5일 전후.
 하는 일 - 조상의 묘에 성묘하는 날, 지금은 혁명열사의 묘와 기념비에 참배 헌화.

4. 단오절(端午節)

- ▶ 날짜 : 음력 5월 5일
- ▶ 단오의 ‘우(午 wǔ, 오)와 ‘오(五 wǔ, 오)’는 발음이 같다.
- ▶ ‘단(端)’은 ‘초(初)’라는 뜻이다.
- ▶ 하는 일 : 음력 5월이면 날씨가 더워져 전염병에 감염되기도 하여 ‘악월(惡月)’로 여겨진다. 재앙과 병을 없애고 복을 들이기 위해 대문에 창포를 꽂고 부적을 붙이며 몸에 향낭을 차고 옹황주를 마신다.
- ▶ 옹황주(雄黃酒)
 창포 뿌리를 잘게 썰어 말려 약간의 옹황에 버무려 백주에 담근 술. 소독에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 ▶ 쑹즈(粽子 zòngzi, 종자)
 ▶ 단오날 먹는 음식의 유래 : 전국시대 굴원(屈原)이라는 초(楚)나라의 관료이자 시인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개혁을 건의했다가 진(秦)의 공격으로 나라가 멸망하자 음력 5월 5일 멱라강에 투신자살했다. 이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찹쌀밥에 여러 가지 고기와 은행, 밤 등의 소를 넣은 것을 참대 잎으로 싸서 찐 음식을 강물에 던져 넣었다. 이 음식의 이름이 쑹즈로 삼각뿔 모양임.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못 먹게 하려 쑹즈를 강에 던졌다고 한다.
- ▶ 용주경새(龍舟競賽) : 용머리를 한 배를 북소리에 맞춰 10여 명의 남자들이 노를 같이 저으며 빨리 가는 경주를 하는 것임. ‘용주새(龍舟賽)’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굴원이 자살을 하자 그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투어 그의 시신을 찾으러 배를 몰고 나선 데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핵심 포인트]
 날짜 - 음력 5월 5일
 하는 일 - 음력 5월이면 날씨가 더워져 전염병에 감염되기도 하여 ‘악월(惡月)’로 여겨짐. 재앙과 병을 없애고 복을 들이기 위해 대문에 창포를 꽂고 부적을 붙이며 몸에 향낭을 차고 옹황주를 마심. 쑹즈(粽子 zòngzi, 종자)를 먹음. 용주경새(龍舟競賽)를 함.

■5. 중추절(仲秋節)

▶ 날짜 : 음력 8월 15일

▶ 중추절 이름의 유래 : 8월은 가을인 음력 7, 8, 9월 중 8월이 중간에 있고 또 15일이 8월의 중간에 있고 또 15일이 8월의 중간에 있어 가을의 한가운대를 의미하는 뜻.

▶ 배월(排月) : 가을 추수를 맞아 오곡이 풍성하게 해준 월신(月神)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 특징 : 행사를 여자들이 주재한다.

▶ 상월(賞月) : 배월이 후에 달빛 아래서 달을 감상하며 소원을 비는 상월의 풍습으로 바뀌었다.

■ 위에병(月餅 yuèbǐng, 월병) : 모양이 두툼하고 둥글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밀가루로 만들어 구운 것으로, 속에는 달걀 노른자(蛋黃, 단황), 과일, 고기, 팥 등으로 만들어 소를 넣음.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핵심 포인트]

날짜 - 음력 8월 15일

하는 일 - 배월(排月) : 오곡 풍성하게 해준 월신(月神)에게 감사의 제사. 상월(賞月) : 배월이 소원 비는 상월의 풍습으로 바뀜.

특징 - 여자들이 행사 주재.

대표 음식 - 위에병(月餅 yuèbǐng, 월병) : 모양이 두툼하고 둥글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밀가루로 만들어 구운 것으로, 속에는 소를 넣음.

제 3절 기념일

■ 신년(新年)

▶양력 1월 1일로 원단(元旦)이라고 한다 - 새해의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하루를 쉰다.

▶TV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신문에 축사가 실리기도 하지만 명절 분위기는 나지 않는다.

■ 3.8 부녀절(婦女節, 여성의 날)

▶부녀(婦女)란 여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1908년 3월8일 미국 시카고시에서 여성들이 남녀평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하여, 1909년 제2회 여성 사회주의자 대회에서 양력 3월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제정한, 국제적인 여성투쟁기념일이다.

■ 5.1 국제노동절(國際勞動節, 근로자의 날)

▶양력 5월 1일. ▶전 세계의 노동자의 날이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 등지의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착취에 반대하며 대파업을 거행하고,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유혈투쟁을 거쳐 관철시켰는데, 1889년 제2 코민테른 성립대회에서 이 날을 국제 노동절로 제정했다.

■ 5.4 청년절(青年節)

▶양력 5월4일. ▶1919년 5월 4일 중국의 대도시에서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反日,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참가자가 주로 젊은 학생들로 젊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青年’에서 이름을 따 청년절이라 한다.

■ 6.1 아동절(兒童節, 어린이날)

▶양력 6월1일. ▶세계적인 어린이 날로 1949년 국제민주여성연합회에서 전 세계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반대하기 위해 제정한 날.

■ 7.1 건당절(建黨節)

▶양력 7월 1일. 중국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창당기념일임.

▶1921년 7월에 창당된 것을 1941년에 창당일을 7월1일로 결정했다.

■ 8.1 건군절(建軍節)

▶양력 8월 1일. ▶1927년 8월1일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탄압에 저항하여 처음으로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 제4군을 조직하여 군대를 창설한 날임. 우리의 국군의 날과 같다.

■ 10.1 국경절(國慶節)

▶양력 10월1일. ▶1949년 10월1일은 중국이 건국된 날임.

▶중국어에서 ‘國慶’은 유일하게 국가 건국일만을 가리킨다. 참고로 대만은 10월10일이 건국기념일로 쌍십절(雙十節)이라고도 부른다.

[핵심 포인트]

신년(新年) - 양력 1월 1일로 원단(元旦).

3.8 부녀절(婦女節) - 부녀(婦女)란 여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 국제적인 여성투쟁기념일.

5.1 국제노동절(國際勞動節) - 전 세계의 노동자의 날.

5.4 청년절(青年節) - 1919년 5월 4일 중국의 대도시에서 우리 3.1운동의 영향으로 反日,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참가자가 주로 ‘青年’이어서 청년절이라 함.

6.1 아동절(兒童節) - 세계적인 어린이 날. 7.1 건당절(建黨節) - 중국공산당의 창당기념일임.

8.1 건군절(建軍節) - 우리의 국군의 날.

10.1 국경절(國慶節) - 1949년 10월1일 중국이 건국된 날.

*대만 - 10월10일이 건국기념일, 쌍십절(雙十節)이라고도 부름.

제 4절 음식문화

■ 음식습관

▶ 중국인들은 식의주(食衣住)라 하여 먹는 것을 중히 여긴다.

▶ 맹자왈 ‘식색성야(食色性也 : 먹는 일과 남녀간의 일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한다.

▶ <예기>에도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 백성에게는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이라는 글이 있다.

▶ 중국인의 앵겔계수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 인사말 : 니츠판러마(你吃飯了嗎? : 식사하셨습니다까?)는 ‘你好嗎? (안녕하셨습니다까?)’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상적인 인사말이다.

■ 식사초대의 예절

▶ 음식준비가 통상 음식이 남아서 많이 버릴 정도로 풍성해야 한다.

▶ 음식이 남지 않으면 손님접대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 식사 초대와 회식 시에는 통상 요리만 먹으며 밥 또는 국수 등의 주식은 생략된다.

▶ 회식 시의 한 끼 식사에 돼지, 소, 오리, 닭, 생선, 두부, 새우, 채소 등 10개 이상의 요리가 하나씩 나온다.

▶ 탕(湯 tang, 탕 : 국)은 요리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 회식시 직경 1.5m 정도의 원탁을 사용하며 10 ~ 12명이 둘러앉는다. 원탁 가운데에 회전판이 설치되어 있어, 손님이 집기 쉽도록 회전판을 돌리며 권한다.

▶ 회식은 초대자가 손님에게 술을 권하며 시작됨. 탄산음료를 마셔도 실례가 아니다.

■ 식사도구 : 숟가락과 젓가락 중 주로 젓가락을 사용함. 숟가락은 국을 떠먹거나 국수를 담아 먹는 데에만 사용된다. 숟가락은 도자기로 만드는데 우리 것보다 짧고 손잡이가 두툼하다. 젓가락은 대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우리 것보다 김.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퍼 넣는 것이 보통이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 음식점 : 판띠엔(飯店 fàndiàn, 반점), 판꾸안(飯館 fànguǎn, 반관), 찬꾸안(餐館 cānguǎn,

찬관), 찬팅(餐廳 cāntīng, 찬청)이라고 부른다.

■ ‘반(飯)’자가 들어간 음식점은 좀 큰 음식점, ‘찬(餐)’자가 들어 있으면 좀 작은 음식점

■ 호텔 : 따판디엔(大飯店 dàfàndiàn, 대반점) 이라 한다.

■ 작은 규모의 호텔 : 지우띠엔(酒店 jiǔdiàn, 주점), 지우로우(酒樓 jiǔlóu, 주루)라고도 한다.

■ 중국 음식점은 손님들의 잡담으로 매우 시끄러운 것이 보통이다.

■ 도시의 시내에 나가 간단히 식사할 경우 : 소고기국수인 니우로우미엔(牛肉麵, 우육면)이나 튀긴 닭다리를 밥에 얹은 지투이판(鷄腿飯, 계퇴판)을 많이 먹는다.

■ 아침식사 : 서양식 이외 쌀죽에 반찬을 먹거나, 콩국, 또우장(豆醬 dòujiàng, 두장)에 반죽한 밀가루를 튀긴 것, 요우타오(油條 yóutiáo, 유조)와 구운 것, 사오뻥(燒餅 shāobǐng, 소병)을 같이 먹는다.

■ 주식 : 쌀밥, 미판(米飯 mǐfàn, 미반).

■ 북방지역 : 국수, 미엔타오(麵條 miàntiáo, 면조)와 소 없는 흰빵, 만도우(饅頭 mǎntóu, 만두)도 많이 먹음. 소가 들어있는 만두인 빠오즈(包子), 물만두(餃子), 라고 부른다.

부식으로 야채와 고기를 볶은 요리인 차오차이(炒菜, 초채)를 주로 먹는다. 조선족들은 볶음채라고 한다. 최근엔 한빠오(漢堡 hànǎo, 한보 : 햄버거), 빠사(比薩, bǐsā, 비살 : 피자), 짜지(炸鷄 zháji, 작계 : 튀김 닭) 등 서양의 패스트푸드도 많이 들어와 있다.

■ 요리

▶ 중국의 요리는 종류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조리법이나 재료 중 한 가지만 달라도 요리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수가 과장되어 있다.

▶ 요리할 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요리는 대부분 기름에 볶아서 하며, 끓이거나 삶더라도 고소하면서 느끼한 맛이 많다.

▶ 중국인들은 생채소나 전골, 찌개류를 별로 먹지 않는다.

■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는 광둥요리, 사천요리이며, 그 외에 북경요리, 절강요리, 호남요리, 강소요리 등이 유명하다.

▶ 광둥요리 : 중국 남부지방의 요리를 대표함. 맛은 싱거운 편이고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원재료의 맛을 살린다. 대표적인 음식은 차사오(구운 돼지 고기), 고로육(광동식 탕수육) 등.

▶ 사천요리 : 성도, 중경 등의 사천성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요리. 추위와 더위가 모두 심해서 시고, 맵고, 푹 쏘는 자극적인 맛의 요리가 많다. 대표적으로 마파두부, 궁보계정, 간소명하가 있다.

▶ 북경요리 : 보통 징차이(경채)라고 부르며, 황하 유역의 요리를 대표한다. 강한 화력으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튀김요리와 볶음요리가 특징. 대표적으로 베이징카오야(북경고압), 환양로우(쇄양육), 짜장미엔(자장면) 등이 있다. ※우리가 먹는 자장면은 한국화 된 것이다.

■ 차

▶ 중국인들이 가장 마시는 음료 : 차(茶). 항상 차를 가까이한다.

▶ 중국에서는 다도(茶道)가 아닌 다회(茶會 : 차 마시는 모임)또는 다화(茶話 :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 다관(茶館 : 차를 파는 다방)이라는 말이 있다.

■ 중국인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

▶ 중국의 물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 차가 건강에 좋은 효험이 있기 때문이다. -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비만한 사람이나 과잉 칼로리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 중국의 차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차는 발효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 차의 종류 : 불발효차(예:용정차), 반발효차(예:씨양피엔(향편)차), 발효차(예:홍차), 후발효차(예:황차, 흑차)

■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도구를 ‘다구’라고 하며, 다구의 종류에는 다관(찻주전자), 찻잔, 다반(찻잔받침), 탕관(물 끓이는 솥), 숙우(끓인 물을 식히는 다발), 다시(찻잎을 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등이 있다.

■ 중국인의 술문화

▶ 음식점에서 코스로 나오는 요리를 먹으며 함께 술을 마신다.

▶ 요리 자체가 술안주이다(마른안주나 과일 안주가 없다).

▶ 요리를 많이 맛있게 먹기 위해 술을 마신다. ▶ 우리 식으로 술만 팔기 위한 술집이 거의 없다.

▶ 밤늦게 술주정하는 사람도 없음. 2, 3차하면 술집 순례하는 습관도 없다.

▶ 퇴근 이후 동료들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식사는 집에 가서 하는 습관이 없다.

▶ 술 마시는 것을 위주로 하여 친구를 사귀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술잔에 침잔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이다.

▶ 술잔을 돌리지 않으며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지도 않는다.

▶ 술을 마실 수 없으면 물을 마셔도 무방하다.

▶ 깐베이(乾杯 gānbēi, 건배)는 술잔에 있는 술을 다 마셔서 비우자는 뜻으로, 깐베이를 외쳤으면 술잔을 다 비우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의이다.

▶ 자신의 주량이 적어 다 마실 수 없으면 반베이(半杯 bànbēi, 반배)나 웨이이(隨意 suíyì, 마음대로)라고 말하면 된다.

▶ 여럿이 술 마실 때 동석한 사람들이 대화중일 때 혼자만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술을 권한다.

■ 주령(酒令) : 중국인들이 술자리 흥을 돋우는 일종의 게임. 두 사람이 동시에 손가락을 내미는데, 두 사람이 내민 손가락의 합이 자기가 말한 수와 일치하는 편이 이긴다. 술자리에서 노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최초의 주조자 : 4,000여 년 전 두강(杜康)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다.

■ 중국 술의 종류

▶ 백주(白酒) : ‘배갈’ 또는 고량주. 잡곡류를 원료로 만든 증류주.

귀주성의 마오타이(茅台 máotāi, 모태)현에서 생산되는 마오타이주, 사천성의 오량액(五梁液), 강서성의 분주(汾酒), 북경의 이과두주(二鍋頭酒), 산둥성의 공부가주(孔府家酒) 등.

주로 북부지역 사람들이 많이 마신다.

▶ 황주(黃酒) : 백주보다 훨씬 알코올 도수가 낮다. 색깔이 황갈색.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이지만 탁하지 않다. 절강성 소흥시의 소흥주(紹興酒)가 가장 대표적이며, 산둥황주, 노주(老酒), 난릉미주(蘭陵美酒) 등도 유명하다.

▶ 맥주(麥酒) ▶ 약주(藥酒)

[핵심 포인트]

광둥요리 - 중국 남부지방 요리. 맛은 싱거운 편이고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원재료의 맛을 살림. 대표적인 음식 차사오(구운 돼지 고기), 고로육(광동식 탕수육) 등.

사천요리 - 성도, 중경 등의 사천성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요리. 추위와 더위가 모두 심해서 시고, 맵고, 툭 쏘는 자극적인 맛의 요리가 많다. 대표적인 음식 마파두부, 궁보계정, 간소명하.

북경요리 - 보통 징차이(경채)라고 부름, 황하 유역의 요리. 강한 화력으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튀김 요리와 볶음요리가 특징. 대표적으로 베이징카오야(북경고압), 환양로우(쇄양육), 짜장미엔(자장면) 등.

차 - 중국인들이 가장 마시는 음료.

백주(白酒) - ‘배갈’ 또는 고량주. 잡곡류를 원료로 만든 증류주.

황주(黄酒) - 백주보다 훨씬 알코올 도수가 낮음. 색깔이 황갈색.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

제 5절 혼례와 상례

■ 혼례(婚禮)

- 종신대사(終身大事 : 일생의 큰 일) : 결혼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

■ 결혼풍속 : 전통적 혼례의 격식화가 생겼으니, 이를 ‘육례(六禮)’라 한다.

▶ 納采(납채) : 중매인을 통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선물을 보내고 신부 집에서 예물을 흔쾌히 받으며 동시에 자신들도 선물을 준비해서 이에 회답한다. 신부 측에서 예물을 받지 않으면 거절의 의미가 된다.

▶ 問名(문명) : 납채 통과 후 신랑 측이 다시 중매인에게 홍첩(紅帖 : 사주팔자 즉 궁합을 보기 위해서 신부 집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종이)와 예물을 신부 측에 보내는데, 중매인은 신부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홍첩에 써서 돌아온다.

▶ 納吉(납길) : 남자 쪽에서 신부감의 사주를 놓고 일정한 형식을 통해 신랑 측 조상의 위패 앞에서 궁합이 맞는 지를 점치는 단계. 그 결과는 길(吉), 불길(不吉)을 막론하고 중매인을 통해 신부 측에 통보한다.

▶ 納徵(납징) : 궁합 결과가 좋으면 신랑 측은 정중한 예물을 보내어 정식으로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알린다.

▶ 請期(청기) : 신랑 측 집안에서 결혼날짜를 먼저 정해 예물과 함께 신부 측에 보내는데 신부 측에서 바꿀 수도 있다. 양측의 상의를 거쳐 확정하는 단계이다.

▶ 親迎(친영) : 정해진 결혼 날에 신랑이 중매인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간다. 먼저 신부의 부모에게 인사한 뒤, 신부 집 조상의 사당에 절하고 예물을 바친다. 다음에 신부를 가마에 태워 데리고 온다. 위의 5단계까지는 모두 부모들이 주관하며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는 상면조차 못한다.

▶ 명매정취(明媒正娶) : 중매인을 앞세워 양측 집안이 접촉하고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 문당호대(門堂戶對) : 예전에는 재산, 학벌과 지위 면에서 같은 수준의 집안끼리 결혼하는 것을 중시해서 나온 말.

▶ 신랑집에 도착하면 하늘과 땅, 즉 천지신명에게 절하고 다음에 조상과 부모님께 절하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한다.

▶ 다음에 합근(합졸 : 둘이 함께 마시는 술잔)으로 합환주를 마시고 신방, 즉 동방(洞房)으로 들어간다.

▶ 집안에서는 연회를 베풀어 하객들을 대접한다.

■ 1980년 개정된 혼인법 : 전통혼례 방식 폐지.

▶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 결혼 전 법률적 수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 신랑과 신부는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고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여 결혼에 지장을 줄 질병이 없다는 진단서와 함께 관공서에 가서 결혼등기를 하고 결혼증서를 받는다.

▶ 장소 : 결혼식은 큰 음식점에서 거행.

▶ 희연(喜宴) :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연회를 진행한다.

▶ 희주(喜酒) : 하객들에게 권하는 술 ▶ 희연(喜烟) : 하객들에게 권하는 담배

- ▶ 경주(敬酒) :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술잔을 들어 축의를 표시하는 술.
- ▶ 희탕(喜糖) : 결혼식 전후로 직장동료와 친구들에게 사탕을 돌리는 일.
- ▶ 택일 : 일요일이나 기수(奇數)날은 피한다.
- ▶ 결혼식 비용 : 신부측의 부담은 별로 없으며, 신랑측에서 신부집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핑진(聘金 pinjin, 빙금)’이라 한다.

■ 상례(喪禮)

- ▶ 장례 : 중국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성대하고 정성스럽게 거행한다.
- ▶ 송종(送終) : 죽음의 순간에 살아 있는 가족이 함께 하는 임종. 이를 지켜보지 못하면 불효로 간주한다.
- ▶ 소렴(小殮) : 부모가 운명하면 장자가 망자를 목욕시키고 머리를 빗긴 다음 수의를 입힌다. 망자의 입에 돈이나 옥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빈손으로 이승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대렴(大殮) : 방의 남쪽에 안치했던 시신을 시간을 정해 입관을 하는데 입관 시 가족들은 망자의 시신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
- ▶ 관은 망자의 집으로 인식하여 좋은 목재로 만든다.
- ▶ 봉관(封棺) 이후 자녀와 친족은 망자와의 혈연관계에 따라 정해진 상복을 입는데, 요즘은 생략하거나 간소화한다.
- ▶ 조문(弔問)과 안장(安葬)의 일시를 정하고 친지와 친구들에게 부고(訃告)를 한다.
- ▶ 문상객 : 제물(祭物), 대련(對聯), 만장(輓章), 조의금을 가지고 와서 영전에 절하고 애도를 한다.

- ▶ 발인(發靱) : 장지(葬地 : 묘소터)로 운구한다.
- ▶ 발인의 행렬은 자녀와 친척, 상여꾼, 고수(鼓手 : 북과 징을 치는 사람), 취수(吹手) 등으로 구성되며, 장지까지 나팔을 불고 징을 치며 간다.
- ▶ 장지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차에 따라 매장한다.
- ▶ 나팔을 불고 징을 치는 이유 : 망자의 영혼이 원한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계(靈界)에 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 부모의 상 : 100일간 음주와 가무를 삼가고 어떤 연회나 다른 사람의 경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 토장(土葬) : 원래 토장을 많이 했으나 불교의 전래 이후 화장이 전해졌고 다시 토장으로 돌아온다.

■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화장(火葬)을 권장함. 도시 : 90%, 농촌 : 10% 정도 실시가 되고 있다.

▶ 요즘 중국의 장례 : 화장터에서 화장 후 화장터 납골당에 맡기기도 하고, 납골함에 매장, 가루로 만들어 산이나 강에 뿌리기도 한다. 직계 가족인 조부모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음이 특이하고, 청명절과 중추절에 성묘를 한다.

■ 소지전(燒紙錢) :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태우는 풍속. 돈을 망자에게 주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중국인들은 저승세계에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 포인트]

혼례(婚禮)

결혼풍속 - 전통적 혼례의 격식화로 ‘육례(六禮)’라 함.

納采(납채) - 問名(문명) - 納吉(납길) - 納徵(납징) - 請期(청기) - 親迎(친영)

1980년 개정된 혼인법 - 전통혼례 방식 폐지.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음.

결혼 전 법률적 수속 먼저 이행.(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 결혼등기 후 결혼증서 받음)

상례(喪禮) - 중국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성대하고 정성스럽게 거행.

송종(送終) - 소렴(小殮) - 대렴(大殮) - 봉관(封棺) - 발인(發靱) - 매장.

나팔을 불고 징을 치는 이유 - 영혼이 원한을 잊고 즐겁게 영계(靈界)에 들도록 하기 위함.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요즘 중국의 장례 - 화장터에서 화장 후 화장터 납골당에 맡기기도 하고, 납골함에 매장, 가루로 만들어 산이나 강에 뿌리기도 함. 우리처럼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음, 청명절과 중추절에 성묘. 소지전(燒紙錢) -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태우는 풍속. 저승세계에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

제4장 중국문화의 형성과 발전

제 1절 문화형성의 요인

■ 문화 : 인간 삶의 성격과 형태.

<문화의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요소>

■ 자연환경의 요인 (지형, 기후, 자연자원 등이 포함됨)

▶해역 지역의 주민이 살아갈 생업의 종류를 결정지어준다.

▶황하 유역의 토양은 농업에 적합하다.

▶수렵채집경제에서 유목과 농업으로 발전하는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간의 물질적인 의식주 생활의 형태를 결정지었을 것이다.

▶특히 문화의 탄생과정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민족의 특성

▶거의 같은 자연환경에서도 민족과 종족에 따라 다른 문화형태를 나타내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 차이는 자연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보다 매우 작은 것이다. 같은 민족과 종족은 대체로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민족과 종족에 따른 유전학적인 특징.

■ 종교

▶종교는 스스로 문화의 소산이며 문화의 형태와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독교, 불교, 회교 등 고등종교가 유포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타협적인 종교보다 배타적인 종교가 문화에 대한 영향이 강하다.

▶서구의 기독교와 중동의 이슬람교는 배타적인 일신교로서 불교, 유교나 도교보다 훨씬 더 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서구를 포함한 유럽에서 기독교는 매우 놀랍게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교황청이라는 기구를 통해 장기간 각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또 그것을 지배한 적도 있다.

■ 정치

▶문화의 소산이며 동시에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정치형태는 거의 모두 군주체제였지만 군주가 발휘한 권력의 크기는 서로 달랐다. 권력이 시행되는 영토의 크기에 따라 정치의 문화에 대한 영향이 비례했다.

▶유럽의 군주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기간은 매우 짧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종교의 지배를 받았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대한 간섭과 지배도 포기했으며, 동일한 권력이 시행되는 공간도 동아시아에 비해 국내외 모두 경쟁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매우 좁았다.

▶중국이나 한국의 황제와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종교도 권력의 유지를 위해 동원된다.

▶교육과 학문 역시 권력과 체제유지에 기여하도록 장려되었고 또 고안되었다. 문학과 미술까지도 체제 순응적인 성향이 형성되도록 마련되었다. 권력이 시행되는 영역의 크기도 경쟁자가 매우 적었고 권력체제도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민간 풍속도 권력이 개입하여 만들어 낼 정도로 대단히 넓었다.

▶ 결론 : 정치가 문화를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서구는 동아시아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 산업

▶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업 또는 직업이라는 요인이다. 한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그 산업이 해당 사회 전체의 문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덕목을 확산시키는데 유리한 문화가 형성된다.

▶ 정치의 요인이 문화에 영향을 미칠 때 통치계층의 의지와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 종교의 경전과 종교조직 책임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결정적 작용을 한다.

▶ 결론 이해당사자는 극소수이며, 일반 민중은 통치계층의 의도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대조적으로 산업은 그 산업의 최고 운영자들뿐 아니라 그 산업의 종사자 자신도 모르게 참여하게 된다. 이유는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이 특정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발휘하는 영향력은 매우 직접적이며, 또 정치나 종교보다도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다.

■ 중국과 한국의 전통문화 형성과정에 미친 요인 중 자연환경적인 요인은 일찍 경작농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중국은 농업경작지로 활용 불가능한 중국 북부지역을 영토로 만드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 북부와 비슷한 여건의 서부지역에 대한 점령도 유목에 흥미를 가진 청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 비트포겔의 연구 결과

▶ 농업은 중국 군주체제 성립에 도움을 준다. 역대 왕조는 농업 장려, 상업 억제시킴(重農抑商).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다. 한(漢)은 중국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의 정신적인 성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체제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 결론을 낸다.

▶ 유가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정했다. ▶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성공했다.

▶ 자연환경, 정치, 유가사상, 농업의 조화로 중국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과 유가사상, 자연환경이 중국과 한국에서 농업문화를 이룩하는데 협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교통통신의 불편함에도 중국이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의도적으로 형성된 문화의 덕택일 것이다.

■ 서구문화의 형성 : 자연환경이 농업과 거리가 멀어서 국가의 성립이 매우 늦다.

▶ 국가권력의 영향 이전에 기독교의 영향을 먼저 받았다.

▶ 농업도 매우 늦게 발달, 14~15세기에 이르러서야 서구의 역사에 농민폭동이 등장했다.

▶ 동아시아 명절은 대부분 농업의 1년 순환과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서구의 명절을 기독교와 직접관계가 있다.

▶ 서구의 상업이 흥행하기 시작한 것은 13~14세기경으로 몽골족인 원의 대제국 건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 원의 제국건설로 유럽에서 직접 인도나 중국과 교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국제교역의 이익은 막대하였으며, 이 점이 상업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된다.

■ 유럽에서 절대국가의 성립은 상업의 흥기보다 시기상 더 늦다.

■ 교황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상업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 상업은 먼저 자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국가권력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절대군주시대의 상인들은 독립 세력으로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서구의 군주들은 상인들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았으며, 반대로 많은 경우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 서구에서 상업은 동아시아의 국가권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상업에 의해 형성된 문화는 그 이전 기독교 문화를 점점 대체해 나갔다. 상업 또는 상업연합체들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기독교에 의해 질식 상태에 있던 문화를 해방시켰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후원자들은 상인들이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력이었다. 금욕을 강조하는 종교는 상업의 입장에서는 무력화시키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와 기독교 정신>은 상업과 기독교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업의 기독교에 대한 배신을 합리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 상업은 '대항해'의 원동력이다.

▶ 목적 : 상업적 이익의 추구가 대항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

▶ 민주혁명과 산업혁명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역사진행의 최초의 원인은 생산력의 변화는 상인들의 몫이다.

▶ 상인들은 과학자들의 탐구의욕을 왕성하게 하여 생산력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 상업은 대항세력이었던 농업까지 상업화시킨다.

▶ 상인들은 이익 추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지만, 농업과 중요, 정치단체들은 역사의 성격변화를 시키지 못했다.

▶ 인간은 원래 물질, 특히 먹을 것의 획득에만 관심을 보였으니, 물질 획득이 아닌 상업은 인간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 상업의 등장 여건

▶ 농산품, 해산품, 수렵 채집품, 유목생산품 등 인간의 기본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잉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 교역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지역에 거의 예외 없이 상업이 나타났을 것이다.

■ 서구에서만 비약적 발전을 한 이유 : 국가권력의 통제가 다른 지역보다 약했기 때문이다.

■ 상업은 교역과 인간의 물질 생산 활동 자체까지도 지배해 나갔다. 후에 새로운 형태의 필수품들도 만들어 제공함. 이런 발전에는 그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도움이 되었다.

■ 최초에는 이들이 상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시켰다. 나중에는 이들 자체를 상업의 대상으로 삼았다.

■ 다음에는 상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종교를 대폭 약화시키고 정치체계가 경제체제까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켰다.

■ 교육, 학문, 예술까지도 변화시켰다. ■ 단순한 상업에서 상업문화로 발전되었다.

[핵심 포인트] 비트포겔의 연구 결과

농업은 중국 군주체제 성립에 도움. 역대 왕조는 농업 장려, 상업 억제시킴(重農抑商). 농업은 천하지대본. 한(漢) - 중국 문화 형성 중요한 역할. 유가사상 공식 이데올로기로 정함. 과거제도 시행에 성공. 자연환경, 정치, 유가사상, 농업의 조화로 중국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침. 국가권력과 유가사상, 자연환경이 중국과 한국에서 농업문화를 이룩하는데 협조. 교통통신의 불편함에도 중국이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의도적으로 형성된 문화의 덕택.

제 2절 중국문화와 농업

■ 중국과 한국은 일찍이 농업이 발전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생업이었다.

- 유가사상은 군주전체체제의 유지와 농업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 이들 3자는 서로 보완관계였다.
- 상업은 최소한의 필요 충족시키는 선까지만 허용되었다.
-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말에서 있듯이 ‘農’은 ‘工商’보다는 우월하다.
- 농업 : 군주전체체제를 유지해 주는 경제적 기초이다.
 - ▶ 농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황제와 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 역대 왕조에서 진행된 개혁정책에는 농업 진흥과 농민의 생활에 역점이 두어졌다.
-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계절의 순환과 기후
 - ▶ 계절과 기후에 무조건 순응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고, 저수지와 수로 등의 관개시설이 고작이었다.
 - ▶ 일찍부터 농업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던 동아시아는 하늘은 천자(天子)에게 정치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는, ‘천명(天命)’을 내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 ▶ 농민들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 농사의 작업을 준비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1년을 15일 단위로 하여 24 절기로 나눈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농사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특색은 어떤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단순하게 거의 자동적 반복이 되었다.
 - ▶ 매년 하던 방식대로 농사작업의 순서를 밟는다. 시간관념이 엄밀할 필요가 없다.
 - 수확의 동질성에서 농업은 집단적인 요소가 있을 뿐 농업노동에도 집단성이 있다. 관개 시설과 같이 촌락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같이 하고 작업을 서로 분배해야만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리하여 매 촌락이 하나의 유기적인 농업기지가 된다.
 - 친족중의 연장자와 촌락 유지의 위엄은 높다. 이방인의 방문은 일단 경계의 대상이 됨. 농사노동력을 보태는 이외에는 다른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이동은 불가능하므로 농민은 일생을 토지에 공간적으로 매여 있게 된다. 연장자는 농업사회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다. 해당 촌락의 여러 조건에 적합한 지식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시킬 수 있으며, 변경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농업사회의 늙음은 현명함을 뜻한다.
 - ▶ 농업사회에서 농촌에서의 생활은 도시에서의 생활보다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문인들의 시와 그림에는 산수(山水)에 관한 것이 많아서, 농촌생활의 의미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 정부 또는 관(官)과의 관계(지주와의 관계도 포함)
 - ▶ 관이 세금과 소작료 또는 이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농민의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은 친족을 제외한 유일한 의존대상이 되었다. - 관개시설, 흉년이 들 경우 유일한 구호의 원천이 된다. 관에 대한 저항은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관은 두려우면서도 의존적 존재였다.
- 농업문화 :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문화를 말한다. 농업이 가지는 단순하고 무의식적이며 거의 영원한 반복성, 일정 범위 내지 집단성, 수확량의 제한성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형성된다.
 - ▶ 농업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존재한다.
 - ▶ 농업문화는 집단성, 소극성, 체념, 위계질서의 존중, 절제와 금욕 등을 미덕으로 삼는 특징을 가진다.
 - ▶ 농업은 군주전체체제의 경제적 기초였고, 농업문화도 그것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 ▶ 역대 왕조는 상업의 발전을 일정한 정도 억제하여 농업문화를 강화시킨다.
 - ▶ 기후, 토지, 노동력의 세 가지 요소로 유지되는 전통적인 농업은 상업과는 달리 인간사회의 변질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 ▶ 결론 :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는 농업에서 비롯되었으며, 서구문화는 상업에서 비롯된다.
- 결론으로 본 새로운 관점

▶ 서구문화의 우월성은 경쟁적인 상업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서구 고유의 특별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구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상식과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서구화란 서구사회에만 있던 사물이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 가부장제의 붕괴현상도 서구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방하거나 또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들여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관점은 ‘관념적 서구화론’이라 부른다.

서구의 민주주의 도입보다는 상업 체계적인 자본주의를 들여오는데 어떤 경제교육도 필요하지 않았다.

▶ 단기간에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덕과 가치관의 붕괴’로 이해하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농업과 상업문화의 차이로 이해하면 훨씬 접근하기 쉬워진다.

[핵심 포인트]

농업문화 -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문화로 농업이 가지는 단순하고 무의식적이며 거의 영원한 반복성, 일정 범위 내지 집단성, 수확량의 제한성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형성.

농업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존재.

농업문화는 집단성, 소극성, 체념, 위계질서의 존중, 절제와 금욕 등 미덕이 특징.

농업은 군주전제체제의 경제적 기초였고, 농업문화도 그것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역대 왕조는 상업의 발전을 일정한 정도 억제하여 농업문화를 강화시킨다.

기후, 토지, 노동력의 세 가지 요소로 유지되어 인간사회 변질을 촉발시키지 못함.

제 3절 동아시아문화와 세계

■ 세계문화권의 4분류 - 동아시아문화권, 서구문화권, 이슬람문화권, 힌두문화권

▶ 공통점 : 동아시아, 이슬람, 힌두 모두 서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서구 문화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서구문화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 가장 오래된 문화 : 동아시아와 힌두

역사가 오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비잔틴, 중미, 안데스 등의 문화는 소실된다.

▶ 거의 모든 국가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으로, 문화권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

같은 문화권의 국가는 대개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제도, 경제 환경과 수준에 있어 비슷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 힌두 문화권은 예외적으로 인도 한 국가에 국한된다.

▶ 이슬람과 서구, 이슬람과 힌두 사이가 좋지 않다.

▶ 힌두는 4개 문화권 가운데 가장 힘이 적어서, 세계는 현재 동아시아, 서구, 이슬람 3대 문화권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 서구 문화권

▶ 형성시기 : 기원후 700~800.

▶ 그리스, 로마 문화의 후예로 자처하며, 기독교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 형성과정에서 상업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 15, 16세기 이후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시켰다.

▶ 식민지 착취와 원주민의 소멸, 유럽인의 이주는 그들 문화의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노쇠해진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역사무대에 등장.

▶ 네 문화권 중에서 가장 늦게 형성되었으면서도, 가장 빠른 발전을 했다.

■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18, 19세기 이후 세계 최고 수준

에 달했다. 나아가 여타 문명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 세계 모든 여타 지역을 경쟁적으로 ‘발견’하고 착취하고 식민화하였다.

■ 기독교를 전파하고 개화시켰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 동시에 부러워하게 하고 모방하게 만들었다.

■ 서구우월주의 : 현재에도 세계의 모든 지역을 감독하고 있으며 세계의 발전도 주도하고 있다. 서구인들은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기 좋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우월주의에 도취해 있다. 그들만이 합리적 사고와 과학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여타 문화권의 국가와 사람들은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서구의 문화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몇 개의 국가가 경쟁적으로 중심 국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없는 현상이다.

■ 정교 문화권 : 이것은 먼저 동부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이 확대는 동부 유럽 국가들의 서구 모방으로 이루어졌는데, 같은 기독교 전통으로 인해 모방은 어렵지 않았다. 이런 동부 유럽을 정교 문화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비잔틴에서 갈라져 나와 몽골의 지배와 관료독재주의를 경험하면서 서구문화의 변형이 되었으며, 러시아가 그 중심 국가이다. 20세기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 경험이 덧붙여졌다.

■ 서구 제국은 아메리카 대륙, 즉 북미와 중미와 남미를 통째로 점령하여 식민화 했다.

서구 제국의 식민통치 하에서 아메리카는 서구 문화권으로 변모함. 북미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중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미국은 원주민이 소멸된 이후 유럽인들, 특히 영국인이 이주하여 수립된 서구인의 국가다.

■ 미국이 ‘독립’한 이유는 같은 국민 또는 종족간에도 차별 대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과 공동으로 서구 제국으로부터 세계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소련이 해체된 현재는 세계의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다.

■ 중남미의 원주민은 소멸되지 않고 유럽인과 혼혈로서 생존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토착문화와 가톨릭문화를 결합하여 서구문화의 변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서구보다 훨씬 낮은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아연방, 호주, 뉴질랜드도 서구문화의 일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 결론 : 서구문화의 영역은 세계 각자로 확대되었다.

■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도 점령하여 식민화하였으나 서구문화의 확대 지역으로 변모시켰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 이슬람 문화권

▶ 기원후 7세기에 아라비아반도에서 출현. ▶ 이슬람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 전파 : 서쪽 -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시베리아반도, 동쪽 - 중앙아시아, 인도 대륙,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도 약간 전파되었다. 이슬람 문화권은 아랍, 터키, 페르시아, 말레이 등의 문화로 구분한다. 서구문화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이 있다. 현재도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군주정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 힌두문화권

▶ 기원전 1500년부터 존재.

▶ 인도문명이라고도 함. 2000년 전부터 인도 대륙 문화의 중심 역할 수행. 여타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4대문화권 중 전파력이 가장 약함. 종교적으로 사회를 계층화시켰다. 힌두교는 일개 종교, 일개 사회의 차원을 넘어서 인도문화의 핵심이다.

■ 동아문화권

- ▶ 기원 : 중국 대륙에서 시작, 기원전 200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 ▶ 예전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주요한 내용을 형성한다. 유교문화권 또는 한자문화권이라고도 한다..이들은 발생 후 동아시아 지역으로만 전파가 되었다.
 - ▶ 동아시아문화권(東亞文化圈)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네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한족(漢族)의 중국문화는 가장 빨리 발전했으며, 여타 3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들 3국의 문화수준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상대가 되기 어려웠다. 한국, 일본과 베트남은 중국에서 기원한 유교와 도교문화를 각각 자기들의 토착문화와 결합시켰다.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 다른 3국에 전파했다.
 - ▶ 중국은 서구문화가 밀려오기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규모, 군사력, 경제력, 제도,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3국을 지속적으로 압도했다. 중국의 발전은 거의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 한국, 일본, 베트남은 중국의 발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언제나 중국에 억눌려 있었으며, 경쟁상대라도 크게 힘에 부쳤다. 이들은 중국의 힘에 도전을 시도한 적이 없다.
 - ▶ 일본이 임진왜란 시에 한 차례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무참하게 실패했다. 이들 3국은 중국이 만든 외교관례에 따라 중국에 조공을 바쳤지만 이를 굴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들 3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옆에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중국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중국문화를 전수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중국은 동아시아문화권의 절대 강자였다.
 - 과거 중국의 문화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 명대 당시에 명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정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현대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절반은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기인한다.
 -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제국이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로 몰려오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 제 1, 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영국에 참담하게 패배했고 청불전쟁에서도 졌다.
 - ▶ 결과 : 동아시아문화권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추락. 외부의 적에게 패배한 후로 조공국에게 체면 유지는 불가능하였으며, 중화사상도 옛말이 되었다.
- 세계의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문화권 전체가 서구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 중국은 1985년의 청일전쟁에서도 패배하였다.
 - ▶ 결과 : 동아시아문화권의 패자 자리를 일본에게 빼앗겼다. 1930년대 초에는 다시 만주를 빼앗겼다.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일본은 1937년 전면침공으로 중국을 공격했다.
 - 중국의 국민당정부는 내륙 깊숙이 천도하였고, 일본은 중국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이 서구의 문물제도를 재빨리 도입하여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오랫동안 열세에 있었던 지위를 역전시키고 나아가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다. 서구 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확대하는 것을 방조했다.
 - 일본의 중국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것은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매우 다행. 미국과 소련이 개입함으로써 중국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대륙의 정권은 국민당에게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갔다. 동아시아문화권도 세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넘어갔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모두 분단국가가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소련의,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의 영향 하에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 양 진영은 대치만 하였을 뿐 다행히도 중대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 중국은 1960년대 이후 소련의 영향 하에서 벗어났다. 1980년대 말 소련이 해체되어 다시 자본주의 국가로 변했다. 북한과 베트남도 소련의 영향 하에서 벗어났다. 한국, 대만, 일본은 미국의 영향 하에 계속 잔재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기도 했었

다.

■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도 1970~1990년대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보였다. 중국 역시 1980년대 이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서구 경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유교 자본주의’는 동아시아권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가 되었다.

■ 현재 중화권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화교 공동체의 2개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북한과 베트남의 문화는 사회주의와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권 국가의 사람들은 서구문화권 국가의 사람들에 비해 같은 문화권의 외국에 대해 좀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현재 결성하고 있는 EURO와 같은 조직체는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착수하기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핵심 포인트]

세계문화권의 4분류 - 동아시아, 서구, 이슬람, 힌두

공통점 - 동아시아, 이슬람, 힌두 모두 서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서구 문화권과 긴밀한 관계. 대조적으로 서구문화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

동아시아권

기원 - 중국 대륙에서 시작, 기원전 2000년 전. 유교, 불교, 도교가 주요한 내용을 형성. 유교문화권 또는 한자문화권. 발생 후 동아시아 지역으로만 전파.

동아시아권(東亞文化圈) -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네 문화권.

한족(漢族)의 중국문화 - 가장 빨리 발전, 여타 3국으로 전파. 한국, 일본과 베트남은 중국에서 기원한 유교와 도교문화를 각각 자기들의 토착문화와 결합.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 다른 3국에 전파.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 후 동아시아권에서의 중국의 위신 추락. 동아시아권 전체가 서구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됨.

중국은 1895년의 청일전쟁에서도 패배 - 동아시아권 패자 자리를 일본에게 빼앗김.

중국 1980년대 이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

현재 중화권 -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화교 공동체의 2개 문화권. 중화인민공화국, 북한과 베트남의 문화는 사회주의와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 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못함.

제 4절 전통중국의 과학기술

■ 영국의 학자 조세프 니담의 주장 : 현대문명 = 서구문명 1/2 + 중국문명

■ 과거의 중국 : 서양제국보다 훨씬 높은 문명수준을 가졌고, 부유했었다.

■ 1800년, 즉 산업혁명을 거친 뒤에야 서양 제국의 생활수준이 중국과 비슷해졌다.

19세기 초인 1820년대에 중국의 경제 총생산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이었다.

■ 영국의 인구학자 맬서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증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식량이라 했다. 농업기술이 발전해 있어야만 인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인구가 입을 옷과 살 집을 마련키 위해서는 공업과 건축기술이 발달되어야 한다.

■ 질병을 치료할 의로기술도 발달되어야 함. 한 마디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많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서구의 인구보다 감소되었다.

■ 서양인들은 유럽, 미주 대륙, 호주, 아프리카까지도 그들의 영주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였으니, 이것이 19세기 이래로 서구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결과이다.

■ 과거 중국문명의 수준이 높았음은 원대(元代)에 중국에 이탈리아의 상인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 조선술(造船術)

▶ 1492년 콜럼버스가 인도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출항했을 때 가장 큰 배의 길이는 단지 20여m 정도

이었고 단 3척이었다. 1405년 명대(明代)의 영락제시에 정화를 사령관 삼아 조직한 동남아, 서남아 원정함대는 무려 300척 규모, 병력 2만여 명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배는 길이가 130m이었다고 한다.

▶ 조선술이 중국이 서양보다 앞섰다.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는 중국에서 최소한 1세기경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양에서는 12세기가 되어서야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다. 좌우 회전이 용이한 구멍이 뚫린 키는 중국에서 매우 일찍부터 사용하였으나, 서양에서는 1901년이 되어서야 사용했다.

▶ 중국은 돛이 펼쳐지는 정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했다. 쌍돛과 삼각돛, 심지어 7개의 돛을 사용하여 역풍을 거스르면서 항해할 수도 있었다.

▶ 2세기경 중국 배의 선체는 격벽의 원리로 방수구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체에 구멍이 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영국이 해양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선진적인 조선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여 개량했기 때문이다.

■ 농업기술

▶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밭에 이랑을 내어 작물 재배와 잡초 제거를 했음. 서양에서는 1731년이 되어서야 채택.

▶ 기원전부터 쇠쟁기, 보습, 파종기, 발토판, 회진식 풍구 등 경작과 수확에 필요한 도구 사용. 서양에서는 중세 또는 그 이후에 사용했다. 서양 중세의 농업 혁명은 중국의 농업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가능해졌다.

▶ 말을 운송에 사용하려면 수레와 말을 줄로 연결해야 하는데, 중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말의 가슴에 줄을 연결 시켜 썼다. 서양에서는 8세기까지도 말의 목에 줄을 연결시켜 썼다. 위대한 로마도 식량을 가까운 이탈리아에서 운반해 오지 못하고 멀리 이집트에서 배로 수송해오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 말을 탈 때는 안장과 등자(鎧子)라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3세기경에 발명 사용했다. 서양에는 6세기에 전해지고 중세 초기가 되어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 철의 구조

▶ 중국의 농업기술이 서양보다 앞서는 데는 철의 구조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 기원전 4세기부터 사용했으며, 이미 주철소로를 모두 국영화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서양에서 주철을 사용한 것은 1380년 이후의 일이다.

▶ 철의 구조 기술의 발달로 중국은 무려 4,800척(약 1.6km)을 지하로 시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

■ 지하에서 염수를 추출하여 이를 천연가스로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소금 제도도 한대(漢代)에 국영화 되었다. 바다 소금비의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내륙에서 필요한 소금은 이렇게 만들었다.

■ 중국의 시추기술은 19세기 초에 서양에 전해져서 염수와 석유시추에 사용하게 되었다.

■ 중국의 4대 발명 ■ 중국의 4대 발명품 : 종이, 지남침, 화약, 인쇄술

▶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종이, 지남침, 화약, 인쇄술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추진시킨 원동력이다.”라고 말한대서 비롯한 것이다.

▶ 종이와 인쇄술은 지식의 보급에 기여 → 다시 수많은 발명 자극

▶ 화약은 전쟁과 토목공사능력의 향상에 기여 →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 지남침은 원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하여 교역의 범위를 세계화시킴 → 서양 제국의 군대와 선교사를 식민지에 운반할 수 있게 했다.

■ 의학, 공업, 천문학 등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전통중국이 가장 앞서 발전했다.

[핵심 포인트]

현대문명 = 서구문명 1/2 + 중국문명

인구증가 - 식량. 농업기술이 발전해 있어야만 하고, 많은 인구가 입을 옷과 살 집을 위해서 공업과

건축기술이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도 필요.

조선술(造船術) - 배의 키는 중국에서 1세기경에 보편적 사용. 서양 12세기 중국에서 도입.

쌍돛과 삼각돛, 7개의 돛을 사용하여 역풍을 거스르면서 항해할 수도 있었음.

농업기술 - 기원전 6세기에 밭에 이랑을 내어 작물 재배와 잡초 제거. 쇠쟁기, 보습, 파종기, 발토판, 회전식 풍구 등 경작과 수확에 필요한 도구 사용. 서양 중세의 농업 혁명은 중국의 농업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가능.

말 - 운송에 사용한 것은 중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임.

철의 주조 - 중국의 농업기술이 서양보다 앞서는 데는 철의 주조기술이 뛰어났기 때문.

철의 주조 기술의 발달 - 지하에서 염수 추출 천연가스로 끓여서 소금을 만듦. 중국 시추기술은 19세기 초 서양에 전해져서 염수와 석유시추에 사용하게 됨.

중국의 4대 발명품 - 종이,指南침, 화약, 인쇄술

제 5절 중국문화 발전과 쇠퇴의 원인

■ 우리와 중국문화 수준, 특히 과학과 산업분야에서 서양에 뒤떨어진 원인

■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

▶ 상공인을 상대적으로 천시하여 이와 관련 있는 과학이 쇠퇴하게 되었다.(중농역상)

▶ 과거제도의 시험과목이 전문적인 인재가 배양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

▶ 숭고정신(崇古精神) : 과거의 것에 대한 숭배.

▶ 존경사상(尊敬思想) : 어려운 고전연구에 몰입.

▶ 소수인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기간 독점. ▶ 정부에 의한 주요 경제활동의 독점

■ 산업과 과학기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로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도 발전.

■ 위에 상술한 여섯 가지를 정리하여 다시 평가하면 크게 사상적 측면과 사회정치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 사상적 측면 : 숭고사상과 존경사상.

▶ 사회정치적 측면 : 소수인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독점, 과거 시험에 과학산업분야의 과목 배제, 상공인에 대한 천시 등

■ 사상적 측면

▶ 숭고사상(복고사상) : 예전 사회를 이상시하고 그것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사상으로 유가사상이 대표로 요순(堯舜)시대의 사회를 유토피아적인 이상으로 간주했다. 중국문학사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문체를 이상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문운동(古文運動)이 당송대(唐宋代)에 있었다. 미래상을 제시한 사상은 거의 없었다.

▶ 중국의 역사관 : 태평세상과 혼란한 세상이 반복된다는 순환론 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서양에서는 문예부흥시대에 그리스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리스 사회를 이상시한 적은 없다.

▶ 서양의 역사관 :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전보다 진보한다는 발전사관에 입각한다.

예) 마르크시즘의 유물사관 :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인류가 평등하며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이상사회로 그려졌다.

▶ 존경사회 :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유가 경전을 존경하는 사상.

성현의 말씀이라 존경되었고, 보급과 영구보존을 위해 비석에 새겨지기도 했다.

과거시험엔 유가경전의 암기시험인 명경과(明經科)가 있었던 것도 관련이 있다.

유가사상을 존경하면서 여타 학문은 무시했다.

서양의 기독교 성경이 존중된 것도 중국의 유가경전 존중과 비슷하다. 다만 서양에서는 법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학, 논리학, 수사학 등의 학문을 무시하지 않았다.

■ 사회정치적 측면

▶ 소수인에 의한 권력의 독점 :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 저해요소로 보긴 어렵다.

민중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서양에서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룩되었다.

▶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던 서양의 18세기 이전 근대과학이 발전이 눈부신 걸로 보아 전제군주정치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며 민주정치는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불합리하다.

■ 정부에 의한 주요 경제활동의 독점 : 주요 생필품인 소금, 철, 차등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가 독점은 했었지만, 농업생산 모든 경제활동을 중국 정부가 독점한 것은 아니다.

▶ 서양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1930년 경제대공황이 일어난 후부터이다.

▶ 서양에서는 예전엔 경제활동은 경제인이 전담하였고 20세기가 되어서야 정부가 개입했다.

▶ 송대의 강철 주조기술은 당시 전 세계에 가장 앞섰으며, 강철주조에 석탄을 사용했다.

▶ 많은 상공업 활동이 정부의 비호 하에 이루어졌다.

■ 농업을 중시함 : 상대적으로 상공인 천시.

▶ 중국 역대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의 중심은 언제나 농민의 생활보호였다.

▶ 인구의 대부분 90% 이상이 농민이었으니, 정부 세입원으로 중시되었다는 뜻이지, 실제적으로 한 계층으로서의 농민으로 중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 중국이 서양보다 뒤떨어진 원인이 중국인 자체의 논리적 사고부족과 한자의 어려움을 드는 학자도 있다. - 이 말이 사실이라면 18세기 이전에 서양보다 앞선 문화를 설명키 어렵다.

■ 이상에서 살펴보면 모든 사항들에 중국 정부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시험과 존경사상, 소수인에 의한 정치 권력독점과 경제활동의 정부독점, 숭고사상 등.

■ 중국의 역대 정부의 학문과 교육의 독점

▶ 역사 : 정부 관료에 의해 기술됨. ▶ 중심학문 : 유가사상.

▶ 교육내용 : 유가경전에 국한되었다. ▶ 종교 : 불교와 도교도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 과학기술 : 관료나 관료의 후원 하에 발전하였다.

▶ 상공업 : 정부의 비호 하에 발전하였다.

■ 동아시아의 특징

▶ 매우 일찍 국가 성립. ▶ 국가의 권력이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깊게 통제하였다.

▶ 깊게 통제하던 것이 단절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 결론 :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명

▶ 춘추전국시대에 열국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서 발명하게 되었다.

▶ 분단시대 모든 국가의 목표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 상대국보다 강해지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보니, '경쟁에 의한 효율'이 발생하였다.

▶ 살아남기 위한 방편의 노력으로 과학기술과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 중국의 북방과 서쪽 지역의 군사력이 막강한 이민족이 오래 전부터 중국을 괴롭히고 있었다.

■ 중국을 침공한 순서

▶ 흉노, 거란족, 몽골족, 만주족 등.

▶ 중국은 중국을 침공한 나라들보다 경제력은 강했으면서도 군사력은 약했음. 이들 기마민족은 중국을 침공하는 목적이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중국을 통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 진시황이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만리장성은 춘추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 중국의 경제력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입증한 예이다.

▶ 중국은 만리장성 쌓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방면으로도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었다. 군사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통중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요인

▶ 강력한 정부 ▶ 지방간의 경쟁 ▶ 북방 기마민족의 침공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

▶ 전통중국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력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정부였으며,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만든 것은 지방간의 경쟁과 북방민족의 압력이었다.

[핵심 포인트]

중국을 침공한 순서 - 흉노, 거란족, 몽골족, 만주족 등.

전통중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요인 - 강력한 정부, 지방간의 경쟁, 북방 기마민족의 침공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 전통중국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력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정부였으며,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만든 것은 지방간의 경쟁과 북방민족의 압력.

제5장 중국인의 관념과 의식

제 1절 중국인의 민족의식

■ 자기들만의 자부심을 느끼는 근거 : 춘추전국시대 이전 중국인들은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 벌레 충(虫)자나, 활 궁(弓), 창 과(戈) 등, 좋지 않은 뜻의 한자를 선택해서 이민족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옛날 중국의 전통이었다.

▶ 한대(漢代)에 중국을 괴롭혔던 북방민족은 ‘흉노(匈奴)’라 했다.

▶ 칭말 서양인들을 모두 ‘양이(洋夷)라고 총칭한다.

▶ 서양인들과 관계된 업무를 ‘이무(夷務)’라고 한다.

▶ 중국의 힘이 약해진 현대에는 미국(美國), 영국(英國), 법국(法國), 덕국(德國) 등의 좋은 뜻의 한자를 사용한다.

■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 중심에 위치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中國’이라고 불렀다.

▶ 현재는 빛날 ‘華’를 덧붙여 ‘中華’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옛날 중국에는 ‘세계’라는 말이 없었고, ‘천하(天下)’라는 말을 사용한다.

▶ 말뜻은 오늘날의 ‘세계’와는 다른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만을 나타내는 것.

▶ 중국에서 ‘천하통일’이란 : 중국 영역 내의 통일만을 의미한다.

■ 과거에 자기네 나라의 특색을 ‘지대물박(志大物博)’이라 한다. ▶ 땅이 크고 물건이 다양함. 곧, 영토가 넓고 경제가 발전했다는 의미이다.

■ 중화사상(中華思想) : 중국인의 민족의식으로 서구 우월주의와 비슷하다. 단, ‘중화사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와 일본에서만 사용한다. 중국 내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한다.

▶ 중국인들은 ‘민족 자호감(民族自豪感, 민족 자부심)’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1950년대 초까지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강점했다.

▶ 천안문에 쓰여 있는 글귀 ‘全世界人民團結萬歲(전 세계 인민이여 단결하자)’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 자금성 앞 인민대회당 건물의 고압적인 느낌이 든다.

- ▶북경의 중심도로인 장안가의 현대식 건물도 대단히 고압적인 느낌.
 - 현재의 우월주의는 중국 정부 차원, 서구에 대한 열등감은 중국인들이 강하다. 반미의식은 우리보다 강하다.
 - ▶미국문화를 동경하고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는 의식 또한 우리보다 강하다.
 - 우리의 민족의식
 - ▶700여 년 간 장기간 만주 대륙의 왕자로서 장기간 군림했던 고구려인들의 민족의식은 매우 강렬했을 것이다.
 - ▶스스로 東國이라 자처함. :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의식일 것이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해동성국’ 등의 명칭이 그것임. 오늘날 서울의 ‘동국대학교’로 계승되었다.
 - ▶중국의 변방으로 자처했는데,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거의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 공식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표방 : ‘모화사상(慕華思想)’이라고도 한다. 중국을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 ▶일종 국가의 명철보신주의라 할 수 있다.
 - ▶조선조는 자신을 ‘소중화(小中華)’라고 자처한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재야학계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민족의식이 싹이 트고 있다.
 - ▶고구려나 백제 역사의 재평가 ▶우리 기독교의 발전 ▶태평양시대 등의 논의
 - ▶북한의 주체사상 ▶단군숭배
 - 민족이나 개인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우월감, 강력한 경쟁의욕을 갖는 것 등이 강력한 원동력이다.
 - 일제의 압제와 6.25전쟁의 참화, 분단의 고통 속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 [핵심 포인트]
- 춘추전국시대 이전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라는 말을 만들어 냄. 한대(漢代)에 중국을 괴롭혔던 북방민족 - ‘흉노(匈奴)’. 청말 서양인 - 모두 ‘양이(洋夷)라고 총칭. 중국의 힘이 약해진 현대 - 미국(美國), 영국(英國), 법국(法國), 덕국(德國) 등의 좋은 뜻의 한자를 사용. 중국인들은 자가 나라가 세계 중심에 위치했다고 생각 - 스스로 ‘中國’이라 부름. 중화사상(中華思想) - 서구 우월주의와 비슷. ‘중화사상’은 우리와 일본서만 사용. 중화인민공화국 - 1950년대 초까지 중국이 티벳을 무력으로 강점. 반미의식이 강하면서도, 미국문화의 동경,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는 의식이 강함 .

제 2절 중국인의 위계의식

- 궈공(鞠躬 jūgōng, 국궁) :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 신랑 신부 간 결혼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무대 위의 가수가 청중들에게 인사할 때.
- ▶중국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다.
- ▶나이 많은 분하고 악수를 해도 두 손으로 잡으며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 중국인들을 살펴보면 유교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예의규범이 없다.
- 예) 모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음. 제사를 혹 지낸다 해도 궈공을 가볍게 세 번 할 뿐

큰 절을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 성씨의 본관을 모름.

▶동성동본끼리의 결혼, 동거 등이 이상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혼례와 상례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위아래의 위계의식(位階意識)이 없다. 중국어로 등급관념(等級觀念 : 우리말의 위계의식)이 없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어깨를 치며 말해도 결례가 아니다.

동네 할아버지에 또는 나이든 부인이 남편을 ‘老東西(늙은 것)’라고 부른다.

■대중교통 이용 시 나이 든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부모님, 어른, 선배 앞에서 맞담배걸도 할 수 있으며, 다리도 뻗고 앉을 수도 있다.

■상대방 어른에게 ‘넌(您)’이라는 존칭을 안 썼다고 해서 질타를 당하지 않는다.

■나이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쓴다.

■직위에 있어서도 상사가 아래 직원을 부를 때는 ‘小’자만 붙이면 되고, 아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老’자만 붙이면 된다.

■중국인들은 위아래를 안 가리고 예의가 없을 뿐더러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다.

술자리에서 모두 말이 많아진다.

▶중국인들은 잡담을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서 즐긴다.

■중국인들은 줌스럽다.

▶친구간에 식당을 가기 전에 누가 돈을 낼지 분명하게 하고 간다.

■선배나 상사라고 해서 밥값을 내주어야 된다는 문화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문화는 좋게 말해 예의가 바르고 호방한 일이지만, 위아래를 지나치게 가리고 말조심을 해야 하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다.

중국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는 예의와 버릇이 없고 대범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에 유교의 잔재가 거의 없는 원인.

▶중화인민공화국이 1960년대 중후반의 문화대혁명 때에 봉건사상 타파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문혁(文革)이후에도 비림비공(批林批孔 : 임포 비판, 공자 비판)운동을 전개했었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유교사상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그 영향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중국인도 예의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일찍이 1910년대 초기인 중화인민 건국 초기에 지식인 사이에 팽배해 있었던 유가사상에 대한 비판 풍조에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즉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주장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을 탐구하는 것보다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와 다른 그들의 관념과 관념에 따른 행동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궈공(鞠躬 jugong, 국궁) -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 신랑 신부간 결혼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무대 위의 가수가 청중들에게 인사할 때.

중국인들을 살펴보면 유교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예의규범이 없음 - 제사를 안 지냄,

중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 성씨의 본관을 모름.

동성동본끼리의 결혼, 동거 등이 이상하지 않다. 혼례와 상례를 별로 중시하지 않음.

위아래의 위계의식(位階意識)이 없다. 중국어로 등급관념(等級觀念)이 없음.

중국에 유교의 잔재가 거의 없는 원인 - 중화인민공화국이 1960년대 중후반의 문화대혁명 때에 봉건사상 타파 강조. 문혁(文革)이후에도 비림비공(批林批孔 : 임포 비판, 공자 비판)운동 전개. 중국 정부가 유교사상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그 영향 때문.

제 3절 중국인의 여러 가지 측면

■ 돈에 대한 집착

- ▶ ‘푹씨파차이(恭喜發財 gōngxǐ fācái, 공희발재) : 음력 설 때 돈 많이 번 것을 축하한다는 뜻.
- ▶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배금주의(拜金主義)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 ▶ 자신이 돈을 추구하는 것도, 남이 돈을 추구해도 그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경멸 하지도 않아서 솔직하다.
- ▶ ‘짜오차이(招財, zhāocái, 초재) ‘쩐빠오(jìnbǎo, 진보) : 재물을 부르고 보물을 들여옴의 뜻이다.
- ▶ 중국인들의 돈에 대한 솔직한 태도와 집념, 꾸준한 자기 암시는 상당히 놀랄만하다.

■ 짝수에 대한 기호

- ▶ 짝수 승배 : 결혼식 날, 이삿날도 택한다.
- ▶ 이유 : 發財의 發의 발음과 八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 ▶ 짝 수 중에서 쓰(四 sì, 사)는 Tm(死 sǐ, 사)와 발음이 같아서 싫어한다.

■ 일련번호 사용시 홀수를 피하는 방법

- ▶ 예) 중국의 따판띠엔(大飯店 dàfàndiàn, 대반점 : 호텔)에서 방 번호는 오른쪽은 모두 짝 수 번호 방이며, 왼쪽은 모두 홀수 번호 방으로 되어 있다.
- ▶ 예) 거리 주소에서 번지수를 달 때도 마찬가지로 임. 번지수를 중국어로 ‘하오(號 hào, 호)라고 한다. 중국인의 숫자관념이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이다.
- ▶ 극장의 좌석번호를 붙일 때도 중국의 시웬(戲院 xīyuàn, 희원 : 영화관) 왼쪽 입구에 쌍하오(雙號 shuāng hào, 호), 오른쪽 입구에 단하오(單號 dān hào, 단호 : 홀수)라고 쓰여 있다.
- ▶ 1, 3, 5, 7, 9와 2, 4, 6, 8, 10이 함께 나란히 붙어 있어서 짝수 옆에는 짝수가 홀수 옆에는 홀수가 있다.

■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이웃하여 붙어 있어야 하며, 홀수와 짝수가 붙어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 ▶ 중국인들이 짝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짝수가 되는 것, 곧 짝을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

■ 도안한자(圖案漢字) : 문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한자.

- ▶ 짝을 이루는 것을 중국어로는 ‘청쌍(成雙 chéngshuāng, 성쌍)이라고 말하는데, ‘결혼하다, 애인관계가 되다’라는 뜻도 있다.

▶ ‘쌍희자(雙喜字)’는 ‘禧’는 ‘기쁨 희’자이므로 결혼식 때 ‘囍’자를 스는 것은 두 개의 기쁨을 나타낸다.

▶ ‘청쌍(成雙 chéngshuāng, 성쌍)을 중요시하는 이유

개별적인 개인으로 분산되기보다 남과 더불어 짝으로 있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는 관념.

- ▶ 혼자 있는 것은 불안하며, 혼자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사회도 불안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 가정생활

- ▶ 집안에서 대부분 신발을 신고 생활. ▶ 시골의 농가까지도 100% 침대와 의자생활을 한다.

■ 도시의 가정 대부분 맞벌이 부부임. 여성은 결혼해서 정년퇴직 때까지 일한다.

- ▶ 가정에서의 여성 지위는 우리 보다 높다.

▶ 남녀간의 관계 또는 부부간의 관계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 ▶ 중국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불평하지만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는 훨씬 높다.

▶ 밥 짓기, 설거지, 빨래하기, 청소 등 가사노동을 남편이 많이 돕고 있다.

■ 중국 여성은 내숭을 떨지 않으며, 중국 여성에게 우리 식의 ‘여자다움’을 기대하면 실망한다.

- ▶ 각 기관에서 높은 직위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매우 높다.
- 근검절약의 생활 : 월수입의 1/3 ~ 1/2를 저축하며, 돈을 벌기 위해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는다.
- ▶ 생활자세도 매우 검소. ▶ 여자들의 화장도 우리 보다 훨씬 덜 한다.
- ▶ 집안 치장도 별로 안 한다. ▶ 남녀간 데이트 시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매번 카페, 술집, 음식점 등 유흥업소를 순례하는 데이트 문화가 없다.
- ▶ 번 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꺼려하여 현찰로 보관하거나 금으로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
- 교육에 관심이 높다.
- ▶ 젊은 사람들 학력이 높다.
- ▶ 도시의 부모들은 ‘독생자(獨生子)’인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 ▶ 어린이의 지적개발교재도 불티나게 팔린다. ▶ 도시에는 ‘뿌시반(補習班 bǔxíbān, 보습반)’이 많다.
- ▶ 과외지도인 ‘푸따오(輔導 fūdǎo, 보도)’도 많이 행해진다.
- ▶ 북경의 북경대학(北京大學), 청화대학(清華大學),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상해의 복단대학(復旦大學) 등 명문대 경쟁률이 매우 높다.
- ▶ 평생교육기관인 ‘광파전시대학(광파전시대학 ; 띠엔따 電大 diàndà, 전대라고 약칭함)은 우리 방송통신대학에 해당된다.
- 가족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일상대화에서 국내정치를 화제로 삼는 것은 일종의 금기이다.
- ▶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 ▶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공안(公安)’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곤란하다.
- ▶ 우리 역시 군사독재정치가 자행되던 1970, 1980년대에는 드러내고 정치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었다.
- 여가생활
- 주로 띠엔스(電視 diàn shì, 전시 : TV)시청을 한다.
- 중국의 국영 TV방송국 : 중국중앙전시대(中國中央電視台, China Central TV, CCTV)
- 우웨이(舞會 wǔhuì, 무회)
- ▶ 사교춤(社交舞, 사교무)의 많은 보급. ▶ 학교에서도 가르쳐준다.
- ▶ 대학과 일반 직장의 구내식당의 홀에서 우웨이(舞會 wǔhuì, 무회)를 정기적으로 열거나, 약간의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 ▶ 춤파티에서는 ‘쓰부(四步 sìbù, 사보)’라 불리는 블루스와 ‘싼부(三步 sānbù, 삼보)라 말하는 왈츠를 많이 춘다.
- ▶ 1920년대에 중국에 전해졌다.
- 마장(麻將 májiàng, 마장)
- ▶ 친구나 친척들과 주로 마장을 대단히 즐긴다. ▶ ‘雀(새 작)’자를 써서 ‘마작(麻雀)’이라고도 한다.
- ▶ 마작패를 섞을 때 새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얻은 이름.
- ▶ 마장으로 뚜뽀(賭博 dǔbó, 도박)도 많이 하여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었다.
- ▶ 최근에는 웨이치(圍棋 wéiqí, 위기 : 바둑)과 더불어 나오리원똥(腦力運動 nǎolìyuándòng, 뇌력운동 : 두뇌운동)으로 간주하여 허용되고 있다.
- ▶ 중국에서 뇌력운동은 일반적인 체력운동(體力運動)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국무원의 체육부 관장사항이다.
- ▶ 마장은 네 명이 한조가 되어 하는 오락으로 바둑처럼 고도의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다.

▶ ‘十億人民九億賭，還有一億跳舞’라는 유행어가 있다 : 중국 전체 인구의 9할은 도박을 하며, 나머지 1할은 춤을 춘다는 뜻이다.

▶ 중국인들이 도박과 티아오우(跳舞 tiǎowǔ, 도무 :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쾌락 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치공(氣功 qìgōng, 기공)**

▶ 치공(氣功 qìgōng, 기공) : 중국 전통의 심신단련법인 기공.

▶ ‘氣’ : ‘근본적인 물질과 힘’이라는 뜻. 철학적. 정신적. 의학적. 우주와 물리적인 측면 등 모두 그러하다.

▶ ‘공’ : 우주 전체에 흐르는 대자연의 기를 운동과 호흡과 의식의 조절을 통해 받아들여 심신의 기를 보충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수련이다.

■ 기공의 종류 :

▶ 목적에 따른 분류

* 연기공(軟氣功)의 목적 : 건강유지와 치료. * 경기공(硬氣功)의 목적 : 무술단련.

* 수련방식에 따라서 동공(動功)과 정공(靜功)으로 나눈다.

■ 태극권(太極拳) : 기공의 일종. 명 말에 진왕정(陳王庭)이란 사람이 개발했다.

원래 무술적 요소가 많은 경기공이었으나 후에 건강을 위한 연기공으로 변했다.

‘태극’ : 우리의 국기에도 형상화되어 있지만 원래는 주자학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 중국 현대사에 나오는 의화권(義和拳), 최근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파룬공(法輪功, fǎlúngōng, 법륜공)역시 이런 기공의 일종이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 우주의 기까지 흡수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인 특유의 발상인데, 매우 느린 동작으로 체조를 하기에 부상의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 장점이다.

■ 한국인의 외모

▶ 한국인은 상체가 단련되었다. ▶ 남녀 모두 허리가 약간 굽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 피부는 하얀 편이, 머리카락은 약간이나마 갈색을 띠고 있는 편이다.

▶ 눈의 위 아래가 짧으며 가로는 긴 편이다.

▶ 얼굴과 코 모두가 좀 긴 편이고, 머리 전체의 크기가 중국인보다 큰 편임. 즉, 두상이 큰 편이 한국인이다.

▶ 인상은 좀 싸움꾼 같고 날카로우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느낀다.

긴장되고 빠른 걸음걸이.

■ 중국인의 외모

▶ 중국인은 하체가 단련되었다. ▶ 눈은 가로로 짧으며 세로가 길다.

▶ 쌍꺼풀이 많다. ▶ 얼굴 전체 모양은 짧으며 턱도 짧다.

▶ 코의 길이가 짧고, 콧방울은 넓은 편이다. ▶ 광대뼈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 태평스럽고 멍하며 순하다는 인상을 준다. ▶ 느리고 좀 흔들거리며 걸음.

▶ 피부가 탄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보다 대략 5 ~ 15세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 치아가 누런빛을 띠고 있는 사람이 많고, 때로는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사람도 있다.

▶ 날카로운 인상을 주기 위해 콧수염을 기르기도 한다. ▶ 노인들 상당수는 머리를 완전히 민다.

▶ 무더운 여름 중국남자들은 대부분 옷통을 벗고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 중국인 중에서 산둥(山東)사람과 동북지역의 사람의 외모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핵심 포인트]

돈에 대한 집착 - 일반적으로 배금주의(拜金主義) 경향이 강.
 짝수 송배 - 결혼식 날, 이삿날도 택.
 도안한자(圖案漢字) - 문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한자.
 가정생활 - 대부분 신발을 신고 생활. 시골의 농가까지도 100% 침대와 의자생활, 도시의 가정 대부분 맞벌이 부부, 여성은 결혼해서 정년퇴직 때까지 일, 가정에서의 여성 지위는 우리 보다 높음.
 근검절약의 생활 - 월수입의 1/3 ~ 1/2를 저축,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교육 - 젊은 사람들 고학력. 도시의 부모들은 '독생자(獨生子)'인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을 당연시. 북경의 북경대학(北京大學), 칭화대학(清華大學),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상해의 복단대학(復旦大學) 등 명문대 경쟁률이 매우 높음.
 평생교육기관인 '광과전시대학(광과전시대학 ; 띠엔따 電大 dianda, 전대라고 약칭함)은 방송통신대학.
 가족 사이에서는 가능해도 일상대화에서 국내정치를 화제로 삼는 것은 일종의 금기.
 여가생활 - 띠엔스(電視 dian shi, 전시 : TV)시청, 우웨이(舞會 wǔhuì, 무회), 마장(麻將 májiàng, 마장) 치공(氣功 qìgong, 기공) - 중국 전통의 심신단련법인 기공.
 중국현대사에 나오는 의화권(義和拳) - 최근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파룬공(法輪功, fǎlúngōng, 법륜공) 역시 기공의 일종.

제6장 정신세계와 문화생활

제 1절 전통사상의 원류

■ 전통사상의 실체

▶ 서안(西安) - 봉건왕조들의 정치적 근거지 ▶ 북경(北京) - 현대중국의 정치적 중심지

▶ 상해(上海) - 경제적 중심지 ▶ 광주(廣州)와 홍콩 - 근대화 물결이 가장 먼저 상륙했다.

■ 이상의 도시들은 모두 한족(漢族)들의 밀집지역이지만, 각 지역의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생각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전통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불일치는 중국 전통 자체가 모호해서가 아니라, 20세기 이후 중국의 근대화 과정 자체가 전통사상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중국의 근대적 지식인들의 입장 : 19세기 중반 이후 자신들의 문명적 역량이 서구 제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무기력과 침체의 중요한 원인을 전부 전통사상에서 찾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전통사상은 전부 비판과 폐기의 대상이었다.

■ 봉건지배계층 : 역사적 과오의 진원지로 지목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어 왔던 전통사상이야 말로 사력을 다해 수호해야 했다.

■ 20세기 이후 중국현대사의 흐름 : 전통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혁명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1949년 중국공산당 :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통사상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통사상은 맹목적인 수호의 대상이 되거나 일방적인 성토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현실이다.

■ 아시아 강국인 일본은 중국을 문명적 실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대상으로서 중국의 전통은 일본적 근대화를 통해 타파되고 지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가혹한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와 남북분단으로 사상적 풍토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되었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 중국인들의 전통사상 적 경향을 가리켜 중화사상(中華思想)이라 한다.

▶ 중화사상 : 중국 전통의 사상을 한국, 일본 같은 주변국의 전통사상과 대비시켜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중화사상이라는 개념은 중국 전통사상의 실체를 더 왜곡시켰다. 전통사상과 문화권의 전통에 대한 논의는

미래 지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전통사상의 실체에 대해 생각할 때 전통의 원류를 어디에 기초하는가가 중요하다.

▶ 유가사상이라고 하는 전통적 요소가 중국인들이 고대문명을 이루었을 때부터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내재해 있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유교는 한족 특유의 전통사상이라는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쉽다.

▶ 특정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민족이라도 비슷한 환경에 처한다면 한족들과 비슷한 유교와 같은 사상체계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측면을 중시함. - 민족주의의 의의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 지리와 산업과 문화의 상관관계

▶ 종교 내부의 영역 안의 사람들 - 자신의 신념이 생래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서 외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 영역 외부의 연구자 - 대체로 외부적 환경의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 지리와 산업 - 외부적 환경요인

▶ 중국 - 대륙은 광활하지만 지리적으로 폐쇄돼 있다.

▶ 남 - 아열대 밀립지역을 경계로 동남아시아지역과 격리되어 있다.

▶ 증거 - 동남아의 불교는 중국 불교와 계통이 다르다.

▶ 풍속이나 언어도 매우 달라 문화적 일체감도 매우 약하다.

■ 중앙아시아 - 파미르고원과 사막을 사이에 두고 있다.

▶ 인종, 언어, 종교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매우 적다.

▶ 고대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왔다는 가설도 있다.

▶ 역사적 - 실크로드를 통한 제한적인 교류도 지속되어 온다. 그러나 전통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대륙 북쪽의 초원과 툰드라지대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또 하나의 장벽이었다.

20세기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 이후 북쪽과 유대가 강화되었다.

▶ 동쪽의 태평양 - 서구 제국주의가 침략의 통로로 활용하기 전까지 중국 대륙을 외부세계로 고립시키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

■ 지리적 폐쇄성 - 중국 대륙 사람들의 공간적 이동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 전쟁, 천재지변이 없는 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거주 지역을 바꾸지 않는다.

■ 결과 - 매우 낮은 공간적 이동성으로 인해 자급자족의 성격을 띤, 주곡 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한 가족단위의 소농 위주 사회로 발전한다. 높은 정착성과 주거의 안정성, 가족단위의 집약농업과 같은 요인들은 가족 관념을 발달시킨다.

■ 고도화된 가족관념 - 조상숭배를 종교화한다. - 종법(宗法)의 관념을 창출해 낸다.

중국역사는 수많은 왕조가 교체되었지만 조상숭배와 종족관념에 바탕을 둔 수직적 사회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예) 왕과 군대,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는 종법적 최상위자였다.

■ 폐쇄적인 지리적 여건이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

▶ 토지의 안정적 배분과 활용 - 단순한 토지제도를 넘어 정치사회적 문제.(중국 사회제도의 핵심)

▶ 봉건제도 - 중국 전통사상의 주요한 물리적 토대도 토지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비롯된 제도.

▶ 상공업의 통제 - 중국의 역대 왕조는 거주지의 안정을 해치고 자급자족적 사회체제를 교란시켜 농민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공업을 필요 이상으로 통제한다. - 상공업 종사자를 천민계층으로 규정한 이유다.

■ 문화 - 주관적이고 정신적 현상 사이의 상관 관계

■ 중국 전통사상의 특징 - 집단적 사고에 대한 중시 : 역대 왕조들의 근거지였고, 대개의 중국의 중앙 정치권력이 권력의 토대로 삼았던 황하 유역에서 발달한 전통사상의 경우에 특히 심하다.

■ 황하 유역에서 발달한 전통사상 : 유가와 법가

▶ 유가 - 인(仁), 덕(德), 예(禮), 의(義), 효(孝), 제(悌), 충(忠), 신(信)과 같은 덕목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인간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 법가 - 법(법), 칙(칙), 형(형), 공(공), 형(형)의 개념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한 공리적인 개념들이다.

▶ 유가와 법가의 공통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개성이나 정서적 특징을 가리키는 개념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 실용성 : 고대 중국인들은 형이상학적 문제들보다 정치체제와 사회조직의 유지에 실제로 필요한 정치사상이나 사회윤리 측면에 힘을 썼다.

예) 역법, 천문, 농업, 수리, 의술 등.

■ 경험적 측면이 논리성보다 앞섬 : 중국 전통 사상가들은 실제 현실에서 운용했을 때 유용한가를 중시했다.

■ 유, 불, 도 - 중국 전통사상의 3요소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며 개인의 영혼의 문제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속적인 삶과 도덕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유불도(儒佛道) 3교(三教)의 흐름

▶ 한(漢)왕조의 건국과 함께 중국 고대사상의 원천인 제자백가(諸子百家)는 쇠퇴하고 유불도 세 흐름이 중국 전통사상의 주도적이 되었다.

▶ 3교(教) :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적 흐름을 한자 원래의 뜻대로, 떠받들어야 할 '성인들의 가르침'이란 의미로서 중국인들이 받아들임을 뜻한다.

▶ 3가(家) : 유가, 불가, 도가라는 말은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서 '학파'라는 뜻을 가진다.

▶ 유교 - 유학

▶ 노자(老子), 장자(莊子) - 노장사상이라는 뜻의 '도가'라는 말과, 한(漢)왕조 이후 민간에 종교화했다는 의미의 '도교'라는 말을 구분하여 쓰기도 한다.

■ 유불도는 대체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 유교 - 주로 지배계층에서 수용,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

▶ 불교 - 유교가 퇴조한 남북조시대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 당송 시기 이후 유교의 부흥에 따라 상류계층의 문화생활과 예술적 활동의 영역, 부분적 중요 영역을 담당했다.

▶ 도교 - 서민들의 기복신앙으로 발달, 천문, 지리, 의학과 같은 과학 분야 및 민간연예와 서민적인 예술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 유교 : 공자를 원류로 발달.

▶ 공자 덕목의 중심적 개념 - 인(仁)

▶ 인격적 완성의 경지를 지향하는 인을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했다.

▶ 인을 비롯한 덕목들은 개인적 수양을 넘어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성을 동시에 제기하였다.(아침에 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내성외왕(內聖外王)으로 미화된 유교의 강한 사회성은 정치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유교의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다.

■ 고대 유학자들보다 봉건왕조와 직접적 결합한 당송 이후의 유학자들은 고대 유교의 사상 가운데 정치사상과 사회윤리의 측면을 강조했다.

■ 유교는 ‘관학(官學)’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보수적인 봉건왕조의 이데올로기로서 발달해서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역사를 정체시켰다.

■ 오랫동안 유교는 중국의 정치 사회체계 및 중국인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유교 - 황하유역 지배계층을 기반으로 발달.

■ 불교 : 한왕조 때에 중국에 들어옴.

▶ 업(業)을 매개로 한 윤회설과 연기설(緣起說)에 바탕을 둔 순환적 세계관, 해탈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가치체계, 만민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수평적인 세계관을 가진다.

▶ 남북조 시기를 지나서 불교는 중국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타 사상체계들과 공존할 수 있는 대승불교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 연기적 세계관은 노장사상의 상대론, 회의론과 결합하여 독특한 ‘제법무아(諸法無我)’와 ‘색즉시공(色卽是空)’의 관념으로 발전했다.

▶ 윤회설은 유교의 도덕적 인과응보관념과 결합하여 현세적인 관점에서 수용되었고, 후에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요구하는 기복신앙(복을 빚)적 성격도 포함하게 되었다.

▶ 당송 시기 이후 중국 불교의 주류를 형성한 선종(禪宗)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절충시킨 중국화된 불교의 전형이다.

■ 도가사상 : 춘추전국시대에 노자와 장자를 필두로 대두.

▶ 한왕조를 거치면서 도교로 발전했다. ▶ 도교의 성립에 가장 큰 계기 - 불교의 전래.

▶ 한왕조 후기와 남북조시대 초기의 도교 지도자들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였던 불교의 경전과 체계적인 승려조직,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는 사찰과 예배의식 등을 대폭 모방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신앙으로서 도교의 틀을 창출하였다.

▶ 노장사상을 기본 교리로 채택했지만, 고래의 신선사상과 무속신앙을 대폭 수용하였으며, 서민들의 기복신앙적 요구도 포괄하였고, 특히 풍속과 민간의례의 차원에 깊이 침투했다.

■ 도교의 수용계층 : 서민들.

▶ 역사적으로 노장사상은 유가에 대항.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측면을 포함하였다.

▶ 도교 - 양자강 유역 변방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기반으로 발달.

▶ ‘무위자연(無爲自然)’ : 무정부주의적 정치사상을 제기했다.

위계질서를 증시하는 유교의 수직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개인주의와 신비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 도교는 서민들 입장을 수용해왔으며, 황건적의 난, 백련교도의 난, 20세기 초의 의화단(義和團)의 봉기에 이르기까지 농민봉기에 이데올로기 역할을 수행해왔다.

■ 전통사상과 현대세계

▶ 청왕조 초기에 황종희, 고염무, 왕부지 등 일단의 유학자들은 중국 전통사상, 특히 지배계층에 기반을 두었던 유교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경세치용(經世致用)’이라는 현실적인 학문적 목표를 내걸. 자신들의 학문을 ‘거경궁리(居敬窮理)’의 학문 방법을 비판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새로운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기하였으나, 그들의 노력은 보수적인 청왕조의 정치사회체제와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 ▶ 청왕조 : 성리학과 봉건적 정치사회체제를 고수하였다.
- ▶ 19세기 중반의 아편전쟁, 뒤이은 불평등 조약과 함께 서구 제국주의의 물리력과 서구사상은 중국 전통사상에 수용하기 어려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 ▶ 중체서용(中體西用)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불가능했다.
- 나뉘대로 전통사상의 현대적 변용을 모색하던 손문(孫文)의 중화민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중국의 근대적 지식인들은 대부분 전통사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 5.4운동 - 전통사상에 대한 부정과 서구 근대사상의 수용을 구호로 내건 운동이었다.
- 결과 - 중국의 현대사 발달과정에서 전통사상은 주류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학술적 영역에서조차 명맥 유지가 힘들게 되었다.
- 20세기 이후 전통사상은 양수명(梁漱溟)이 전통사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유교적인 현대적 사회체제로서 향촌사회 건설의 논리를 제기하고, 풍우란(馮友蘭)의 중국 전통철학을 서양철학과의 관계아래 재조명한 신리학(新理學)에 의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수면으로 잠복했던 전통사상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후반 문화열론쟁(文化熱論爭)을 통해 다시 중국인들의 관심사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엔 중국공산당도 유교를 비롯한 전통사상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핵심 포인트]

- 북경(北京) - 현대중국의 정치적 중심지 상해(上海) - 경제적 중심지
- 광주(廣州)와 홍콩 - 근대화 물결이 가장 먼저 상륙.
- 1949년 중국공산당 -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통사상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 전통사상이 일방적 성도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현실.
- 고도화된 가족관념 - 매우 낮은 공간적 이동성으로 인해 자급자족의 성격을 띠, 조상숭배를 종교화 : 종법(宗法)의 관념 창출.
- 중국 전통사상의 특징 - 집단적 사고에 대한 중시.
- 황하 유역에서 발달한 전통사상 : 유가와 법가
- 유가 - 인(仁), 덕(德), 예(禮), 의(義), 효(孝), 제(梯), 충(忠), 신(信)과 같은 덕목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인간관계의 기준 설정.
- 법가 - 법(법), 칙(칙), 형(형), 공(공), 형(형)의 개념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한 공리적인 개념.
- 유가와 법가의 공통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개성이나 정서적 특징을 가리키는 개념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음.
- 실용성 -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치사상이나 사회윤리 측면에 힘씀 : 역법, 천문, 농업, 수리, 의술 등.
- 유, 불, 도 - 중국 전통사상의 3요소 현실 속의 세속적인 삶과 도덕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유교 - 공자를 원류로 발달 : 인(仁)
- 불교 - 한왕조 때에 중국에 들어옴 : 업(業)을 매개로 한 윤회설과 연기설(緣起說)에 바탕을 둔 순환적 세계관, 해탈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가치체계, 만민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수평적인 세계관.
- 도가사상 - 춘추전국시대에 노자와 장자를 필두로 대두, 수용계층 : 서민들, '무위자연(無爲自然)' : 무정부주의적 정치사상 제기.
- 전통사상과 현대세계
- 전통사상의 현대적 변용을 모색하던 손문(孫文)의 중화민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중국의 근대적 지식인들은 대부분 전통사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짐.
- 5.4운동 - 전통사상에 대한 부정과 서구 근대사상의 수용을 구호로 내건 운동.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전통사상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후반 문화열론쟁(文化熱論爭)을 통해 다시 관심사로 부상, 최근엔 중국공산당도 유교를 비롯한 전통사상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

제 2절 민간신앙과 종교

■ 중국인의 종교적 심성

▶ <교(敎)> -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라는 의미의 종교를 가리키는 말보다, 성인이나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말한다.

▶ 중국에서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숭배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 :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눈앞의 현실로서 존재하는 세속적 현상에 대한 **현세적 사고방식**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 안정된 노동집약적 농경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다.

▶ 황하유역의 지리적 조건은 비옥한 토사로 인한 우수한 자연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가족단위 농업을 중심으로 한 고대 황하문명의 사회경제구조는 자연환경에 대한 순응과 가족적 관계에 대한 중시라는 문화적 특징을 형성시켰다.

■ 자연현상에 대해 이유를 추궁하기보다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유를 깊이 캐묻지 않고 순응하는 자연친화적 사고방식을 고대 중국인들은 높이 평가한다.

■ 개개인의 개성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인(仁)’과 ‘덕(德)’과 같은 덕목들이 중시되었다.

■ 공익적이고 공리적인 측면의 ‘도(道)’의 개념이 통용되었다.

■ 도(道) : 구체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편성과 포괄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가치판단의 기준, 도덕적 규범의 근거, 사회관계의 기본적 원칙 등을 ‘효(孝)’라는 가족윤리에서 찾았다.

⇒ 노신(전통사상과 현대사상의 매개로서의 새로운 현대적 마인드를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함. 현대 인문정신의 대표자)

■ 중국인 정신적 특징으로 실용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사회윤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형성시켰다.

■ 상제 신앙(上帝信仰)과 조상숭배

▶ 상제에 대한 신앙과 조상숭배는 황하 유역의 문명을 건설했던 초월적 존재에 대한 핵심적 개념이다.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개념은 중국인들의 정신세계에 잠재되어 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영혼이 항상 후손들과 모종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믿어왔다. 유·불·도 모두 공통이다. 상제신앙과 조상숭배는 문명 초기의 종교적 관념이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 유교이면서 불교적인, 그리고 도교적이기도 한 이렇게 모호하면서도 포괄적인 중국적 특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질적인 요소와 큰 충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상제신앙과 조상숭배가 처음 구체적 모습을 갖추었던 시기 : 중국문명의 초기 단계인 삼대(하(夏), 상(商), 주(周))시기.

■ 상제신앙 : 商나라를 발전시켰던 고대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뒷받침해 주었던 황하 유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상제를 떠받들었다.

▶ 당시의 과학기술과 지식수준으로서 기후에 대한 예측이나 지배가 불가능했으므로, 상제라는 하늘의 상징이 되는 기후의 주재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찍부터 상제의 뜻을 미리 물어보는 방식의 점복(占卜)이 널리 유행하였다.

▶ 서구의 군대문화 유입 후 중국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제신앙은 오늘날, 종교 영역이 대폭 축소되어도 민속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였다.

■ 조상숭배 : 조상들의 영혼의 힘을 빌려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획득하려는 고대 중국인들의 기원을 담은 소박한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이후 점차 복잡한 종교적 관념을 포괄했다.

■ 샤머니즘과 나(儺:역귀쫓을 나)

▶ 샤먼 :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매개자 혹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 나(儼) 문화 : 고대 샤머니즘으로부터 발전하였던 나문화는 서민들과 빈민들,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에 살던 사람, 변장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반영해왔다.

천명사상, 조상숭배 : 지도계층이 주도하였던 공식적, 공개적인 부문의 종교적 전통.

■ 나문화의 핵심 : 고대 중국인들이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했던 역귀(疫鬼)를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몰아내려고 했던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즉 자연과의 대결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 하였던 일종의 저항의식이 나문화의 토대를 이룬 셈이다.

■ 고대 중국인들은 악령을 제압할 수 있는, 악령보다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신비스런 초월자의 도움을 기대하였으며, 그 초월적 존재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인간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고자 했다.

■ 무(巫) 혹은 격(覡)이라 부렸던 고대의 특별한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의 주도 아래 거행되었던 종교적인 제사활동은 후대로 가면서 점차 고도화되어 나제(儼祭) 혹은 나의(儼儀)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의식으로 발전하였다. 나제와 나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나문화는 상제신앙이나 조상숭배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동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 상제신앙과 조상숭배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 바탕을 두고 그 존재에게 현세적인 행복을 기원하는 일방적인 기도나 축원의 모습을 띠는 소극적 측면을 갖고 있는데 비해, 나문화는 악령이라고 하는 나쁜 존재에 대해 대항하려는 적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다.

■ 나문화의 보편화 : 황하 유역과 양자강 유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전 중국 대륙에 걸쳐 고대부터 서민들의 민간신앙으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위진남북조시대 이후 불교와 도교에 기복적인 민간신앙으로서 흡수되고 쇠퇴하기 시작하던 것으로 짐작된다.

■ 중국 불교의 발달

▶ 인도에서 형성된 외래 종교인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 중국 불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갖추었다.

▶ 중국불교 : **대승불교**의 한 부분으로 인도 불교의 교리와 의식을 중국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수용한 결과다.

▶ 불교 유래 : 후한 무렵 인도에서 전해졌다.

▶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모습을 갖추었던 중국 불교의 특성은 인도의 불교가 중국의 전통사상, 중국의 정치사회적 조건 등의 영향을 받아 대폭 변화한 결과다. 남북조시대 서쪽의 중앙아시아와 만리장성 너머 북방에서 여러 민족들이 밀려 들어와 중원을 분할 점령하고 자신들의 왕조를 건설한 시기이다. 당시 중국을 침략해온 이민족들은 중원을 점령하고 한족들을 지배하고 불교를 국교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중원 일대에 불교 사원을 짓고 불경 번역 사업을 전개하였다.

■ 남북조시대 이후 중국에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된 이유

▶ 정치적, 군사적 상황의 변화 + 한왕조의 유가적 규범 안에서 부패한 지배계층의 실상과 이민족의 침략에 무기력하게 붕괴된 한왕조에 대한 유교의 권위 실추 + 정신적 혼란과 이데올로기적 공백상태를 야기함으로써 해서 새로운 질서와 구원을 역설하면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이 형성되었다.

■ 위진남북조시대 : 정치적 혼란과 전쟁이 잦음으로 해서 사후 세계에 설득력 있는 설명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리는 일상생활의 파괴로 고통 받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정신적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 수당시대 : 의탁불교(依託佛敎)와 격의불교(格義佛敎) 단계를 거쳐 토착화의 단계로 들

어섬. 천대종(天台宗), 화엄종(華嚴宗), 정토종(淨土宗), 선종(禪宗) 등 수많은 문파를 형성시키면서 중국화된 불교로 발전하였다.

▶ 선종 : 오늘날까지 중국 불교의 가장 큰 줄기가 됨. 선종의 설립으로 불교의 중국화가 가장 고도로 진행되었다.

▶ 시조 - 달마(達磨)

▶ 당왕조 중기 지도자 - 혜능(慧能) : 선종이 본격적으로 중국 불교의 대표가 되었다.

▶ 선종의 사상 : 인도 불교의 추상성과 정신 지향성을 지양하고 대신 현세성과 평상심을 중시하는 중국불교의 특성을 고도로 구현하였다.

■ 불교의 쇠퇴

- 수당 이후 : 정치권력이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채택함으로 해서 영역이 축소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서민들 민간신앙과 종교로 자리 잡은 도교의 벽을 넘지 못했다. 후에 서민들의 민간 신앙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기복 신앙적 측면을 포괄하면서 서민들을 향한 포교에 노력했으나 영역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 도교와 노장 사상(老莊思想)

▶ 한왕조 말기에 처음으로 종교적 모습이었던 도교는 극히 중국적인 종교라 할 수 있다.

서민들에게 가장 널리 수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다.

▶ 도교의 바탕 : 고대의 다양한 민간신앙 + 한왕조 이후의 신선(神仙)사상 + 불로장생술 + 고래의 점복(占卜) + 음양오행설 + 참위설 + 의술 등.

▶ 결과 :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적인 존재들이 무수히 많다 + 시대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게 되었다.

■ 도교가 종교의 모습을 갖춘 시기 : 후한 때.

▶ 왕조 말기 현상이 노정되고 있던 후한 말기에 나타났던 장각(張角)의 태평도(太平道) - 노자를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면서 이상사회의 도래를 예언 형식으로 설파한 <태평경(太平經)>을 도교의 경전으로 제기했다.

▶ 장릉(張陵)의 오두미도(五斗米道)가 도교의 초기 형태임 - 난관에 봉착한 사람이나 중병 환자들도 자신의 만들어 준 부적을 태워 그 물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였다. 후에 종교적 차원에서 정치조직, 군사적 조직으로까지 발전하여 한왕조를 멸망시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면서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위진남북조시대 - 도교는 중국인들의 정신세계 깊숙이 영역을 확장하였으니, 전쟁과 난리가 계속되는 시기에 현실도피하려는 심리는 도교 발전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 대표적인 것으로 갈홍의 <포박자(抱朴子)> : 불로장생을 인간들이 획득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갖가지 약초와 약재, 희귀한 물질, 의약품제조법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고대 중국 자연과학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당송이후 : 꾸준한 발전을 해가며, 시기마다 필요한 경전들을 생산하며 종교적 영역을 넓혀 나갔다.

■ 노장사상 - 무위자연, 양생, 신비론 등에 기대어 종교적 권위를 형성시켰지만 도교는 사실상 노장사상과는 다른 일종의 민간신앙으로 발달해 왔다.

서민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해 왔다.

■ 도교의 활동 - 후한 말기의 황건적의 난, 명의 건국과 관계 깊은 백련교도의 난, 청왕조 말기의 민족주의 운동과 관련 깊은 태평천국, 20세기 초 의화단 등을 주도하였다.

■도교의 기능 - 종교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한을 달래주고 그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는 일종의 심리 치료 장치의 역할을 함. 풍속과 민간연예의 차원에 깊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세계관을 표출해 주는 기능도 하였다.

[핵심 포인트] 중국인의 종교적 심성

중국에서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숭배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 - 사후세계보다 눈앞의 현실로서 존재하는 세속적 현상에 대한 현세적 사고방식, 안정된 노동집약적 농경사회 발달로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단위 농업으로 자연환경의 순응과 가족적 관계 중시라는 문화적 특징, 개성보다 '인(仁)' '덕(德)'의 덕목들을 중시.

나(儼) 문화 - 고대 샤머니즘으로부터 발전, 서민들과 빈민들,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에 살던 사람, 변장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반영.

나문화의 핵심 - 고대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했던 역귀(疫鬼)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몰아내려함. 중국 불교 - 후한 무렵 인도에서 유래, 중국 불교의 특성은 인도의 불교가 중국의 전통사상, 중국의 정치 사회적 조건 등의 영향을 받아 대폭 변화한 결과

위진남북조시대의 불교 - 정치적 혼란과 잦은 전쟁이 있던 중국인들에게 정신적 피난처 제공.

수당시대의 불교 - 의탁불교(依託佛敎)와 격의불교(格義佛敎) 단계를 거쳐 토착화의 단계로 들어섬. 천태종(天台宗), 화엄종(華嚴宗), 정토종(淨土宗), 선종(禪宗) 등 수많은 문파를 형성시키면서 중국화된 불교로 발전.

선종 - 오늘날까지 중국 불교의 가장 큰 줄기. 시조 : 달마(達磨), 혜능(慧能) : 선종의 대표.

선종의 사상 - 인도 불교의 추상성과 정신 지향성을 지양하고 대신 현세성과 평상심을 중시하는 중국 불교의 특성을 고도로 구현하였다.

불교의 쇠퇴 - 수당 이후 : 정치권력이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채택함으로 해서 영역이 축소.

도교와 노장 사상(老莊思想) - 한왕조 말기, 서민들에게 가장 널리 수용.

도교의 바탕 - 고대의 다양한 민간신앙 + 한왕조 이후의 신선(神仙)사상 + 불로장생술 + 고래의 점복(占卜) + 음양오행설 + 참위설 + 의술 등.

위진남북조시대 - 도교는 중국인들이 전쟁과 난리 속에서 현실도피하려는 심리는 도교 발전의 좋은 환경을 제공. 대표적인 것으로 갈홍의 <포박자(抱朴子)>

노장사상 - 무위자연, 양생, 신비론 등, 도교는 사실상 노장사상과는 다른 민간신앙.

제 3절 중국영화의 미학

■ 세계영화와 중국영화

■ 영화의 의의 : 189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만든 이후 영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오락과 예술의 양식으로 성장하였다.

■ 세계영화의 개념 : 세계 각국에서 만든 영화들이 세계 전역에 걸친 유통구조를 따라 유통된다는 뜻.

▶일정한 과학기술 수준과 상당한 자본력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제3세계 국가들은 뒤쳐져서 결국 영화의 관객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지만 영화의 제작은 서유럽 국가들이 주도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 영화의 패권은 할리우드 영화로 유럽영화를 포섭하여 미국의 영역으로 안으로 흡수되었다.

■ 중국영화 : 유럽과 미국의 영화와는 다른 계열로 중국적 특색이 느껴지는 영화라는 일반적 개념 외에 세계 다른 국가들의 영화와는 다른 제작과 유통체제, 미학적 기초,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과 장르를 가지고 발달해 왔다.

▶1896년 세계 최초의 영화가 상영될 정도로 빨리 수입되었으나, 20세기 전반기 동안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영화를 자신들이 오랫동안 즐겨왔던 그림자놀이의 서양적인 형태로 인식하였다.

▶중국에서 영화는 경극, 지방희, 곡예, 가무희의 장면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사후적인 기록 장치 정도로 여겨졌다.

▶1930년대 유성영화 보급 - 과학기술을 활용한 오락의 한 분야로 개설되었다.

■ 중국영화는 경극과 지방희를 비롯한 서민적인 공연예술에 대한 대체 양식으로서의 성격 을 전제로 오락성과 통속성의 추구를 기본적으로 발달해 왔다.

- 초창기의 중국영화 - 대부분 경극 공연장면을 열심히 영화화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 1930년대 - 중국영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상해영화관객은 근대적 산업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중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가난하고 거의 문맹수준의 하층 노동자들이었다. - 이윤 추구를 전제로 영화 제작.
- 1949년 이후 - 강력한 국가권력의 보호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장하던 중국영화의 관객은 인구의 90%를 차지하던 농민들이었다. - 국가사회 구성원들이 농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전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에 참여하게 하고자 중국공산당의 요청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 상해(上海)영화와 좌익영화
- 상해영화 : 1930년대 중국영화사상 황금기.
 - ▶ 이 시기 제작된 중국영화는 거의 다 상해 일대에서 제작되었으며, 관객 또한 상해 일대에 집중적 분포가 되었다.
 - ▶ 장르 - 주로 멜로드라마였으며, 여배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통속성과 오락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구비하였다.
 - ▶ 발전 배경 - 상해는 서구 식민자본이 밀려들면서 남경조약을 비롯하여 불평등조약들이 체결되면서 중국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유럽식 석조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 ▶ 전 세계의 투기자본과 식민자본이 집중된 중국 최대의 근대도시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시민계층을 형성시켜 풍부한 관객을 중국영화에 공급해 주었다.
- 상해영화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영화라는 현대적인 대중매체에 중국 서민들의 정서를 결합시킨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해 내었다.
 - ▶ 특유의 빠른 리듬과 화려한 화면을 통해 상해영화는 현란한 분장과 의상으로 유명한 호극(滬劇)의 분위기를 잘 살려 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 ▶ 상해영화는 좌우의 극한적인 이념적 대립, 4.12쿠데타 이후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 일본의 중국 침략, 대공황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과 불안정 등으로 점철되어있던 1930년대 상해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일생생활의 불안으로 상해 시민들에게 현실을 개혁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 아닌 영화 속에서 안식처를 찾고 싶은 도피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 대표 영화 : 채초생 감독, 완영옥 주연의 《신여성(新女性)》
- 좌익영화 : 1930년대 중국영화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영화다.
 - ▶ 당시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 발언이 영화제작의 큰 동기였다.
 - ▶ 중국의 시대적 과제였던 반외세와 반봉건이라는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나온 것은 좌련(左聯)의 문학평론가들이 제기했던 문예대중화운동(文藝大衆化運動)을 비롯한 좌익 진영의 대중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 ▶ 역사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좌익영화들을 통해 중국영화는 오락물을 넘어서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 좌익영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 : 애국적 정서가 고조되어 있었던 1930년대 초반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상해의 영화계가 파괴되기까지의 기간.
 - ▶ 1930년대 좌익영화는 중국영화 초창기의 모색기를 거쳐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좌익영화를 만들었던 영화인들은 당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과도기적인 가정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민족주의나 멜로 드라마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다.
 - ▶ 대표 영화 - 1934년 제작된 《어광곡》

■ 개혁개방과 새로운 영화의 흐름

▶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중국영화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 이유 : 영화인들 대부분이 수정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혀 고통을 받았다. 극영화는 거의 제작되지 못하고, ‘혁명모범극’이라 불린, 관에 박힌 선전영화와 뉴스영화, 기록영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의 영화들은 제작되지 못하였다. 중국영화인들의 집산지 역할을 했던 북경전영학원, 중국전영가협회, 중국전영출판사 등의 해체.

■ 1978년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사상해방(思想解放)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침이 천명되고 개혁개방의 깃발이 제기된 이후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 개혁개방 초기에 대두했던 상흔문학(傷痕文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인방(四人幫)과 문혁의 암흑상을 고발하는 영화들을 내놓았다.

■ 영화는 억눌려 왔던 중국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당시 가장 대중적 환영과 예술적 성취가 높았던 영화는 대부분 상흔문학이나 반사문학(反思文學)과 같이 문혁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다.

▶ 대표 영화 : 《서광(曙光)》 《누흔(淚痕)》 《허무와 그의 딸들》

■ 1980년 중반 : 개혁개방으로 인해 야기된 중국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중국인들의 정신세계의 변화를 묘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독초라고 비판받았던 중국 현대문학의 문제작들이 이 때 대거 영화화되었다.

■ 제5세대 감독 : 1980년대에 영화제작에 뛰어든 젊은 감독들은 서구 예술영향의 미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감독들로 중국영화의 한계였던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화적 스타일을 제기하며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평론가와 지식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다. - 중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유하였다.

■ 제5세대 감독의 첫 작품 : 1938년 장군조 감독의 《한 개와 여덟 개》

■ 장군조와 함께 문혁이 끝난 뒤 북경전영학원이 새로 문을 연 이후 영화를 공부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영화제작에 뛰어들었던 비슷한 또래의 젊은 감독들을 제5세대 감독이라고 부른다.

▶ 제5세대 대표 감독 : 장군조, 진개가, 장예모, 전장장, 황건신, 오자우, 장택명 등.

■ 《황토지》를 비롯한 제5세대 감독들의 영화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생명력이 넘치는 강력한 색조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풍부한 상징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화면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을 지향한다.

▶ 대담한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롭고 개성적인 영상미학을 추구하고, 상투성을 배격한 영상언어를 모색한다.

■ 제5세대 감독의 영화적 성취

▶ 장예모 : 《붉은 수수밭》 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감독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 강렬한 화면, 예리한 인물 묘사, 풍부한 상징성, 배우 공리(鞏俐)의 부각 등으로 성공함. 즉 제5세대 감독들은 무대를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전으로 후퇴시켜 중국 사회의 현실을 직접 다루는 위험을 피해 나갔다.

▶ 1980년대의 중국적 현실을 즐겨 20세기 전반의 전근대적인 중국적 상황으로 치환시켰으며,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화면과 탐미적인 색채를 통해 중국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표출하였다.

■ 중국 영화의 침체기 : 1990년대 이후

■ 침체 원인

- ▶ 중국공산당이 6.4천안문 사태 이후 문화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 ▶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국가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 철학적 문제로부터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 ▶ 개혁개방의 성과로 경제적 여유가 훨씬 풍요로워짐으로 해서, 정치적 억압과 동반된 경제적 풍요는 중국인들의 관심을 역사와 현실로부터 오락과 유흥으로 바꾸어갔다.
- ▶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컬러TV와 VTR의 보급이 영화관객의 감소를 초래.
- 1990년대 이후 중국영화의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
- ▶ 원인 : 중국공산당의 보수적인 문화정책, 가전제품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관객 감소, 젊은 세대들의 취향 변화, 외국영화와의 힘겨운 경쟁, 정부의 지원 감소 등.
- [핵심 포인트] 영화의 의의 - 189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만들.
- 중국영화 - 유럽과 미국의 영화와는 다른 계열로 중국적 특색이 느껴지는 영화라는 일반적 개념 외에 세계 다른 국가들의 영화와는 다른 제작과 유통체제, 미학적 기초,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과 장르를 가지고 발달.
- 중국영화 - 경극과 지방회를 비롯한 서민적인 공연예술에 대한 대체 양식으로서의 성격을 전제로 오락성과 통속성의 추구를 기본적으로 발달.
- 1930년대 - 중국영화의 황금기 - 이윤 추구를 전제로 영화 제작.
- 1949년 이후 - 새로운 국가의 전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에 참여하게 하고자 중국공산당의 요청을 전제로 만들어짐.
- 상해영화 - 1930년대 중국영화사상 황금기. 장르 : 주로 멜로드라마, 여배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통속성과 오락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구비. 특유의 빠른 리듬과 화려한 화면.
- 대표 영화 - 채초생 감독, 완영옥 주연의 《신여성(新女性)》
- 좌익영화 - 1930년대 중국영화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영화. 당시 현실에 대한 적극적 발언이 영화제작의 큰 동기. 역사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 좌익영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 : 애국적 정서가 고조되어 있었던 1930년대 초반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상해의 영화계가 파괴되기까지의 기간.
- 대표 영화 - 1934년 제작된 《어광곡》
- 제5세대 감독 - 1980년대에 젊은 감독들, 중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함유.
- 제5세대 감독의 첫 작품 - 1938년 장군조 감독의 《한 개와 여덟 개》
- 장예모 - 감독의 선두 주자로 《붉은 수수밭》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
- 중국 영화의 침체기 : 1990년대 이후, 6.4천안문 사태 이후 문화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제 4절 현대중국의 도서출판

- 도서출판의 발달과정
- ▶ 중국에서의 출판 :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적 영역은 그 다음이다.
- ▶ 중당(中唐)시기 이후 : 목판인쇄의 보편화로 선장본(線裝本)이 나온 이후 중국에서는 도서출판이 일찍이 상업화되었다.
- 1930년대 : 근대적인 산업도시였던 상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출판업은 신문, 정기간행물, 영화 등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매체복제산업의 일부로서 발전하여,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다.
- ▶ 기획, 제작, 유통, 설비의 제반 부문에 걸쳐 서구와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나름대로 독자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자본주의적 체제에 바탕을 둔 중국 출판업의 역사가 마감되고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하여 출판의 전 부문을 철저하게 재편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출판업 재편성의 주된 방향은 출판사의 국유화, 신화서점(新華書店)을 중심축으로 한 출판사와 서점의 수직적인 계열화, 당정조직을 정점으로 한 통제체제 구축 등.
- 건국 이후 출판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영역으로서 규정되었고 경제적 측면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출판은 주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치적 사업이었고, 주된 기능은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선전수단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었기 때문이다.

▶ 출판 도서는 저가 공급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전국 각지의 신화서점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많은 분량이 각급 당조직과 정부조직을 통해 무상으로 배급되었다.

■ 1980년대 ~ 1990년대 이후 : 출판업은 경제적인 측면인 시장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갔다.

- 신화서점은 아직도 발행과 유통의 전부분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재산성의 악화와 함께 점차 장악력이 약화되어갔다. 그러나 출판부문에 대한 정치적 통제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출판업의 근간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 개혁개방과 출판부문 개혁

▶ 건국 이후 중국의 출판부문은 정치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음. 출판부문은 이익의 최소화과 정치적 선전과 교육의 장치였다.

▶ 개혁개방 이후 :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다른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의 결정을 출판사가 스스로 내리도록 요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출판시스템의 발전은 대체로 정치권력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방식이다. 1984년 도서정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대폭 확대하고 정가 산정 기준에 유통성을 부여하여 출판부문의 시장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 1980년대 이후 유통과 판매의 자유로운 인정, 도서도매업 허용, 출판 관련기업 설립요건 완화 등 자본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출판시스템 도입을 대부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 1989년 6.4천안문사태 이후 서적의 유통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천명하였다.

■ 불법서적의 유통금지, 외국서적 불법 수입 및 판매의 금지, 당정 내부 문건의 임의 유통 금지, 서호(書號)와 간호(刊號)의 매매 및 대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집체, 개체, 사영서점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의 발표 직후 당시 존재하고 있던 모든 출판사의 설립허가를 무효화하고 전국의 모든 출판사들이 다시 설립허가절차를 받도록 하는 등 출판시스템의 다원화와 시장화는 허용하되 정치적 한계는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불법적인 출판활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 1990년대 이후 각종 정치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의 출판사들이 도서출판 자체가 사양 산업화하는 시대적 추세를 극복하고 활로를 개척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정치적 통제와 검열

▶ 중국에는 1991년 제정된 저작권법이 유일한 출판 관련 법률이다.

▶ 중국공산당은 표면적으로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항상 언급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제화를 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유 : 법적 수단에 의한 통제보다 법률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조치에 의한 통제가 출판 시스템 통제에 훨씬 효율적이라 중국공산당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개혁개방 이후 : 중국공산당은 출판을 여전히 우선적으로 선전과 교육이라는 정치적 영역에 소속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함. 출판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통제를 위한 필요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 1990년대 : 출판부문에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서적인쇄나 서적판매는 가 능하나 출판사 설립은 불가능하다. 즉, 출판사는 국가기관이 직접 설립하거나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집체기업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의 이름을 바꾸거나 주요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규설립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 <출판관리조례> : 출판물이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국가의 안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정, 명예, 이익 등에 대한 저해라든가 민족분열에 대한 언급,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등과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항목들을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 건국 이후 지속되어 온 중국공산당의 지식인 격하정책, 1950년대 이후 단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동적 지식인에 대한 숙청,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통제에 대한 집필자들의 자발적이고 포기적인 자기검열이라는 메커니즘 형성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 1990년대 이후 작가협회에 등록하여 전업 작가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얻지 않고 개인적 집필자로서 활동하는 자유 작가의 등장, 지하출판물의 증대, 번역서 출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기검열이라는 관행에 대한 도전과 일탈이 다양하게 시도는 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통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 출판환경의 변화 - 출판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

■ 부정적 측면

▶ 독자층의 변화 : 도시 거주민, 특히 학생들과 젊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출판물의 주요 소비자이다.

▶ 새로운 매체의 발달이 출판 영역을 위축시킴 : 1980년대의 컬러TV와 가정용 음향기기의 발달, 1990년대 이후의 PC와 인터넷의 보급 등.

■ 긍정적 측면

▶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 5일제 노동이 보편화되어가면서 여유시간이 생겼다.

■ 1990년대 이후 서구의 대중문화는 정치권력의 통제, 언어 장벽, 문화 습속의 차이 등의 요인들로 그다지 중국 젊은이들에게 유포되지 못한 반면, 홍콩, 대만문화대만문화(Gǎng Tái culture)는 중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번짐으로 해서 중국의 출판문화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핵심 포인트]

중국에서의 출판 -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적 영역은 그 다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하여 출판의 전 부문을 철저히 재편성. 출판업 재편성의 주된 방향 - 출판사의 국유화, 신화서점(新華書店)을 중심으로 한 출판사와 서점의 수직적인 계열화, 당정조직을 정점으로 한 통제체제 구축 등. 정책에 대한 선전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1980년대 ~ 1990년대 이후 - 출판업은 경제적인 측면인 시장체제 속으로 편입. 출판부문에 대한 정치적 통제체제 계속 유지, 중국공산당은 출판업의 근간을 여전히 장악.

개혁개방 이후 -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다른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의 결정을 출판사가 스스로 내리도록 요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스스로 책임질 것 요구.

1989년 6.4천안문사태 이후 서적의 유통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천명.

1990년대 - 출판부문에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금지, 서적인쇄나 서적판매는 가능하나 출판사 설립은 불가능.

제7장 문학과 예술의 전통

제 1절 고전문학의 전통

■ 중국문학의 발달배경

▶ 중국이라는 관념에 걸맞는 거대 국가가 나타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건국된 진(秦)과 한(漢)왕조 이후이다. 중국인들은 한왕조 이전에도 삼대(三代)라고 해서 하(夏), 상(商), 주(周)라는 왕조가 있었다고 하나, 이들 나라들은 조그마한 고대 왕국이었다.

▶ 다양한 지역과 민족을 물리적으로 통합시켰던 한왕조는 초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를 보면 한왕조 이전의 역사를 10년이 넘는 현장답사 등을 기초로 하여 정교하게 재구성하였다. 황제

(黃帝)라는 전설적인 인물로부터 『사기』는 표면상 역사서의 틀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학서에 가까움. 한왕조의 제왕들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로 인해 『사기』는 처음 나왔을 때는 금서(禁書)가 되기도 하였으나, 훗날 한왕조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고의 텍스트로 높이 받아들여졌다. 역대 왕조들이 『사기』의 체제를 본받아 이른바 ‘정사(正史)’의 편찬에 나섰다.

▶ 한족(漢族)이 발달시켜 온 정통사상이라고 주장되어 온 유교는 실상은 지배계층 내부에서만 적극적 수용이 있었을 뿐, 서민들은 도교와 불교에 훨씬 적극적이었다.

■ 중국문학의 주류를 형성해 온 한족 중심의 문학적 전통도 **황하 유역과 양자강 유역**의 두 지역이 대표한다.

『시경(詩經)』과 『초사(楚辭)』

■ 『시경(詩經)』

▶ 발생 장소 : 황하 유역의 **북방문학**

▶ 형태의 차이 : 짝수 리듬과 반복적인 구법(句法)

▶ 담은 내용 : 사건과 사실을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현실주의 관점.

내용 중시의 문학적 관념. 문학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중시.

집단성과 사회윤리의 강조 등 강한 유교적 색채

■ 『초사(楚辭)』

▶ 발생 장소 : 양자강 유역의 **남방문학**

▶ 형태의 차이 : 유려한 3박자 리듬과 탐미적인 스타일

▶ 담은 내용 : 유가적 형식주의에 대한 반감.

집단성에 대한 회의와 개인성에 대한 강조, 낭만주의적 경향.

▶ 이후 외래 종교인 불교의 영향이라는 중국의 문학적 전통 발달과정에 개입하여 중국문학은 추상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형이상학적 우주관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 한시(漢詩)의 미학

- 시(詩) : 중국 전통문학양식 중 가장 높은 성취를 거둔 문학 장르.

■ 시가 발달하게 된 이유

▶ 상형문자적 특성으로 인해 풍부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다른 언어보다 훨씬 앞섰다.

▶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뜻과 소리가 일 대 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정형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 각 글자들이 성조(聲調)라고 하는 특유의 발음형태를 갖고 있어서 낭송의 리듬이 매우 뛰어나다.

■ 중국 전통문학에 나타나는 시

■ 주왕조 때의 고대시가를 대표하는 『시경』에 수록된 시.

- 「물수리(關雎)」는 『시경』에 수록된 시 가운데 민간 가요적 성격이 가장 강한 ‘국풍(國風)’의 대표적 작품임. 소박하고 건강한 고대 농경사회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 한왕조 때 형성되었던 악부시(樂府詩)

- 『시경』 계통의 고대 민가와 남방문학을 대표하는 『초사』 계열의 남방적인 고대 민가의 흐름이 주로 북방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된 결과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민가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어가 평이하고, 시상의 전개가 분명하며, 노래의 가사라는 성격에서 비롯된 음악적인 리듬이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문행(東門行)」은

한왕조 말기 어지러운 사회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 위진남북조시대에 형성되었던 고시(古詩)

- ▶ 악부시의 한 계열이 5글자 혹은 7글자를 한 구절로 정형화되고 발전한 것이 고시(古詩)이다.
- ▶ 위진시대 이후 형태도 정형시로 바뀌고, 주제나 분위기도 세련된 상류계층을 대상으로 한 운문으로 발전하였다. 이전 민가나 악부시가 가지고 있던 노래의 가사라는 성격은 사라지고 완전히 눈으로 읽는 문학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고시는 조식(曹植), 도잠(陶潛), 사령운(謝靈運)과 같은 뛰어난 문인들의 손을 거쳐 표현역량이 고도로 발전하였다.

■ 당송 시기에 완성되었던 근체시(近體詩)

- ▶ 도로 발전했던 고시의 한 계열이 더욱 정형화되고 세련되게 가다듬어져 당(唐)왕조에 들어와 근체시로 발전하였다.
- ▶ 근체시의 형태 : 율시(5언 율시, 7언 율시), 절구(5언 절구, 7언 절구), 배율(排律 - 율시의 형태를 중복시켜 시를 길게 늘이는 방법)

■ 근체시는 중국의 상류계층이 발전시킨 문학양식들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정교한 양식으로서 중국의 고전문학 전체를 대표한다.

▶ 근체시를 완성시킨 시인 : 시성(詩聖) 두보(杜甫), 시선(詩仙) 이백(李白), 왕유(王維), 한유(韓愈), 백거이(白居易), 이상은(李商隱) 등

▶ 「추흥(秋興)」 : 근체시의 격률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는 두보의 칠언율시 연작시

■ 근체시 : 한자로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운문형태로 평측법과 압운법, 기승전결과 대우(對偶) 등 시상을 드러내는 독특한 구성방식이 규정되었다.

■ 고문과 변려문

■ 고문(古文) : 당송 시기 산문을 주도했던 문체

- ▶ 고문은 주공, 공자, 맹자 등의 고대 유가사상가들의 글과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을 비롯한 당송 시기 유가사대부들의 글을 모범으로 삼은 산문의 한 문체이다.
- ▶ 형태 : 유교의 주요한 경전이나 대표적인 유가사상들의 글을 모범 삼았다.
- ▶ 고문이 뚜렷한 성격을 갖춘 산문 문체로서 형성된 것은 당왕조 후기에 활동했던 한유에 이르러서이다.

■ 고문운동

- ▶ 제창자 : 한유
- ▶ 지지기반 : 고문은 당왕실과 왕실의 지원 아래 중앙정부로 진입하여 관료고서 왕에게 봉사하고 있던 신진사대부. ▶ 유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 ▶ 시민계층과 중소 지주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맥락에 입각해 있었다.

■ 고시와 변려문은 유교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불교나 노장사상과 같은 비유가적 사상체계와 관련이 깊다.

▶ 지지기반 : 각 지역의 문벌귀족과 문벌 막하의 기득권계층.

▶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 변려문의 특징 : 한왕조 때에 성행했던 궁정문학양식인 부(賦)에 기원을 둔 변려문은 화려하고 수사적인 문체였으며, 4자 구와 6자 구를 번갈아 쓰고 대구와 전고(典故)를 풍부하게 활용하였다.

▶ 변려문은 변문, 사륙문, 사륙변려문 등으로도 불린다.

▶ 조정에서 작성되던 공문서나 각종 의사소통의 문건도 대부분 변려문으로 쓰였다.

▶ 대표작품 : 서릉(徐陵)의 「옥대신영서(玉臺新詠序)」

■ 고문운동 : 당시 보편화 되었던 변려문에 대해 그 수사적이고 허식적인 틀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과 의미의 명확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문체라고 지적하고 대신 고대 유가사상가들의 자유롭고 격렬에 구속되지 않는 산문 문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한유가 문체를 제기한 운동.

■ 고문운동의 내용

▶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 문장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문학운동이면서 동시에 유교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외래사상인 불교가 누리고 있던 위치를 되찾으려는 사상운동의 차원을 함유.

▶ 지배계층의 위치를 장악한 각지의 지역 세력인 문벌귀족에 대항하여 새롭게 중앙정부의 무대로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제기한 정치적 운동의 취지를 가진다.

▶ 문벌귀족들의 특유의 문학 활동을 이루고 있던 변려문이 형식미의 추구에 흘러 주제를 명료하게 표현해 내는 산문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일어났다.

▶ 고문운동의 대표 : 한유, 유중원, 백거이 등.

▶ 결과 : 유교를 부흥시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송왕조의 건국과 함께 고문은 왕실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산문의 주류 자리를 차지하였다.

송대의 대표 : 구양수, 소식, 왕안석 등 - 고문이 지배적인 위치를 장악하게 하였다.

주돈이, 주희 - 고문의 원류를 이루는 유교경전이 확고하게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추앙되어 절대적인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다.

■ 송왕조 시기 유학자들이 제기한 성리학(性理學)이 청왕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지배 이데올로기 및 종교의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고문은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 사서(四書) :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 오경(五經) : 『시경(詩經)』 『서경(西經)』 『주역(周易)』 『춘추(春秋)』 『예기(禮記)』

■ 십삼경(十三經) : 사서 + 오경 + 『주례(周禮)』 『의례(儀禮)』 『효경(孝經)』 『이아(爾雅)』

[핵심 포인트]

유교 - 지배계층에서 적극적 수용. 도교 불교 - 서민들이 적극적.

『시경(詩經)』

발생 장소 - 황하 유역의 북방문학 형태 - 짝수 리듬과 반복적인 구법(句法)

답은 내용 - 사건과 사실을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현실주의 관점. 내용 중시의 문학적 관념. 문학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중시. 집단성과 사회윤리의 강조 등 강한 유교적 색채

『초사(楚辭)』

발생 장소 - 양자강 유역의 남방문학 형태 - 유려한 3박자 리듬과 탐미적인 스타일

답은 내용 - 유가적 형식주의에 대한 반감. 집단성에 대한 회의와 개인성에 대한 강조, 낭만주의적 경향.

한시(漢詩)의 미학

시(詩) - 중국 전통문학양식 중 가장 높은 성취를 거둔 문학 장르.

한왕조 때 형성되었던 악부시(樂府詩) - 「동문행(東門行)」은 한왕조 말기 어지러운 사회상을 노래한 작품.

위진남북조시대에 형성되었던 고시(古詩) - 악부시의 한 계열이 5글자, 7글자를 한 구절로 정형화 발전한 것이 고시(古詩) - 완전히 눈으로 읽는 문학양식으로 발전.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고시는 조식(曹植), 도잠(陶潛), 사령운(謝靈運)과 같은 뛰어난 문인들로 인해 고도로 발전.

당송 시기에 완성되었던 근체시(近體詩) - 고시의 한 계열이 더욱 정형화, 세련되어져 당(唐)왕조에 들어와 근체시로 발전.

근체시의 형태 - 율시(5언 율시, 7언 율시), 절구(5언 절구, 7언 절구), 배율(排律 - 율시의 형태를 중복시켜 시를 길게 늘이는 방법) : 상류계층이 발전시킨 세련된 고전문학 전체 대표.

근체시를 완성시킨 시인 - 시성(詩聖) 두보(杜甫), 시선(詩仙) 이백(李白), 왕유(王維), 한유(韓愈), 백거이(白居易), 이상은(李商隱) 등

「추흥(秋興)」 - 근체시의 격렬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는 두보의 칠언율시 연작시

근체시의 형식 - 한자로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운문형태로 평측법과 압운법, 기승전결과 대우(對偶)

등 시상을 드러내는 독특한 구성방식이 규정되었다.

고문(古文) - 당송 시기 산문을 주도했던 문체,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이 대표.

형태 - 유교의 주요한 경전이나 대표적인 유가사상들의 글을 모범 삼았다.

고문운동 제창자 - 한유

지지기반 - 각 지역의 문벌귀족과 문벌 막하의 기득권계층

고문운동 - 당시 변려문의 수사적 허식적인 틀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과 의미의 명확한 전달이 제대로 없어서, 고대 유가사상가들의 자유롭고 격렬에 구속되지 않는 산문 문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한 유가 문체를 제기한 운동.

고문운동의 대표 - 한유, 유종원, 백거이 등.

결과 - 유교 부흥, 송왕조 왕실의 강력한 지원으로 하여 산문의 주류 자리를 차지.

송대의 대표 - 구양수, 소식, 왕안석 등 : 고문이 지배적인 위치를 장악.

주돈이, 주희 - 고문의 원류인 유교경전이 확고하게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추앙되어 절대적인 위치로 올라서게 만들.

제 2절 현대문학의 발달

1. 현대문학과 당대(唐代) 문학

■ 중국의 현대문학

▶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혹은 1919년 5.4운동을 시작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5.4운동을 현대의 기점으로 생각하였다.

▶ 5.4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은 구어체 백화문을 문학 언어로 하여 서구문학의 틀을 채용한 새로운 문학이 구문학을 누르고 문학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현대문학의 출발로 인정한다.

■ 당대문학(當代文學)

중국 정부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문학에 대해서 쓰는 말.

이른바 사회주의 문학이 과거부터 존재해 온 다른 형태의 문학을 압도하고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의미이다.

■ 신시기 문학(新時期文學) : 1978년 이후

▶ 개혁개방이 천명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기간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국은 비로소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개방적인 사회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본다.

▶ 이전 시기의 엄격한 사회주의적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시기의 문학을 일컫는다.

■ 20세기 중국문학 : 근대문학, 현대문학, 당대문학 전체를 포괄해서 이르는 말.

- 개념 : 정치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문학의 변화와 연결시키려 한 기존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학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를 넘어서 중국 현대문학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표면적인 변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내적인 연속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핵심 포인트]

중국의 현대문학 - 1919년 5.4운동을 기점으로 생각.

5.4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은 구어체 백화문을 문학언어로 하여 서구문학의 틀을 채용한 새로운 문학이 구문학을 누르고 문학의 주도권을 잡 현대문학의 출발로 인정.

당대문학(當代文學) - 중국 정부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문학에 대해서 쓰는 말.

사회주의 문학이 과거의 다른 형태의 문학을 압도하고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의미.

신시기 문학(新時期文學) - 개혁개방 천명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기간,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방적인 사회체제가 등장.

20세기 중국문학 - 근대문학, 현대문학, 당대문학 전체를 포괄해서 이르는 말.

2. 문학혁명과 혁명문학

■ 문학혁명 : 5.4운동을 전후하여 근대적인 문인과 지식인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문학적 운동으로서, 봉건적인 구문학을 타파하고 서구문학의 틀을 채용하며 구어체 백화문을 문학 언어로 하는 새로운 문학을 제기한 일련의 문학적 움직임을 말한다.

현대문학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20년대 후반 혁명문학이 제기되기 전까지의 약 10년 동안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

▶ 문학혁명 시기의 문인들의 태도 :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우국적 정열에 바탕을 둔다.

▶ <신청년>의 창간 :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아래서도 의욕적으로 신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간 것으로, 신문화 운동은 과학과 민주주의의 보급을 위한 신사상운동과 구어체 백화문으로 새로운 문학작품을 쓸 것을 주장한 신문학 운동을 양대 방향으로 삼았다.

▶ 진정한 현대문학의 시작을 알린 글인, 노신의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를 <신청년> 잡지에 실음으로 해서 명실공히 문학혁명 선도 잡지로 이름을 떨쳤다.

▶ 1919년 북경의 학생시위로부터 비롯된 5.4운동은 <신청년>이 주도하던 문학혁명을 문학사의 전면에서 부각시킴. 수많은 문학단체가 조직되었으며 백화문으로 된 신문과 잡지가 속속 창간됨. 5.4운동은 백화문을 전국적으로 보급시켰으며, 문학혁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이다.

<신청년> : 문학혁명의 중심점이 된 운동이다. 북경대 문과대 학장이었던 진독수가 주관하고 <신청년>을 통해 신문화운동, 신사상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후에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고 총서기를 맡기도 하였다. 1917년 문학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호적의 “문학개량추이”가 발표되었다.

■ 혁명문학 : 1920년대 후반에 대두하여 1930년대에 걸쳐 좌익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것으로 혁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문학이라는 뜻이다.

- 혁명문학은 중국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탐구되어온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당시의 급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좌익문인들의 주장이다.

■ 혁명문학이 빠른 시간 내에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배경

▶ 5.4운동과 그 뒤를 이은 북벌의 성공으로 인해 고조된 혁명의 분위기

▶ 공산당에게 가해진 국민당의 탄압과 비판세력을 좌익세력으로 규정한 국민당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

▶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이후 등장한 소련의 우호적인 대중국정책이 야기한 소련에 대한 긍정적 여론 등.

■ 혁명문학을 제기한 젊은 지식인들은 일본과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인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소박한 차원에 머물러 있던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논의를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 공산당과 진보적 세력에 대한 억압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역설적으로 애초에 공산당과 좌익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혁명문학론은 문학예술계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국민당이 동원한 여러 무리한 억압적 폭력적 조치들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사서 좌익이념이 확산되는 좋은 배경이 되었다.

▶ 국민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혁명문학의 주장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서 반국민장적 정서와 여론에 힘입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기여하는 문학이라는 혁명문학의 논리는 1930년대 이후 점차 힘을 얻어갔다.

■ 국내적 요인 외에 러시아혁명이 제3세계 국가의 지식인들 사이에 새로운 변혁의 모델로 부상한 것은 혁명문학의 주장이 확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핵심 포인트]

문학혁명 - 5.4운동 전후, 근대적 문인과 지식인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문학적 운동, 봉건적인 구문학을 타파하고 서구문학의 틀을 채용하며 구어체 백화문을 문학언어로 하는 새로운 문학을 제정한 일련의 문학적 움직임.

<신청년>의 창간 - 신문화 운동은 과학과 민주주의의 보급을 위한 신사상운동과 구어체 백화문으로 새로운 문학작품을 쓸 것을 주장한 신문학 운동을 양대 방향으로 삼음. 노신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를 <신청년> 잡지에 실음으로 해서 명실공히 문학혁명 선도 잡지가 됨.

5.4운동 - 백화문 전국적 보급, 문학혁명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

혁명문학 - 1920년대 후반 대두 1930년대에 걸쳐 좌익 작가들이 혁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문학.

3. 사회주의 현실주의

■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1940년대에 중국공산당에 의해 제기된 이후 1970년대 후반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중국의 문학과 예술을 규정하는 최고의 강령이 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1943년 10월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주석 모택동 명의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 그 기초를 둔다.

▶ 「연안강화」라 줄여 부르는 이 글은 문학 활동과 문화활동 전반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이었음. 이전까지 혁명문학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 「연안강화」의 중요한 대목

▶ 우리 문예는 인민대중, 즉 노동자, 농민, 병사, 도시 소자산계급을 위한 것이다.

▶ 문예는 대다수 글을 모르는 인민들에게 문화를 알게 교육시키는 봉사를 하여야 한다.

▶ 문예계 통일전선은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하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 문예비평의 기준은 정치적 기준이 우선이고 예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무산계급문학에는 오직 광명에 대한 묘사만이 있어야 하므로, 폭로문학을 쓰는 자는 인민의 적이다.

▶ 유심론, 교조주의, 공허한 상상, 공허한 논리로 실천을 경시하고 군중들로부터 이탈하려는 결점을 보이는 이들을 위해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 중국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고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따르게 하여 혁명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한다는 비교적 단일한 주제를 지향하였다.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혁명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중적이고 간명한 선전과 계몽활동이었다.

■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정치적 실용성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농민과 노동자들 사이에 유포시키고 혁명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켜 공산당에 협조하게 한다는 대중성과 선전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사회주의 현실주의 - 중국의 문학과 예술을 규정하는 최고의 강령. 1943년 10월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주석 모택동 명의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 그 기초.

「연안강화」라 줄여 부르는 이 글은 문학활동과 문화활동 전반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

「연안강화」의 중요한 대목 - 문예는 인민대중을 위한 것, 문예는 글을 모르는 인민들에게 문화를 알게 교육시키는 봉사해야,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하도록 통일, 문예비평의 기준은 정치적 기준이 우선이고 예술적 기준은 다음,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혁명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중적이고 간명한 선전과 계몽활동.

4. 개혁개방 이후의 새로운 문학적 조류

■ 1976년 모택동의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마감되었다.

■ 1979년 10월에 개최된 제4차 문학예술대표자대회 [文代會]에서는 새로운 문학의 출발이 공산당에 의해 공인되었다.

■ 문혁기간동안 탄압 받았던 지식인과 문인, 예술가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문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 특히 상흔문학(傷痕文學)을 필두로 한 새로운 문학적 조류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공인 받았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

■ 상흔문학 : 신시기 문학을 선도하였다. 1978년 신진작가 노신화의 단편소설 「상흔(傷痕)」에서 명칭이 비롯된 상흔문학은 문혁을 암흑과 재난의 시기로 간주하고 문혁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입었던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 상흔문학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정받고 그에 힘입어 널리 확산되었던 계기는 1978년 말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은 공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상흔문학도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 1979년 ‘북경의 봄’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상해방과 자유화의 분위기가 넘쳤던 때이다. 문혁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작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으며, 주로 소설을 통해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상흔문학작품들은 당시 중국인들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상흔문학의 물결을 타고 문혁기간 동안 정간 당했던 잡지들이 뒤이어 복간되었고, 수많은 문학단체들이 결성되었다.

▶ 문혁기간 동안 독초라고 비판받았던 작품들과 지하에서 유포되었던 작품들도 공개적으로 출판되었다.

▶ 1980년대 이후 상흔문학은 문혁의 고통에 대한 호소와 문혁을 주도한 사인방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극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할 수 있었던 중국의 현실과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는 보다 심화된 주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 1930년 무렵 여러 서구 문학적 조류들이 함께 중국에 유입되어 젊은 문인들에게 환영받았던 현대주의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애국주의와 전투적인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중국 현대문학의 주류를 형성함에 따라 퇴조할 수밖에 없었다.

■ 1978년 북경에서 창간된 지하잡지 <오늘 [今天]>과 함께 저항과 실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문학의 전면에 복귀한 현대주의는, 이후 몽롱시(朦朧詩) 논쟁을 통해 중국 현대문학의 주류에 도전하는 아방가르드로서 부가되었다.

■ <오늘>에 호응하여 모여들었던 현대주의를 수용한 젊은 문인들은 서구적 감각과 이론으로 무장하였으며, 반항과 부정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 사회의 전근대성과 억압적 체제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 그들 가운데 급진적인 일부 문인들도 등소평 체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문혁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공산당과 정부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을 겨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1980년대 중반 중국의 현대주의는 1984년 중국공산당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자유화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정치적 자유화는 엄격하게 유보 또는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치적 노선을 천명하였다.

■ 1989년의 6.4천안문사태는 현대주의 내리막길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6.4천안문사태 이후 중국공산당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하였으며, 현대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학생운동과 지식인운동을 범죄로 규정하여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경직된 시대 상황에 직면하여 현대주의는 위축되고, 정치적 억압에 의해 현대주의 본래의 합의 발휘는 불가능해졌다.

▶ 대표 詩 : 북도의 「회답(回答)」

[핵심 포인트]

1976년 모택동의 사망 - 문화대혁명 마감.

상흔문학 - 신시기문학 선도. 1978년 신진작가 노신화의 단편소설 「상흔(傷痕)」에서 명칭유래. 상흔 문학 - 문혁을 암흑과 재난의 시기로 간주하고 문혁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입었던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1978년 북경에서 창간된 지하잡지 <오늘 [今天]> - 서구적 감각과 이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반항과 부정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 사회의 전근대성과 억압적 체제에 대해 맹렬히 비판.

1980년대 중반 현대주의 - 1984년 중국공산당이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자유화는 광범위 허용, 정치적 자유화 엄격하게 유보 또는 제한.

1989년 6.4천안문사태 - 현대주의 내리막길의 결정적인 분기점.

6.4천안문사태 이후 - 중국공산당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 현대주의의 기반이던 학생운동과 지식인 운동을 범죄로 규정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

대표 詩 : 북도의 「회답(回答)」

제 3절 경극(京劇)과 공연예술

■ 경극의 형성

▶ 경극 : 북경의 연극이라는 뜻.

▶ 원형 : 남쪽 안휘성 출신의 극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20세기 이후 경극은 중국 전역에 퍼짐. 서양에는 ‘북경오페라’로 소개가 되었다. 대만에서는 ‘국극(國劇)’이라 한다.

■ 경극 : 청제국의 마지막 전성기로서 청왕조가 가장 넓은 판도를 확보하고 통치체제도 안정되어 있었던 건륭(建隆)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건륭제는 왕조에 비판적인 문인과 학자를 탄압하였지만, 『사고전서(四庫全書)』 『황조통지(皇朝通志)』 편찬과 같은 학술진흥책을 펴기도 하였다. 청왕조는 소설과 평서(評書)를 금지하는 보수적인 조칙을 내리기도 했으나, 소설과 희곡이 주도하는 민간문예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번성하기도 하였다. - 『유림외사(儒林外史)』 『홍루몽(紅樓夢)』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 『삼협오의(三俠五義)』 등. 북경에서 희곡관람이 문화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기도 한 시기이다.

■ 북경에서 가장 성행했던 희곡 : 곤곡(崑曲)과 경강(京腔)

■ 건륭 연간에 이르러 지방희(地方戲)가 북경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 지방희를 ‘화부(花部)’, 곤곡을 ‘아부(雅部)’라 한다.

■ 경극 : 당시 지방희였던, 휘극, 한희, 곤곡, 진강, 경강 등이 종합되어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민간의 속곡(俗曲)도 일부 흡수하였다.

■ 당시 각지의 극단이 북경으로 들어온 경로

▶ 건륭제의 남순 과정에서 뛰어난 공연을 보여서 발탁되어 들어오는 길.

▶ 지방의 관리들이 매년 황제와 황후의 생일을 축하 명목으로 극단을 조직하여 북경으로 보낼 때 발탁되었다가 북경에서 호평을 받고 머무르는 길.

예) 18세기 말 양주(揚州)의 소금 상인 강학정이 건륭제의 80회 생일 축하를 위해 ‘삼경반(三慶班)’을 조직하여 북경으로 보냈는데, 북경 공연에서 호평을 받은 삼경반은 북경에 머무르며 민간 극장에서 공연을 벌이면서 인기를 끌었다.

■ 경극은 4대 휘반(삼경, 사회, 화춘, 춘대반)의 레퍼토리가 북경이라는 북방 무대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 삼경반이 인기를 끈 이유 : 음악적 우수성, 레퍼토리의 다양성 때문이다.

▶ 19세기 초반 청왕조는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지방희들을 수용하였다. 한편 청왕조는 이전까

지 남부에서 활동하던 각지의 학생과 예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예인들 상당수가 민간극단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궁정 위주로 발달하던 경극은 민간극단으로 무대를 옮겨가 훨씬 자유롭고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서태후는 딱딱한 궁중극을 싫어하여 민간 배우들을 불러 상연하도록 하였다고 전해진다.

[핵심 포인트]

경극의 형성

경극 - 북경의 연극이란 뜻.

원형 - 20세기 이후 경극은 중국 전역, 서양에는 ‘북경오페라’로 소개. 대만- 국극(國劇)이라 함.

경극 - 청왕조의 통치체제 안정기였던 건륭(建隆)부터 형성되기 시작.

청왕조 - 소설과 평서(評書) 금지, 소설과 희곡이 주도하는 민간문예 번성.

대표작 - 『유림외사(儒林外史)』 『홍루몽(紅樓夢)』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 『삼협오의(三俠五義)』 등.

북경에서 가장 성행했던 희곡 - 곤곡(崑曲)과 경강(京腔)

2. 극장과 무대

■ 무대의 구성 방식

▶ 액자무대 : 무대가 객석과 한 면에서만 접촉하는 무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TV를 보는 것과 같다.

▶ 돌출무대 : 사면 또는 삼면이 객석으로 둘러싸이고 무대와 객석이 공간적으로 동일한 차원에 속하는 무대 구성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 : 배우와 관객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

▶ 단점 : 무대 위에 사실적인 배경이나 도구를 놓을 수가 없다.

▶ 중국의 희대는 삼면이 관객에게 열려있으므로 무대를 극의 세계로 바꾸는 능력은 오로지 배우의 연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희곡의 연기, 도구, 분장, 의상 등 매우 비사실적이며 상징적인 것들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 돌출무대 방식은 무엇보다도 극적 환상을 조성하지 않고 다만 배우들에게 연기의 장소만을 제공하였다. 극양식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송원 시기부터 중국 희곡의 무대는 돌출 무대였다.

▶ 송원 시기 : 구란(句欄)이라 불렀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완전치 못한 무대.

▶ 청왕조 시기 : 주관(酒館) 또는 차원(茶園)이라는 상업적 극장이 나타났다. 현대의 극장식 식당을 연상시키면 이해가 빠르다. 신식 희곡극장이 지어진 것은 신해혁명 전야 희곡개량운동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 난심극장이 중국 희곡의 관중과 희곡계에 알려지고 서구의 근대 극장설비를 수용하여 중국 희곡을 개량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던 때였다.

[핵심 포인트]

액자무대 - 무대가 객석과 한 면에서만 접촉하는 무대.

돌출무대 - 사면 또는 삼면이 객석으로 둘러싸이고 무대와 객석이 공간적으로 동일한 차원에 속하는 무대. 장점 : 배우와 관객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 단점 : 무대 위에 사실적인 배경이나 도구를 놓을 수가 없음. 송원 시기부터 중국 희곡의 무대는 돌출 무대.

청왕조 시기 : 주관(酒館) 또는 차원(茶園)이라는 상업적 극장 출현.

3. 연기수단과 상연체제

■ 경극도 다른 문화권의 극양식처럼 다양한 요소와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 중 대표가 음악, 특히 배우들의 노래이다.

■ 음악 연주 : 중국 희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 기본요소의 바탕 위에 노래 - 창(唱), 대사 - 념(念), 동작 - 주(做), 무술 - 타(打)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라는 네 가지 수단으로 연기를 펼친다.

■ 경극을 비롯한 중국 희곡은 그 양식을 막론하고 수십 곡에서 수백 곡의 노래로 구성된다.

■ 희곡의 성악 곡조의 종류

▶ 곡패연투체(曲牌聯套體) : 곡조가 정해져 있어서 희곡이 바뀌더라도 곡조가 같은 노래가 많이 나오고 그 경우 가사만 바뀌게 되는 것으로, 오래된 극양식들이 이 방법을 취한다.

▶ 판식변화체(板式變化體) :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곡조의 장단만 지정되어 있고 선율은 배우의 역량에 맡겨진다. 경극을 비롯한 청왕조에 유행한 대부분의 지방희가 취하는 방식이다.

■ 연기수단 : 음악과 함께 중국 희곡에서 배우의 몸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연기를 말한다.

중국희곡 특유의 연극술을 개발하여 배우들의 화려한 의상, 인상적이고 괴이하기까지도 한 얼굴 화장, 과장적이고 규격화된 몸짓과 말투 등 연극술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배우의 연기로 모아진다.

■ 창념주타(唱念做打)의 네 가지 연기수단

▶ 노래의 가사 : 불규칙한 장단구(長短句) 혹은 7자, 10자로 정형화되어 있는 시찬체(詩讚體)이며 대체로 서정적이다.

▶ 대사 : 시와 비슷한 성격의 운문으로 이루어진 대사와 각지의 방언을 이용한 일상생활의 언어에 가까운 산문으로 이루어진 대사가 있다.

▶ 주(做) : 거의 춤에 가까운 동작으로 때로는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 타(打) : 중국 전통의 무술을 춤에 가깝게 연기하는 특유의 무술연기이다.

혼자서 무예를 펼치는 연기를 파자공(把子功)이라 한다.

바닥에서 구르거나 공중제비를 넘는 연기는 담자공(毯子功)이라 한다.

■ 경극무대에 쓰이는 소도구 : 일탁이의(一卓二椅)라고 부르는 의자와 탁자가 있다.

■ 경극을 비롯한 중국 희곡의 주요 특징 : 정식(程式) 혹은 정식화(程式化)라는 말이 있다.

▶ 중국 희곡의 모든 방면에 걸쳐 정식이 폭 넓게 존재하지만 특히 연기의 정식이 중요하다.

▶ 무대를 빙 돈다는 뜻인 '원장(圓場)'은 배우들이 무대공간을 넓게 이용하는 연기로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핵심 포인트]

음악 연주 - 중국 희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노래 - 창(唱), 대사 - 념(念), 동작 - 주(做), 무술 - 타(打)라는 네 가지 수단으로 연기.

희곡의 성악 곡조의 종류

곡패연투체(曲牌聯套體) - 곡조가 같은 노래가 많고, 가사만 바뀌게 되는 것.

판식변화체(板式變化體) -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곡조의 장단만 지정, 선율은 배우의 역량에 맡겨짐.

연기수단 - 음악과 함께 중국 희곡에서 배우의 몸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연기.

경극무대에 쓰이는 소도구 - 일탁이의(一卓二椅)의 의자와 탁자가 있음.

원장(圓場) - 무대를 빙 돈다는 뜻, 장소의 이동을 나타냄.

4.. 각색(脚色)과 검보(臉譜)

■ 경극은 전문배우체제에 입각하여 배우들을 양성하며, 배우들은 각색별로 전문화된 연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 4대각색 : 생(生)-남자 주인공, 단(旦)-여자 주인공, 정(淨)-장군과 영웅호걸, 추(丑)-우스개를 연기하는 배우

■ 검보 : 경극배우들이 각색에 따라 독특한 얼굴 분장을 하는데 이 체제를 검보라 함.

검보의 계통은 크게 소면(素面)- <생과 단의 분장에 적용되는 화장법으로 현란한 색채를 쓰지 않아 비교적 깨끗한 얼굴이다.>과 도면(塗面)-<조연급 배우들의 분장에 주로 쓰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무늬를 얼굴에 그리기 때문에 화면(花面)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눈다. 같은 얼굴 모양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성격과 신분이 매우 달라진다.

제 4절 20세기를 빛낸 문인과 예술가

■ 노신(魯迅)

▶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 노신은 현대문학의 문을 연 기념비적 작품을 발표한 문인이자 중국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위대한 민족지도자이기도하다. 그의 작품 속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자신들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허상을 품고 살다가 아편전쟁 이후 그 허상이 무너졌는데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위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추어진다.

▶ 애국적 정열에 바탕을 둔 치열한 정신과 실천적인 태도는 노신의 작품으로 하여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높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게 하였다.

■ 그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쓴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실천한 지식인의 한 모범으로서 문학의 영역을 넘어 제3세계 현대사의 한 정신적 지표로서 존중되고 있다.

■ 노신의 생애

▶ 1881년 절강성 소흥에서 태어났다.

▶ 본명은 주수인(周樹人)이고, 노신은 그의 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 어려서 서당식 교육을 받았으나 자라서 신학문을 배우고, 1904년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해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 어느 날 학교에서 환등기를 통해 중국인이 러시아군 첩자라는 죄목으로 일본군에게 붙잡혀 군중들 앞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중국인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의학을 떠나 문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 정신적으로 어리석고 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하잘 것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을 치료하고 개조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학이라 생각하였다.

■ 노신이 문학 활동으로 전향한 뒤 일본에서 착수한 최초의 일은 잡지의 창간이다. 그가 계획한 잡지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패로 끝났지만 여러 과학소설을 번역했으며, 그의 관심은 순수하게 문학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 1907년 엄복이 번역한 『천연론(天演論)』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노신은 당시 진화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진화론에 관한 몇 편의 글을 썼다.

■ 1909년 노신은 일본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 그가 국민계몽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였으며, 문학 활동은 1917년 무렵이었다.

■ 노신이 문학 활동에 본격적인 때는 진보적 지식인 진독수(陳獨秀)가 창간한 잡지 『신청년』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 1918년 5월 『신청년』에 단편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를 발표하였다.

■ 구어체의 문장과 서구 현대소설의 창작기법을 도입했으며, 문학혁명의 핵심적인 주장인 ‘봉건주의 타파’라는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노신은 이 소설을 통해 중국인들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전통윤리를 ‘봉건예교’라고 비판했으며, 중국 사회를 ‘사람을 잡아먹

는 [吃人] '사회라고 공격하였다.

■ 노신은 처녀작인 「광인일기」를 통해 중국 현대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창작기법과 내용면에서 현대문학의 기점이 됨.

1919년 4월 두 번째 작품인 「공을기(孔乙己)」를 발표하였고, 5월에 「약(藥)」등을 발표하였다.

■ 1923년 첫 소설집 『납함』을 출간하였다.

모두 14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아Q정전」 한 편만 중편이었다.

■ 최고의 걸작 : 중국 봉건사회를 통렬히 비판한 「광인일기」, 중국인의 이중적인 허위의식과 열등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아Q정전」은 중화사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던 중국인의 치부를 날카롭게 해부한 작품이다.

■ 두 번째 소설집 『방황(彷徨)』에 실린 소설들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등장인물도 도시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반봉건이라는 주제보다는 급변하는 시대에 직면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이 소설의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변화는 당시 노신의 고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1925년 노신은 북경여사대의 학생시위사건에 연루되어 파면을 당했다. 후에 노신은 다시 중산대학(中山大學) 교수로 취임하여 4.12정변이 벌어지는 1927년까지 광주에 머물렀다. 국민당정부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규합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젊은 문인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프로문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의 프로문학을 주도하던 창조사와 태양사의 젊은 문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했지만 노신은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문학의 현황을 소개하는 등 프로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혁명문학논쟁과정에서 태양사와 창조사의 좌익문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노신은 그들과 손잡고 1930년 좌익작가연맹에 참여하였다.

▶좌익작가연맹의 대표로 추대되었던 노신은 이후 작가로서의 활동보다는 치열한 정치투쟁의 선두에서 적극적인 구국활동에 힘을 쏟았지만 냉엄한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혀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노신은 1936년의 국방문학(國防文學)논쟁을 통해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국방문학논쟁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민당과 연합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지시를 둘러싸고 좌익작가연맹 내부에서 벌인 논쟁이었다.

■ 노신은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던 젊은 작가들로부터 또 다시 현실의 변화를 직시 못하는 보수주의자라고 비난받았으며, 그 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 세 번째 소설집 『고사신편(故事新編)』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창작이었다.

역사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국의 신화와 역사를 빌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담은 것으로서 그의 치열한 현실인식과 비판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핵심 포인트]

노신(魯迅) - 중국 현대문학 대표 작가.

노신 - 현대문학 기념비적 작품을 발표한 문인, 중국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위대한 민족지도자. 그의 작품 속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추어짐.

노신 - 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

1911년 신해혁명 이후 - 국민계몽활동 본격적 시작, 문학활동 : 1917년 무렵부터 잡지 『신청년』에 참여하면서 부터.

1918년 5월 - 『신청년』에 단편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 발표로 중국 현대문학의 선구자가 됨.

「광인일기」 - 「공을기(孔乙己)」 - 「약(藥)」 등을 발표.

1923년 첫 소설집 『납함』 출간 - 모두 14편의 작품 수록, 「아Q정전」 한 편만 중편.

두 번째 소설집 『방황(彷徨)』 - 도시 배경, 도시의 지식인들 중심, 급변하는 시대에 직면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이 소설의 주요한 문제로 부각.

노신은 러시아혁명 후 소련문학의 현황 소개 등 프로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

1936년 국방문학(國防文學)논쟁 -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민당과 연합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지시를 둘러싸고 좌익작가연맹 내부에서 벌인 논쟁. 세 번째 소설집 『고사신편(故事新編) - 역사소설, 중국의 신화와 역사를 빌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담음, 치열한 현실인식과 비판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

2. 매란방(梅蘭芳)

■ 19세기 말 체제가 완비되었던 경극은 1920년대에 이르러 '4대 명단(四大名旦)'의 출현과 함께 남주인공인 생(生) 중심의 극으로부터 여주인공인 단(旦) 중심의 극으로 바뀌었다.

■ 1920 ~ 1930년대 경극의 전성기를 이루어냈던 네 사람의 명배우를 가리키는 4대 명단은 매란방(梅蘭芳), 정연추, 순혜생, 상소운의 네 사람이었다. 그 중에 으뜸이 매란방(1884 ~ 1961)이었다.

■ 매란방은 배우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할아버지,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배우수업을 받았다. 10대의 매란방은 당시 유명한 전문배우였던 왕요경과 진덕림의 지도를 통해 여성 각색의 소화에 필요한 연기를 배우는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 매란방은 1913년 상해로 가서 경극배우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나, 《목가채(穆家寨)》의 한 대목 가운데서 여주인공 목계영의 형상을 완벽하게 연기를 해 상해 경극의 관중을 사로잡았다.

■ 상해 일대에서 이름을 떨친 매란방은 중국 내 순회공연과 몇 차례 해외공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 희극을 대표하는 배우로 이름을 날렸다. 1919년, 1925년 일본에서 가진 공연과 1930년 미국에 건너가 경극을 소개하면서 절찬을 받았다. 그 후 서구와 소련 예술인들의 환대 속에서 경극의 성과를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가 일본군에게 점령되자 북경을 떠나 상해로 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다시 상해를 떠나 홍콩으로 갔다. 1941년 일본군은 홍콩을 점령하였으며, 홍콩에 남아있던 그에게 일본군은 무대에 설 것을 강요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중국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다시 경극무대에 섰으며, 1947년에는 그가 연출한 경극 『고난생사(苦難生死)』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출연하기도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의 희극계의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쳤으며, 1953년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위한 위문공연을 가졌다.

■ 매란방의 연기생애

▶ 배우수업에 뛰어난 때부터 자신의 독특한 연기세계를 선보이기 시작한 1915년까지의 시기.

주로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주력한 시기이며, 경극의 갖가지 연기술이 완성된 시기였다.

▶ 1915년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때까지로서 창조적 역량을 가장 왕성하게 발휘한 시기.

노래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여주인공 역할 연기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적 연기의 영역을 개발하였다. 경극의 역사를 통틀어 단 각색의 연기를 완성하였다.

새로운 가무 스타일을 창안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작품과 특유의 수많은 무용을 안무하였다. 단의 화장법을 개혁하여 오늘날의 경극무대에서는 대부분 그가 창안한 방법을 쓰고 있다.

▶ 전쟁이 끝난 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시기.

중국 희극계의 원로로서 희극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귀비취주(貴妃醉酒)》 《단교(斷橋)》 《패왕별희(霸王別姬)》 《목계영괘수(穆桂英掛帥)》 등 자신의 예술적 특색이 가장 잘 발휘된 작품의 공연을 통해 경극연극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매란방은 오랜 경극 무대생활을 통해 수많은 인물 형상을 창조했는데, 전통적 중국의 소극적 여인상과는 반대되는 깨끗하고 총명한 여인상이었다.

[핵심 포인트]

1920 ~ 1930년대 경극전성기 - 4대 명단 : 매란방(梅蘭芳), 정연추, 순혜생, 상소운.

매란방은 1913년 경극배우로서 《목가채(穆家寨)》의 여주인공 목계영의 형상을 완벽하게 연기. 최고의 스타가 됨.

1915년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때까지 창조적 역량을 가장 왕성하게 발휘.

새로운 가무 스타일 창안, 새로운 무용 안무. 단의 화장법 개혁으로 오늘날 경극무대에서 사용.

생을 마감하기전 - 중국 희곡계의 원로로서 희곡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기. 《귀비취주(貴妃醉酒)》 《단교(斷橋)》 《패왕별희(霸王別姬)》 《목계영괘수(穆桂英掛帥)》 등 자신의 예술적 특색이 가장 잘 발휘된 작품의 공연을 통해 경극연극의 모범을 보여줌. 깨끗하고 총명한 여인상 연기.

3. 장예모(張藝謀)

■ 장예모 감독은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 영화 관객들에게 각인돼 있다. 그러나 세계 우수 영화제 격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폐쇄적인 문화적 분위기와 정치 권력의 검열로 인해 중국 관객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예모에게는 중국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찬사와 함께, 서구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영화를 통해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함께 가해졌다.

■ 대표작 : 《붉은 수수밭(紅高粱)》 - 막언(莫言)의 소설 「紅高粱家族」을 영화한 것이다.

■ 《붉은 수수밭》 : 장예모의 출세작일 뿐만 아니라 제5세대 감독이라는 새로운 영화인들의 등장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또한 건국 이후 서구세계와의 관계를 끊다시피 했던 중국영화가 세계영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즐거리보다도 화면의 색조와 과장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더 인상적인 영화로 건국 이후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새로운 화면을 전 세계 영화 관객 앞에 보여주었다. 새로운 화면의 근저에 깔려있는 정서는 장예모의 세대가 겪은 상실감과 허무감이었다.

■ 건국 직후 태어나 막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불러닥친 문화대혁명은 장예모를 비롯한 제5세대의 청소년기를 황폐화시킨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기억이었다.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떠가던 그들은 홍위병으로 동원되어 부모와 스승과 모든 기성세대들의 과오를 추궁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강요받았다. 10년이 지나 청년이 된 그들은 모택동의 사망과 함께 시작한 개혁 개방의 깃발 아래서 10년 전 기성세대를 존경하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선언했다.

▶ 자신들의 기억과 눈앞의 현실에 대해 극도의 혼란과 당혹감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제5세대의 역사에 대한 상실감과 허무감은 장예모 영화의 저변을 이루는 정서였다.

■ 1990년의 《국두(菊豆)》, 1991년의 《홍등(大紅燈籠高高掛)》은 장예모의 시선이 중일 전쟁과 혁명의 역사를 넘어서 전통과 근대가 착종되어있던 현대중국 초창기의 중국의 부조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경우이다.

▶ 《국두(菊豆)》와 《홍등》은 억압과 모순으로 점철된 중국인들의 억눌린 자화상이며, 장예모 자신의 비판적인 세계 인식을 형상화한 영화이다.

■ 1992년 제작된 《귀주 이야기(秋國打宮司)》는 한 농촌마을의 촌장과 시골 아낙네 사이의 시비가 법적 송사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시골 아낙네의 시선을 통해 추적한 영화로 표면적으로는 낙후된 중국 농촌의 현실, 관료주의적 사회체제, 사법제도의 비현실성 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 영화가 추구한 주제는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건국 이후의 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해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파묻히고 가려져 오기만 한 역사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 1994년 제작된 《인생(活着)》은 좀더 긴 호흡으로 중국현대사의 부조리를 추적한 영화였다.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그저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을 뿐, 중국현대사를 주름잡은 수많은 사건이나 구호와 이념들은 이해 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었을 뿐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 1990년대 후반 이후 장예모의 영화 화면은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색채를 거의 벗어버리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료하고 밝은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장예모의 영화가 제5세대 영화라는 기존의 미학적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화의 미학과 전망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 포인트]

장예모 감독 -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사람, 중국 내에서는 폐쇄적인 문화적 분위기와 정치권력의 검열로 인해 중국 관객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함.

대표작 - 《붉은 수수밭(紅高粱)》: 막언(莫言)의 소설 「紅高粱家族」을 영화한 것.

《붉은 수수밭》 - 장예모의 출세작, 제5세대 감독이라는 새로운 영화인들의 등장.

어두운 배경 - 화면의 근저에 깔려있는 정서는 장예모의 세대가 겪은 상실감과 허무감.

《국두(菊豆)》와 《홍등》 - 억압과 모순으로 점철된 중국인들의 억눌린 자화상, 장예모 자신의 비관적인 세계인식을 형상화한 영화.

1992년 제작된 《귀주 이야기(秋國打宮司)》 -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건국 이후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희생과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적당히 과묵하고 가려져 오기만 한 역사에 대한 문제제기.

1990년대 후반 이후 장예모의 영화화면 -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료하고 밝은 모습.

※ 본 자료는 '에이플러스로닷컴'의 양해를 얻어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올리실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